

수능 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이 책의 특징과 구성



이 책의 특징

- 01 ▶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하여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과목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된 여러 문항을 통해 다양한 제재와 유형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02 ▶ ‘교과서 개념 학습’ → ‘적용 학습’의 단계를 통해 기초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수능 형식의 ‘실전 학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교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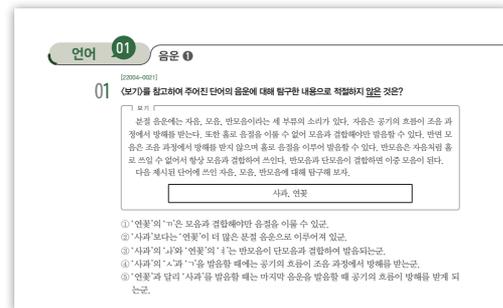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언어와 매체’ 과목의 기초를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주요 개념 및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로 이해하기’를 통해 앞서 설명한 개념 및 이론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답형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2부 적용 학습

‘언어’ 14강, ‘매체’ 14강, ‘통합’ 6강으로 구성되어 여러 유형의 수능형 문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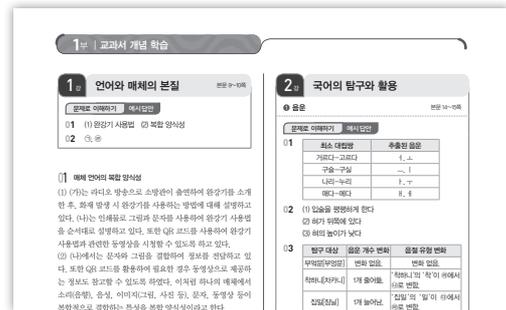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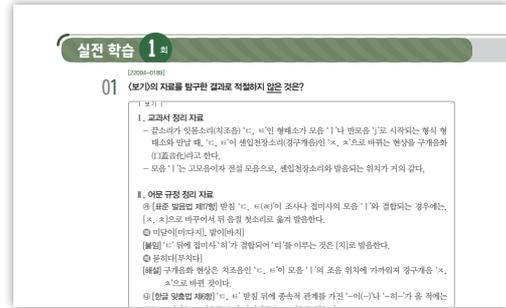


3부 실전 학습

수능과 동일한 문항 수로 구성하였으며, 총 2회 분량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주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2004-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00
80
60
40
20
0

1. 아래 그래프를 이

1. 200
80
60
40
20
0

1. 200
80
60
40
20
0

※ EBSi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 ↓ 한글다운로드
- ✉ 교재이미지 활용
- ☰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008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① 음운	011
② 단어	016
③ 문장	024
④ 담화/국어사	032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038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046

2부 적용 학습

언어 01~14	052
매체 01~14	112
통합 01~06	198

3부 실전 학습

1 회	220
2 회	232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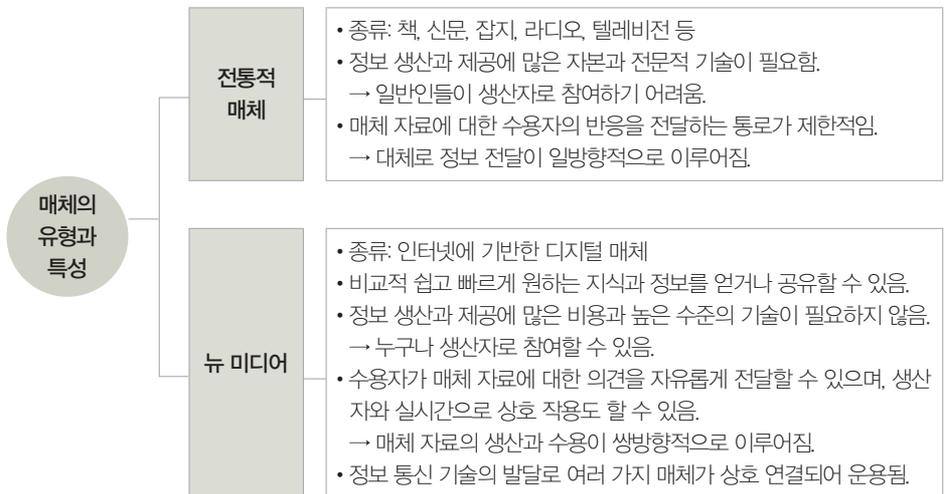
교과서
개념
학습

학습의 길잡이

언어와 매체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이는 수단이다. 매체를 통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 매체란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매체가 등장함.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 위의 특성은 상대적 특성에 해당함.

● 뉴 미디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를 가리킴. 다양한 매체 언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함.

2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 매체 언어: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임.
- 매체 언어의 특성: 오늘날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는 매체들은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음.

복합 양식성

하나의 매체에서 소리(음향), 음성, 이미지(그림, 사진 등), 문자,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성

문제로 이해하기

[01~02] (가)는 라디오 방송, (나)는 완강기 설치 장소에 부착된 인쇄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지난달 서울의 한 3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다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 소방관: 네. 바로 완강기입니다. 당시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는데, 1, 2층 거주자들은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왔고, 3층 거주자들은 화재로 출입 계단이 막히자 복도 끝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해서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참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청취자들 중에는 완강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완강기가 뭘지 설명해 주시죠.

○○○ 소방관: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 기구를 말하는데요, 보통 베란다나 창문 옆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릴과 줄, 조속기, 훅, 벨트 그리고 벽면에 부착된 지지대로 이뤄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 건물에도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정작 저는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관: 완강기 사용법은 알고 나면 무척 간단합니다. 하지만 완강기 사용법을 모르면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먼저,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완강기 훅을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이때 완강기 훅 연결용 고리를 돌려서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을 창밖으로 던져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벨트를 머리 위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착용하고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꼭 당겨 조여 줍니다. 자, 이제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벽을 짚으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진행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게시판에 보니 유익한 정보였다는 청취자들의 반응이 많군요. 아, 여기 질문도 들어와 있네요. 사용법이 의외로 간단해서 놀랐다고 하시면서, 탈출 시에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소방관: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하나의 완강기를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지 마시고 차례 차례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 몸이 벨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벨트를 꼭 조이고 양손을 벌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다 오히려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평상시에 완강기의 위치와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 두면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연하여 좋은 정보를 알려 주신 소방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



“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 동영상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1



2



3



4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대한민국 소방

01

[22004-0001]

위 매체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제재는 무엇인지 쓰시오.
- (2) 다음 설명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가)에서는 음성 언어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문자 언어와 그림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나)처럼 하나의 매체에서 음성, 문자, 그림, 음악 등의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 (이)라고 한다.

02

[22004-0002]

(가)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제작한다고 가정할 때, (가)의 제작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 ㉠ 사진과 자막으로 완강기의 구성품들을 자세하게 보여 준다.
- ㉡ 여러 종류의 완강기를 전시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 ㉢ 화재 진압을 위한 다양한 소화 장비들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 ㉣ 출연자가 직접 완강기를 사용하여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2 강 · 국어의 탐구와 활용 _ ① 음운

1 음운의 이해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예 불-풀(ㅂ:ㅍ), 불-밭(ㄴ:ㄷ)

(2) 음운의 종류: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1)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 음소(音素)라고도 함.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음.

특성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으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예 ㉠ ㄱ, ㄴ, ㄷ, ㄹ...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으며,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음. 예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이중 모음: ㅟ, ㅠ, ㅢ, ㅤ, ㅥ...
반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으나,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예) ㉡ j, w

2) 비분절 음운: 고저(高低), 강약(強弱), 장단(長短)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 음소에 얽혀 실현되며, 운소(韻素)라고도 함. 현대 국어 표준어에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임. 예 눈[目]-눈:[雪], 말[馬]-말:[言]

2 국어의 음운 체계

(1) 자음 체계: 자음은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인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누어짐.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예사소리)			ㅈ		
	경음(된소리)			ㅉ		
	격음(거센소리)			ㅊ		
마찰음	평음(예사소리)		ㅅ			ㅎ
	경음(된소리)		ㅆ			
	격음(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최소 대립쌍

'달-살'과 같이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

▶ 반모음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고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므로,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임. 그래서 '반자음'이라고도 부름. 그러나 단모음과 어울려 이중 모음을 이루는 점을 더 중시하여 흔히 '반모음'으로 부름.

▶ 장단(長短)

국어의 장음은 원칙상 단어의 첫 머리에만 올 수 있음. 가령 '눈[눈]'과 같이 장음을 지니는 단어가 합성어를 이루어 '첫눈[첫눈]'과 같이 되면 장음이 단음으로 바뀜.

○ 이중 모음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j-계 이중 모음(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과 w-계 이중 모음(ㅑ, ㅓ, ㅕ, ㅗ, ㅛ)이 있음.

○ ‘ㅜ, ㅠ’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는 ‘ㅜ, ㅠ’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

○ 연음(連音)

‘밖이[바끼]’, ‘앞을[아플]’ 등에서 보듯이 연음은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으로,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님.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는 명사(주로 의존 명사)가 이어질 때 일어남.

(2) 단모음 체계: 혀의 위치(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위치(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ㅍ
중모음	ㅑ	ㅑ	ㅑ	ㅑ
저모음	ㅓ		ㅓ	

3 국어의 음운 변동

(1) 음운 변동의 개념: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 음운 변동 전후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교체, 첨가, 탈락, 축약)로 구분됨.

(2) 음운 변동의 유형

1) 교체(대치):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으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밖 → [바크], 부엌 → [부억], 꽃 → [꼇], 입 → [입]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 → [궁물], 받는다 → [반는다], 입는다 → [임는다]
유음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 → [शल라],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하-’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으로 발음됨. 예) 굳이 → [구지], 같이 → [가치], 달하다 → [다치다]
경음화 (된소리되기)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예) 국밥 → [국뺨], 민지 → [민찌], 출고 → [출꼬] •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경음화 예) 신고 → [산꼬], 감다 → [감따] •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ㅌ,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받침 뒤의 경음화 예) 발달 → [발뺨], 질서 → [질써], 물질 → [물질]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예) 할 것을 → [할꺼슬]

2) 첨가: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ㄴ'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첨가되는 현상 예) 맨입 → [맨닙], 숨이불 → [숨:니불], 한여름 → [한녀름]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ㅇ'가 첨가되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님. 예) 피어 → [피어/피여], 되어 → [되어/되여]

3) 탈락: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뭇 → [목], 값 → [갑], 젊다 → [점따], 읊다 → [읍따]
자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ㄹ' 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ㄹ'이 'ㄴ, ㅅ' 등의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알-+-니 → [야니], 알-+-시-+-고 → [야시고] • 'ㅎ'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넣어 → [너어], 쌓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ㅡ'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꼬-+-어서 → [꺼서], 담그-+-아도 → [담가도] •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자-+-아서 → [자서], 서-+-어 → [서]

4)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격음화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입학 → [이팍], 좋다 → [조:타], 각하 → [가카], 날지 → [너:치]
-----------------	---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의 'ㄹ' 탈락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기도 함. '하늘+ㅈ' → 하늘+ㅈ → 화살, 바늘+ㅈ → 바느질'과 같은 예가 있음.

03

[22004-0005]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가)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 모음, ㉡ 자음+모음, ㉢ 모음+자음, ㉣ 자음+모음+자음'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꽃[꼇]'은 ㉣, '잎[입]'은 ㉢에 속한다.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 결과 [꼇닙]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꽃잎'의 두 번째 음절은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에서 ㉣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뜻하다'는 [뜨타다]로 소리 나는데 이 과정에서 교체(ㅅ → ㄷ) 후 축약(ㄷ + ㅎ → ㅌ)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줄었다.

탐구 대상	음운 개수 변화 (예 1개 늘어남.)	음절 유형 변화 (예 '꽃잎'의 '잎'이 ㉢에서 ㉣로 변함.)
부역문[부영문]		
착하니[차카니]		
집일[집닐]		

1 단어의 분류

(1) **품사(品詞)**: 단어를 형태적·기능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가 있음.

(2) 품사 분류의 기준

1) **형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음.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고,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임.

- 예 • 가변어: 먹다(먹고, 먹니, 먹어서, 먹습니다…), 예쁘다(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쁩니다…),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 불변어: 달, 우리, 넷, 현, 무척, 을/를, 아이고

2) **기능**: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기준으로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음.

3) **의미**: 단어 부류가 지닌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음.

[품사의 분류]



(3) 품사별 특성

1)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음.

품사	특성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 명사로 나뉨. 예) 책상, 평화(보통 명사) / 신라, 이황(고유 명사) •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와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로 나뉨. 예) 바다, 마을(자립 명사) / 것, 때문(의존 명사)

● 서술격 조사 '이다'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또는 일부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속성과, '이고', '이니', '이면서', '이지' 따위로 '아'에 어미가 붙어 활용을 한다는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격 조사'라고 함.

대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 • 사람 표시의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 표시의 지시 대명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우리... 지시 대명사: 여기, 그곳, 저것... •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이라 함.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재귀칭이라고 함. 국어에서 재귀칭은 3인칭에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칭: 무엇, 언제... 부정칭: 아무, 누구... 재귀칭: 자기, 당신...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사: 하나, 둘, 셋, 일(-), 이(二), 삼(三), 서넛... 서수사: 첫째, 둘째... • 수사에는 정확한 수와 대략의 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 첫째, 둘째... 대략의 수: 한둘, 서넛, 너댓, 한두째... •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음.

2) 용언: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음.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음.

품사	특성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동사: 알다, 부르다... 자동사: 피다, 웃다...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상 형용사: 크다, 푸르다, 차갑다... 지시 형용사: 그러하다, 어떠한다, 아무러하다...

☞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름.

-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음. ㉠ 현재 시제 평서형: 잔다/먹는다(동사), *예쁘다/*좁는다(형용사)
-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으)ㄴ’이 붙음.
 -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자는/먹는(동사), 예쁜/좁은(형용사)
-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음.
 - ㉠ 명령형/청유형: 자라/먹자(동사), *예뻐라/*좁자(형용사)
-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 등이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않음.
 - ㉠ -(으)려고/-고자: 먹으려고/먹고자(동사), *좁으려고/*좁고자(형용사)

▶ **미지칭과 부정칭**

같은 대명사가 미지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음.

- ㉠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미지칭 대명사)
어디냐 마찬가지로이다.
(부정칭 대명사)

▶ **재귀칭**

- ㉠ 형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섰다.
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
할머니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신다.

● 관형사, 부사와 조사의 결합

관형사는 격 조사뿐만 아니라 보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음. 부사도 관형사와 같이 격 조사를 취할 수 없지만, 보조사를 취할 수는 있음.

예 차가 빨리도/는 간다.

3)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로서 관형사와 부사가 있음.

품사	특성
관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 •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음. 예 성상 관형사: 새, 흰, 옛, 맨...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 수 관형사: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댓/다섯...
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예 활짝, 아주, 실로, 비록... •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함. 예 아주 새 책 그는 노래를 <u>매우</u> 잘 부른다. 바로 너 •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예 빨리 밥을 먹어라. / 밥을 빨리 먹어라. •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가 있음. 문장 부사에는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도 포함됨. 예 성분 부사: 날이 더워서 <u>땀</u>을 뻘뻘 흘린다. 문장 부사: <u>설마</u>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4) 관계언: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서 조사가 있음.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남. 쓰임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뉨.

조사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로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등이 있음. 예 이/가, 께서, 을/를, 이다, 의, 에, 에서, (으)로, 아/야...
	보조사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예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 와/과, 하고, (이)랑...

5) 독립언: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로서 감탄사가 있음. 독립언은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 쓰일 수 있음.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 예 앓, 와, 얼씨구, 오호, 야, 네, 음... •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 뒤에는 흔히 쉼표(.)를 찍음. 감탄사 자체가 아예 독립된 문장이 되면 뒤에 흔히 느낌표(!)를 찍음.
-----	--

● 조사의 생략

격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보조사는 생략되면 의미가 달라지므로 생략이 어려움.

2 단어의 형성

(1) 형태소

1)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예문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형태소	나, 는, 잘, 익-, -은, 과일, 을, 아이, 에게, 먹-, -이-, -었-, -다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나, 잘, 과일, 아이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는, 익-, -은, 을, 에게, 먹-, -이-, -었-, -다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어휘 형태소라고도 함. 예) 나, 잘, 익-, 과일, 아이, 먹-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도 함. 예) 는, -은, 을, 에게, -이-, -었-, -다

(2) 단어

1) 단어: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함.

예문	저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단어	저, 넓은, 밭, 을, 갈고, 있는, 사람, 은, 이, 마을, 에, 오래, 살았다

2) 단어의 구조

①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예) '헛소리'의 '소리', '맨발'의 '발', '가위질'의 '가위', '놀이'의 '놀-'
접사	어근에 붙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 예) '헛소리'의 '헛-', '맨발'의 '맨-', '가위질'의 '-질', '놀이'의 '-이'

②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눔.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예) 바다, 물, 깊다, 빠르다	
복합어	합성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었을 때 둘 다 어근인 단어 예) 집밥('집'과 '밥'으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에 속함) 잘못('잘'과 '못'으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에 속함)
	파생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었을 때 둘 중 하나가 접사인 단어 예) 헛돌다('헛'과 '돌다'로 분석되며 '헛'이 접사임) 빠기('빠-'와 '-기'로 분석되며 '-기'가 접사임)

●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

어미와 조사 중에서 조사만을 단어로 처리한 것은, 자립성의 기준에서 보아 어미 앞에 오는 어간은 자립성이 없지만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은 자립성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처럼 체언이 자립성이 있으므로 조사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임.

● 직접 구성 요소

어떤 말을 둘로 쪼개었을 때, 그 둘 각각을 가리키는 말.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도 함.

3) 합성어의 형성과 분류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 예) 팔죽(명사+명사), 어린이(용언의 관형사형+명사), 걸어가다(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음.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합성어 예) 접칼(용언 어간+명사), 검붉다(용언 어간+용언 어간), 보슬비(비자립적 어근+명사) →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된 ‘접칼’,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과 바로 연결된 ‘검붉다’나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바로 명사를 꾸며 주는 ‘보슬비’와 같은 단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음.

4) 파생어의 형성과 분류

접두 파생어	어근의 앞에 접사(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예) 헛-: 헛기침, 헛수고, 헛디디다 군-: 군침, 군소리, 군식구
접미 파생어	어근의 뒤에 접사(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예) -잘: 빗질, 걸레질, 도둑질 -(으)ㅁ: 믿음, 웃음, 잠

● 접사의 기능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임.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용언의 어간이 단어 형성의 재료인 어근으로 쓰인 것임.

● 다의어와 동음어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고, 같은 발음이 나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단어를 동음어(=동음이의어)라고 함. 동음어는 표기가 같은 경우와 표기가 다른 경우로 나뉨.

예) 같은 표기: 다리[脚]/다리[橋]
 다른 표기: 붙이다/부치다

3 단어의 의미

(1)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들 간에는 여러 종류의 의미적 관련성이 있음.

유의 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됨. 예) ‘간혹’과 ‘이따금’, ‘걱정’과 ‘염려’
반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반의어가 됨. 예) ‘아버지’와 ‘어머니’, ‘위’와 ‘아래’
상하 관계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포함하는 말을 상위어, 포함되는 말을 하위어라고 함. 예) ‘식물’(상위어)과 ‘소나무’(하위어), ‘현악기’(상위어)와 ‘가야금’(하위어)

(2) 단어의 의미 변화: 언어가 생성, 변화, 소멸하는 과정에서 의미 역시 변화함.

의미 확대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 예) 손: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킴. → ‘노동력’의 의미가 추가됨.
의미 축소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지는 경우 예) 사랑하다(>사랑하다): ‘생각하다’ 또는 ‘사랑하다’의 뜻 → ‘사랑하다’의 뜻만 남음.
의미 이동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일 없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 예) 어엿보다(>어여쁘다): ‘불쌍하다’의 의미 → ‘예쁘다’의 의미로 바뀜.

4 단어의 표기

(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됨.

1)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외래어는 현용 24 자모만 사용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함.
-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함.
 - 예)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쑈(×)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bus: 버스(○), 뺄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 예) camera: 카메라(○), 캐머러(×)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됨.

1)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2)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①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ㅃ	ㅍ	ㅍ	ㅈ	ㅊ	ㅊ	ㅅ	ㅆ	ㅎ	ㄴ	ㄹ	ㅇ	ㄹ
g, k	kk	k	d, t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 ‘ㄱ, ㄷ, ㅃ’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음.

② 단모음의 로마자 표기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a	eo	o	u	eu	i	ae	e	oe	wi	

③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

ㅑ	ㅓ	ㅕ	ㅠ	ㅞ	ㅟ	ㅛ	ㅜ	ㅠ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④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 자음 동화, ‘ㄴ’ 첨가,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함.
 - 예) 백마[백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학여울[향녀울]: Hangnyeoul, 해돋이[해도지]: haedoji, 농다[노타]: nota
-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예) 죽변[죽뼌]: Jukbyeon, 팔당[팔땅]: Paldang

◎ 현용 24 자모

-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ㆁ (총 14자)
- 모음자: ㅏ, ㅑ, ㅓ, ㅕ, ㅡ, ㅣ (총 10자)

◎ 체언에서 일어나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의 표기

체언에서 ‘ㄱ, ㄷ, ㅃ’ 뒤에 ‘ㅎ’이 오는 경우에는 ‘ㅎ’을 밝혀 적음.

- 예) 묵회무코: Mukho

문제로 이해하기

[22004-0006]

01 제시된 ‘품사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시오.

「 보기 」
 지난 주말에 친구 셋과 공원에서 만났다. 우리는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힘들었지만, 얼굴도 보고 맑은 바람도 쐬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아,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던지!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품사 분류 기준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 분류			
형태	기능	의미	단어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주말			
		대명사	셋			
		수사	에서			
	수식언	관형사	우리			
		부사	새			
	독립언	감탄사	맑은			
관계언	조사	한결				
가변어	(서술격 조사)		아			
	용언	동사	떠들다			
		형용사				

02

[22004-0007]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시된 문장에서 찾고, 그 결합 형태를 설명하시오.

┌ 보기 ─┘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새파란 모자를 쓴 아이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달려왔다.

	해당 단어	결합 형태(㉣) '돌아가는'→ 어근 '돌-'과 어근 '가-'가 결합
㉠		
㉡		
㉢		

03

[22004-0008]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중 자음 표기 규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제시된 표기를 바르게 고치시오.

┌ 보기 ─┘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단어를 잘못 표기한 예	바른 표기
'집현전[지편전]'을 'Jipyeonjeon'으로 표기했다.	
'월요일[위료일]'을 'wolyoil'로 표기했다.	
'합떡[합떡]'을 'Habtteok'으로 표기했다.	

● ‘구’와 ‘절’

- 구(句):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말
- 절(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의미 단위로서 더 큰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말

● 서술어의 구성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용언 혹은 ‘체언+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 ㉠ 이 음식을 먹어 보아라.
- ㉡ ‘먹어 보아라’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보다’가 연결 어미를 매개로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었음.

●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은 문장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본용언) 뒤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함. 이때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은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있는 ‘-아/-어’ 등의 어미 대신 ‘-아서/-어서’로 바꾸어 쓸 수 없음.

- ㉢ 옷을 사 입다.
(본용언+본용언)
→ 옷을 사서 입다.
밥을 먹어 버리다.
(본용언+보조 용언)
→ *밥을 먹어서 버리다.

1 문장 성분

해당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

㉠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경찰’은 행위의 주체, ‘도둑’은 행위의 대상, ‘잡았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임.
이 문장에서 ‘경찰이’는 주어, ‘도둑을’은 목적어, ‘잡았다’는 서술어임.

2 문장 성분의 종류

- (1)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필수 성분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음.
- (2)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임. 관형어, 부사어가 있음.
- (3) **독립 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임. 독립어가 있음.

3 문장 성분별 특성

(1) 주어와 서술어

문장 성분	특성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에 해당함. •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가 붙어 나타나는데,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누나가 공부를 한다. (주격 조사 ‘가’가 붙음.) 누나 지금 공부해. (주격 조사가 생략됨.) 누나도 공부를 한다. (보조사 ‘도’가 붙음.)
서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함. ㉡ 삼촌은 경찰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하늘이 노랗다. (무엇이 어떠하다) 형이 노래를 부른다. (무엇이 어찌하다)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①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 명수는 학생이다. 꽃이 피었다. ②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 그가 밥을 먹었다.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형은 의사가 되었다.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민들레는 썸바귀와 비슷하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③ 세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

(2) 목적어와 보어

문장 성분	특성
목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나타나는데, 목적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나는 <u>빵</u>을 먹었다.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음.) 나는 <u>빵</u> 먹으래. (목적격 조사가 생략됨.) 나는 <u>빵도</u> 먹었다. (보조사 '도'가 붙음.)
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실현됨. 보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보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언니가 <u>대학생</u>이 되었다. (보격 조사 '이'가 붙음.) 언니가 <u>대학생</u> 되었어. (보격 조사가 생략됨.) 언니가 <u>대학생</u>은 아니야. (보조사 '은'이 붙음.)

(3) 관형어와 부사어

문장 성분	특성
관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며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관형사형(용언 어간+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으로도 나타남. ㉢ 그녀는 <u>옛</u> 물건을 꺼냈다. (관형사) / <u>시골</u> 풍경이 아름답다. (체언) 나는 <u>어머니</u>의 모자를 집었다.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음.) <u>어머니</u>께서 <u>예쁜</u> 꽃을 사 오셨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음.)
부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관형사, 다른 부사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함. ㉣ <u>아주</u> 오랜 세월이 흘렀다. (관형사를 꾸밈.) <u>회의</u>는 <u>정말</u> 빨리 끝났다. (다른 부사를 꾸밈.) <u>과연</u>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장 전체를 꾸밈.) •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부사형(용언 어간+부사형 어미)으로도 나타남. ㉤ <u>일단</u>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부사가 부사어가 됨.) 나는 <u>집으로</u> 발길을 돌렸다. (체언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음.) 그들이 <u>깊게</u> 드리워졌다.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음.) • 부사어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지만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함. 또 두 자리 서술어 중의 일부도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함. ㉥ 나는 그를 <u>친구</u>로 여긴다. / 이 옷이 <u>너</u>에게 어울린다.

(4) 독립어

문장 성분	특성
독립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 •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음. ㉦ 그렇게는, 음, 어렵네요. / 그렇게 하지요, 뭐. •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이며, 체언의 단독 형태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남. ㉧ <u>앗</u>, 아기가 넘어졌구나. (감탄사) <u>선생님</u>, 질문이 있어요. (체언의 단독 형태) <u>민수야</u>,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체언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음.)

● 관형어와 다른 문장 성분의 관계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 모든 사람이 우리 형을 좋아한다.

주어는 '모든 사람이'이고 관형어 '모든'은 주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목적어는 '우리 형을'이고, 관형어 '우리'는 목적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서술어 중에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음.

• 세 자리 서술어

㉡ 날다, 주다, 삼다 등

• 두 자리 서술어 중 일부

㉢ 같다, 맞사다, 다르다 등

● 문장 구조의 단계적 파악

겸문장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 •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 전체 문장의 주어는 '그가 범인임이'이고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밝혀졌다'임. 명사절 '그가 범인임'에서 주어는 '그가'이고 서술어는 '범인임'임.
- 이 집은 마당이 넓다.
 - ⇒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 집은'이고 서술어는 '마당이 넓다'임. 서술절 '마당이 넓다'에서 주어는 '마당이'이고 서술어는 '넓다'임.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이고 서술어는 '명언이다'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은 '말'을 꾸며 주는 관형어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인 관형사절임.

● 관형사절과 관형절

'관형사절'은 줄여서 '관형절'이라고도 함.

4 문장의 구조(짜임)

(1) **출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

(2) **겸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음.

1) 이어진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 '-고', '-(으)나', '-지만' 등의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짐. • 나열: ㉠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 대조: ㉡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다.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유, 배경 상황, 조건·가정, 의도·목적, 양보, 중단·전환, 정도의 심화' 등의 의미를 지님. '-아서/-어서', '-(으)면' 등의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짐. • 원인·이유: ㉢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 • 배경 상황: ㉣ 집에 가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 조건·가정: ㉤ 내일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놀러 가자. • 의도·목적: ㉥ 나는 어제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 양보: ㉦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 중단·전환: ㉧ 희주는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 • 정도의 심화: ㉨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2) 안은문장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명사의 기능(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며', '-기' 등으로 실현됨. ㉠ 우리는 그가 <u>울았음을</u> 깨달았다. 주인이 <u>강아지가 돌아오기를</u> 기다린다.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나, -는, -(으)르, -던' 등으로 실현됨. ㉡ 나는 <u>형이 요리한</u>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는 <u>그가 밥을 먹는</u> 모습을 보았다. 저것은 <u>내가 신을 신발</u> 이다. 저것은 <u>내가 쓰던</u> 모자이다.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듯이' 등으로 실현됨. ㉢ 영수가 <u>돈도 없이</u> 여행을 떠났다. 사람들이 <u>지나가도록</u> 길을 비켜 주자.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 할머니께서 <u>건강이 좋으</u> 시다. 언니는 <u>마음씨가 곱</u> 다.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 인용절이 될 절에 '(이)라고, 고'를 붙여 실현됨. 직접 인용에는 '(이)라고'를, 간접 인용에는 '고'를 사용함. ㉣ 동생이 친구에게 " <u>어디로 가니?</u> "라고 물었다. (직접 인용) 동생이 친구에게 <u>어디로 가냐고</u> 물었다. (간접 인용)

5 문장의 표현

(1) **문장 종결 표현**: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줄여서 종결 표현이라고도 함.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뉨.

종결 표현	특성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 예)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의문문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판정 의문문: '예/아니오'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밖에 비가 오니? • 설명 의문문: '언제, 누구, 무엇' 등의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언제부터 비가 내렸니? •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 예)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예) 학교에 일찍 와라.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예)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출발하자.
감탄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인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예)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는 보통 동사로 한정되며,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았-/어-', '-겠-', '-더-'와 함께 쓰이지 않음.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한정되는 반면,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함.

(2)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뉨.

1) 주체 높임

- ① 화자가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지만, 주격 조사 '께서'나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함.
- ②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에도 '-(으)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함.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임.
 - 예) 선생님께서서는 책을 읽으십니다. (직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맥에 책이 많으십니다. (간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맥에 계신다. (직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수업이 있으시다. (간접 높임)

2)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됨.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3) 객체 높임: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여쭙다, 보다/뵈다’ 등의 몇몇 동사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됨.

㉮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3) 시간 표현

1) 시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발화시(화자가 말하는 시점)와 사건시(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

시제	특성
과거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에 의해 실현됨. ㉮ 우리가 그를 만났다. / 어제는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다. •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았-/-었-’과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함.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함. ㉮ 우리는 어릴 때 같은 집에 살았었다. / 어제 보니 새로 가게가 생겼더라. •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이 쓰임. 또 ‘-았-/-었-’ 다음에 ‘-던’을 덧붙여 쓸 수 있음. ㉮ 저것은 제가 (읽은/읽던/읽었던) 책입니다. 나는 그녀가 {학생이던/학생이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현재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ㄴ-’에 의해 실현되고,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실현됨. ㉮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 들판의 꽃이 정말 예쁘다. • 관형사절로 안길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으)ㄴ’이 쓰임. ㉮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우리 학교 회장인 선주가 도착했다.
미래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되며,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ㄹ 것(이)-’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 잠시 후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 관형사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임. ㉮ 저녁에 먹을 음식은 따로 덜어 두자.

● 현재 시제의 사용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함.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함.

㉮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 선어말 어미 ‘-겠-’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음.

㉮ 지금쯤 형은 부산에 도착했겠지.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2) 동작상: 완료, 진행과 같이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 어미로 표현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에 의해 표현됨.

① 진행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② 완료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냄.

예 밥을 다 먹었다/먹어 버렸다. (완료)

꽃이 피어 있다. (완료된 결과 상태의 지속)

(4) 피동과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능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주동 표현
피동사 피동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쓰임. 예 아이가 어머니 품에 <u>안겼다</u> .	사동사 사동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쓰임. 예 언니가 나에게 물을 <u>먹였다</u> .
'-아지다/ -어지다' 피동	용언 어간에 '-아지다/-어지다'가 결합함. 예 많은 음식들이 아깝게 <u>버려졌다</u> .	'-게 하다' 사동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함. 예 선생님께서 나를 집에 <u>가게</u> 하셨습니다.

(5) 부정 표현

	'안' 부정문(단순 부정, 의지 부정)	'못' 부정문(능력 부정)
의미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냄.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함. 예 기름진 음식은 <u>안</u> 먹을래.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함. 예 동생은 아파서 죽도 <u>못</u> 먹는다.
긴 부정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지 아니하다'를 사용함. 예 기름진 음식은 <u>먹지 않을</u> 래.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예 동생은 아파서 죽도 <u>먹지 못했다</u> .

(6) 인용 표현

- 1) 직접 인용: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 ")나 작은따옴표(' ')에 넣어 인용함. 직접 인용된 절에는 '(이)라고'가 쓰임.
- 2)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함. 인용절 속의 대명사,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서술어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간접 인용된 절에는 '고'가 쓰임.

● '-고 있다'의 중의적 의미
'-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예 형은 모자를 쓰고 있다.
↳ 문맥에 따라 모자를 쓰는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모자를 쓰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음.

●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직접 사동은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 사동은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임.

예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직접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간접 사동)

● 그 밖의 피동,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은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또한 사동 표현은 접미사 '-시키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예 그는 잘 훈련받은 군인이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셨다.

●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 표현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지 말다' 형태의 긴 부정 표현이 쓰임.
예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지 말자.

문제로 이해하기

[22004-0009]

01 문장의 짜임을 고려하여 (가)~(다)에서 안겨 있는 절을 모두 찾고, <보기>와 같이 그 절의 종류와 그것이 실현된 표지를 정리하여 쓰시오.

┃ 보기 ┃

-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안겨 있는 절의 종류: 관형사절 ‘산에 오르는’
 • 절이 실현된 표지: 관형사형 어미 ‘-는’

- (가)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어디로든 떠나기를 바란다.
 (나) 어제 내가 만난 친구는 키가 정말 컸다.
 (다) 잔뜩 겁을 먹은 나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했었다.

	안겨 있는 절의 종류	절이 실현된 표지
(가)		
(나)		
(다)		

[22004-0010]

02 ㉠~㉤의 문장의 짜임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문장 성분을 쓰시오.

- ㉠: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
 ㉡: 새로 사귄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동생이 쓰던 모자가 낡아서 새로 샀다.
 ㉣: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 운동장을 자주 찾았다.

- (1) ㉠, ㉡, ㉢, ㉣은 모두 ()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2) ㉡은 서술절 속에, ㉣은 관형사절 속에 ()와 서술어가 있다.
 (3) ㉠, ㉢은 ()가 생략된 관형사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어진문장이다.

03

[22004-0011]

〈보기〉의 안내문에서 해당 문법 요소가 실현된 부분을 찾아 다음의 표를 완성하시오.

┌ 보기 ─┘
남긴 반찬은 버려집니다. 소중한 음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된 부분 (예) 높이는	문법 요소의 실현 방법 (예)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 사용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담화

1 담화의 개념 및 특성

- (1) **개념**: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드물게 하나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도 성립할 수 있음.
- (2) **특성**: 발화나 문장들이 모여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통일성, 형식 면에서 응집성을 갖추어야 함.

● 담화의 통일성

통일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가리킴.

● 담화의 응집성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여러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의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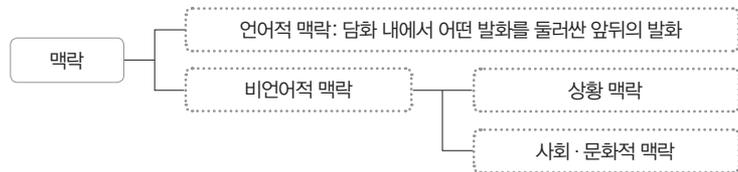
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문장의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를 직접 발화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는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함.

직접 발화의 예	간접 발화의 예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해 달라는 의도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가에 앉은 친구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의도로)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추워.

3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맥락은 일차적으로는 담화에 제시된 언어적 맥락을 가리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언어적 맥락을 가리키기도 함. 맥락은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 화자(필자), 청자(독자), 목적, 시간, 공간, 환경 등이 구성 요소임.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 국가 및 권력 기관, 제도,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이 포함됨.

국어사

1 국어사의 시대 구분

국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국어의 변화는 표기, 음운, 문법 등의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졌음. 국어사의 시대는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구분할 수 있음.

2 고대 국어

(1)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함.

1) 고유 명사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인명, 지명 등을 표기함.

예)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현대어 풀이]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한자	뜻	음	한자	뜻	음
素	흰	소	金	쇠	금
那	어찌	나	川	내	천

→ ‘素那’와 ‘金川’은 각기 다른 인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명을 한자의 음을 이용한 방식과 뜻을 이용한 방식으로 표기한 것임.

2) 이두, 구결, 향찰

- ①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한문의 어순을 조정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
- ② 구결: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절 아래 해당 부분에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를 표기한 것
- ③ 향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향가 표기에 사용됨.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여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 체계임.

(2) 어휘

중세 국어의 어형과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됨. ‘공주(公主), 생사(生死), 혜성(慧星)’ 등의 일반적인 한자어뿐 아니라 ‘왕생(往生), 자비(慈悲)와 같은 불교계 한자어도 나타남. ‘붓[筆], 먹[墨]과 같은 외래어도 나타남.

●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음.

㉮ 제쁘들시러떠디문흙노미하니라

● **성조의 표기**

소리의 고저(높낮이)를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구분하기도 했음. 이러한 소리의 고저를 ‘성조’라고 부름. 성조는 방점으로 표기되었음.

3 중세 국어

(1) 표기

1) 종성 표기: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여덟 가지(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었기 때문에 받침에도 이 자음들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이어 적기: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적음.

㉮ 누니(눈이), 소닐(손을), 노파(높아)

(2) 음운

1) 자음

① 경음(된소리) 계열이 등장함.

㉮ 썸(꿈), 쫄(딸), 썰(뿔)

② ‘ㅃ, ㅍ’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 뽏(뚝), 뽏(꿀)

③ ‘병(순경음 ㅃ), ㅍ(받침음)’ 등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이 쓰였음.

2) 모음

① 일곱 개의 단모음(ㅏ, ㅑ, ㅣ, ㅓ, ㅕ, ㅗ, ㅛ)과 다양한 이중 모음(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 등이 사용됨.

② 모음 조화: ‘ㅏ,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는 양성 모음이었고 ‘ㅑ,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는 음성 모음이었음. ‘ㅣ’는 중성 모음.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조사’나 ‘용언 어간+어미’ 결합에서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음.

㉮ 썸+을 → 썸물, 가+ㅓ+ㄴ → 가느

(3) 문법

1) 조사

①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영형태)’로 실현됨.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로 나타남.

㉮ 말썸미(말썸+이), 네(너+ㅣ), 불휘(불휘+∅)

② 목적격 조사는 ‘을/를, 을/를, ㄹ’로 실현됨.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을’, 모음으로 끝날 때는 ‘를/를’로 나타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를/를’ 대신 ‘ㄹ’이 사용되기도 함.

㉮ 바를(밥+을), 나를(나+를), 뽏들(뽏+을), 너를(너+를), 머릴(머리+ㄹ)

- ③ 관형격 조사는 ‘의/의’ 계열과 ‘스’ 계열이 존재함. 평칭의 유정 명사에는 ‘의/의’로 나타남. 높임의 유정 명사, 또는 무정 명사에는 ‘스’이 나타남.
- 예 사스밋(사슴+의), 거부비(거북+의), 부텃(부터+스), 나뭇(나모+스)
- ④ 호격 조사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음.
- 예 남금하 아라쇼셔

2) 의문문

- 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뇨’, ‘-료’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됨.
- 예 프슴 마를 니르뇨, 이 엇던 사름고
- ②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녀’, ‘-려’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됨.
- 예 저므며 늘구미 잇는녀, 이 썩리 너희 쯡가

3) 객체 높임 표현

-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는 ‘-습-’, ‘ㄷ, ㅌ, ㅈ, ㅊ’일 때는 ‘-줍-’, 모음이거나 ‘ㄴ, ㄹ’일 때는 ‘-습-’으로 실현됨. 또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습-, -줍-, -습-’은 각각 ‘-술-, -줄-, -술-’으로 실현됨.
- 예 가지 드리워 如來를 돕습고, 세존씨 안부 묻줍고, 스승니믈 보습고저

● 이인칭 주어 의문문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이인칭 주어 의문문에 ‘-나다’, ‘-르다’ 등을 사용하였음.

- 예 네 거집 그려 가던다(네가 아내를 그리워하여 갔느냐?), 네가 어느 뻘 올다(네가 어느 때 오겠느냐?)

4 근대 국어

(1) 표기

- 1) 종성 표기: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를 주로 사용하였음.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함.
- 예 밋어(믿어), 듯보다(듣보다)
- 2) 거듭 적기: 이어 적기 방식이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
- 예 떡글(먹을), 김피(깊이)

● 성조와 방점의 소멸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방점 표기가 없어짐.

● **두음 법칙의 변화**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어두의 'ㄴ'이 탈락되기 시작함.

예) 님금 > 임금

● **주격 조사 '가'의 출현 시기**

16세기 후반의 중세 국어 시기에 도 출현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근대 국어 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쓰임.

(2) 음운

1) 자음

- ① 'ㄷ'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
 - 예) 스디 > 스이 > 사이, 어버디 > 어버이
- ② 'ㅂ'계, 'ㅃ'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뀜.
 - 예) 뵈 > 뵈(뵈), 뵈 > 새(때)
- ③ 일부 단어에서 격음화(거센소리되기)나 경음화(된소리되기)가 나타남.
 - 예) 고키리 > 코키리(코끼리), 꽃 > 쑥(꽃)
- ④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 예) 티다 > 치다, 윽기디 > 윽기지

2) 모음

- ① 'ㅡ'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ㅣ'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ㅏ'로 변화함.
 - 예) 마르치다 > 마르치다 > 가르치다
- ②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ㅝ, ㅞ'가 단모음화하여 8개의 단모음 체계(ㅡ, ㅣ, ㅏ, ㅑ, ㅓ, ㅕ, ㅟ, ㅟ)가 됨. 19세기에는 'ㅝ, ㅞ'의 단모음화가 일어남.
- ③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함.
 - 예) 물 > 물, 불 > 불, 붉다 > 붉다

(3) 문법

- 1)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함.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어 현대 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됨.
 - 예) 빙가 올 거시니, 우리가 모로논가
- 2) 불규칙 활용: 'ㄷ'이 소실되면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 예) 지서 > 지어, 이서 > 이어
- 3)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이 확립됨.
 - 예) 머거 마초앗느니, 어미 병들엇거늘

문제로 이해하기

01 [22004-0012]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보기>의 ㉠~㉢이 가리키는 장소를 밝히시오.**

보기

학생 1: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
 학생 2: 음, ㉠거기 말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는 어때?
 학생 1: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작년에 같이 갔던 놀이동산은 어때?
 학생 2: 그래, ㉣거기가 좋겠다.

㉠	㉡	㉢	㉣

02 [22004-0013] **<보기>는 ‘막숨’(마음)이 변천해 온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보기

막숨 $\xrightarrow{\text{㉠}}$ 막음 $\xrightarrow{\text{㉡}}$ 막음 $\xrightarrow{\text{㉢}}$ 마음

03 [22004-0014] **<보기>의 ㉠, ㉡에 사용된 의문형 어미를 쓰시오.**

보기

너는 高麗人 사르미어시니 쯔 엇디 漢語 닐오미 잘 ㉠흐느뇨 (중략) 네 뉘손디 글 ㉡빅혼다
 [현대어 풀이] 너는 고려의 사람인데 또 어찌 중국 말을 잘하는가? (중략) 너는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단어	의문형 어미
㉠	
㉡	

학습의 길잡이

매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알고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양과 질의 변화

매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크게 늘어나 정보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함. 이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정보의 유통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정보의 현장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현장감이라고 함. 통상적으로 특정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가 다양하게 사용될 때 정보의 현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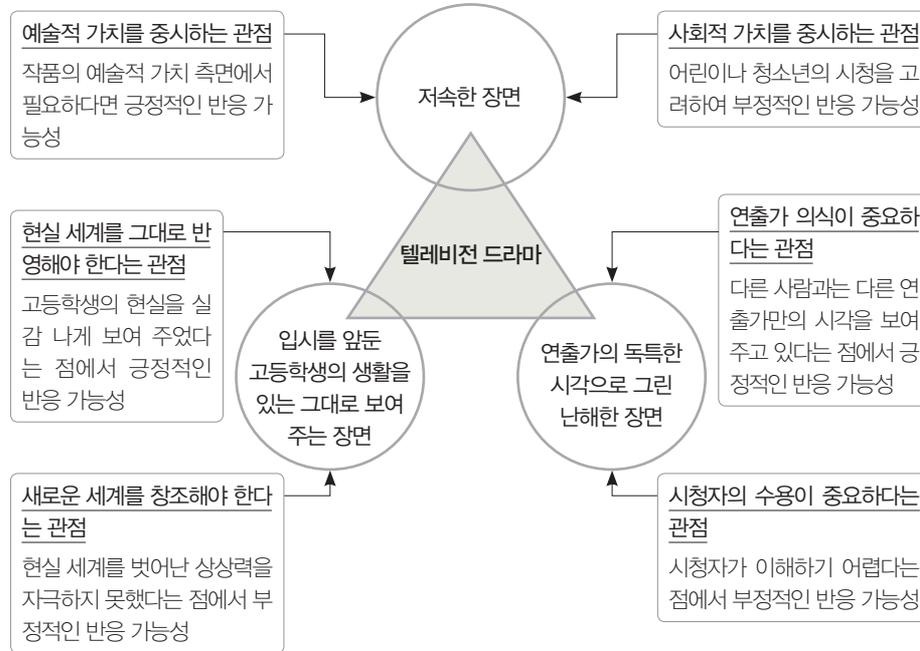
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에 변화가 생김.
-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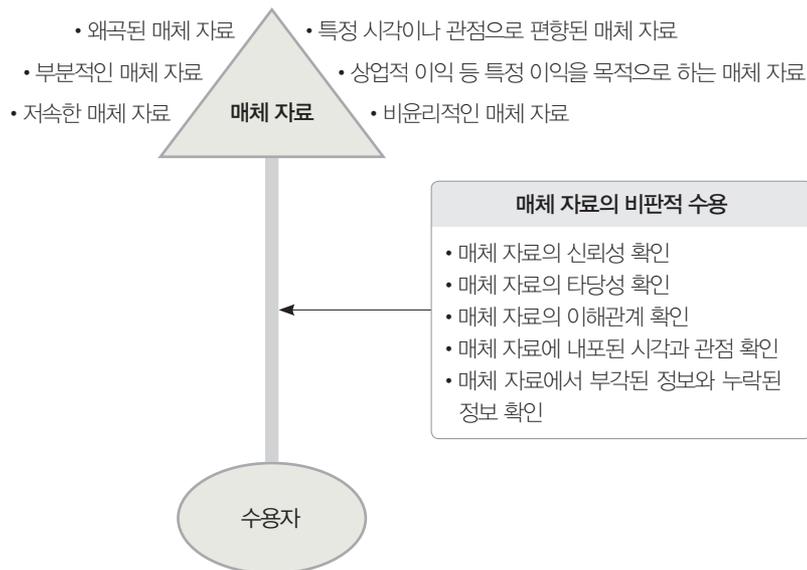
	책	인터넷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문자, 사진, 그림, 도표 등	음성, 음향, 문자, 사진, 그림, 영상 등
정보의 양과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비해 적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함. • 일반적으로 인터넷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정보의 질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책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용이함. • 일반적으로 책에 비해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정보 제공자가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짐.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비해 정보의 가공과 유통에 많은 시간이 들어 정보 제공 속도가 느림. • 일반적으로 종이 등의 물리적 공간에 보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책에 비해 정보 제공 속도가 빠름. • 디지털 저장 장치 등의 저장 기기에 보존함.
정보 제공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비해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폐쇄성을 띰.	일반적으로 책에 비해 정보 제공자가 다양하여 개방성을 띰.

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 동일한 매체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동일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서도 관점과 가치가 다를 수 있음.



- 매체 자료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함.



●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 칼럼(column)

신문, 잡지 따위의 특별 기고, 또는 그 기고란, 주로 시사, 사회, 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함.

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 소통 목적을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

소통 목적	방법	매체 활용의 예
정보 전달과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제시 •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신문의 뉴스나 인터넷 방송 등으로 보도할 때 •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칼럼이나 유시시(UCC) 등으로 밝힐 때
심미적 정서 표현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제시	화목한 가정의 모습,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 뛰어난 자연 경관 등을 영화, 음악, 사진 등으로 나타낼 때
사회적 상호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인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내용 제시 • 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위한 내용 제시 	친한 사람 혹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 전화, 모바일 메신저, 누리소통망(SNS), 전자 우편 등을 사용할 때

- 수용자를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

고려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의 성별이나 나이는 어떠한가 • 수용자가 다수에 속하는가 혹은 소수에 속하는가 •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 수용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

매체의 언어적 특성 고려	매체의 파급력 고려
<p>각 매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양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p> <p>예 전통적 방식으로 볼 때, 신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만 사용하고, 라디오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만 사용함.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와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 모두 사용 가능함.</p>	<p>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파급력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p> <p>예 신문에 비해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큼.</p>

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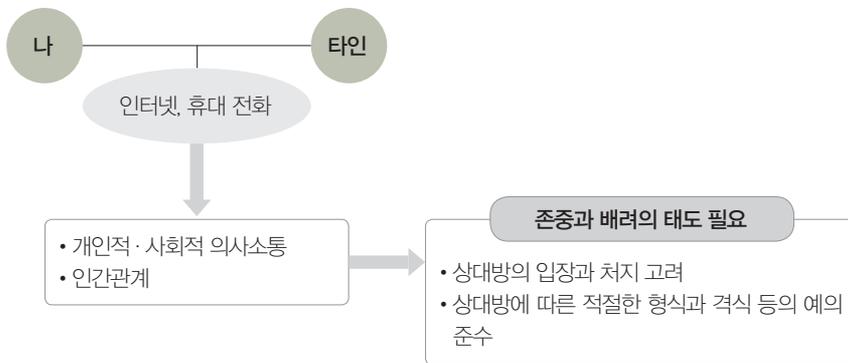
매체 자료	정보 표현에 사용되는 언어	효과
인쇄 매체	문자, 이미지 등의 매체 언어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거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영상 매체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의 매체 언어	
정보 통신 매체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의 매체 언어	

•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

매체 자료	정보 표현에 사용되는 언어	효과
소설 (인쇄 매체)	문자(서술자의 서술 등)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거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각 매체 특유의 심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음.
영화 (영상 매체)	문자, 소리, 영상 등(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카메라 움직임과 각도, 화면 편집 등)	
블로그 (정보 통신 매체)	문자, 사진, 소리, 영상 등(글귀, 배경 그림과 사진, 배경 음악, 영상, 하이퍼링크 기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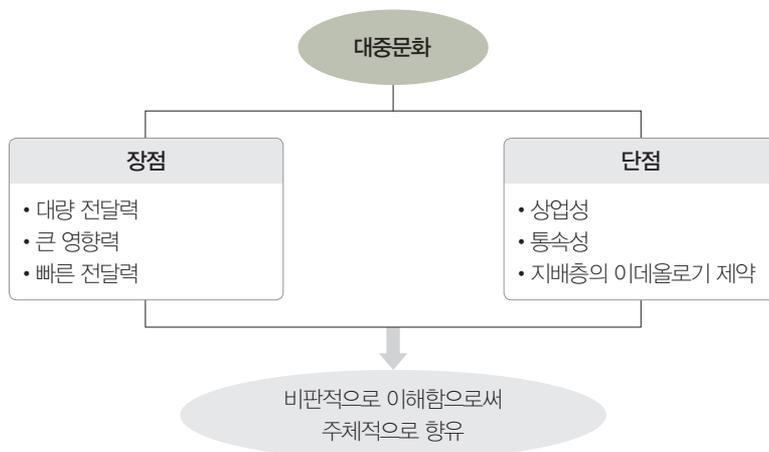
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매체 언어는 개인적·사회적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길러야 함.



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 대중 매체로 인해 형성되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주체적으로 향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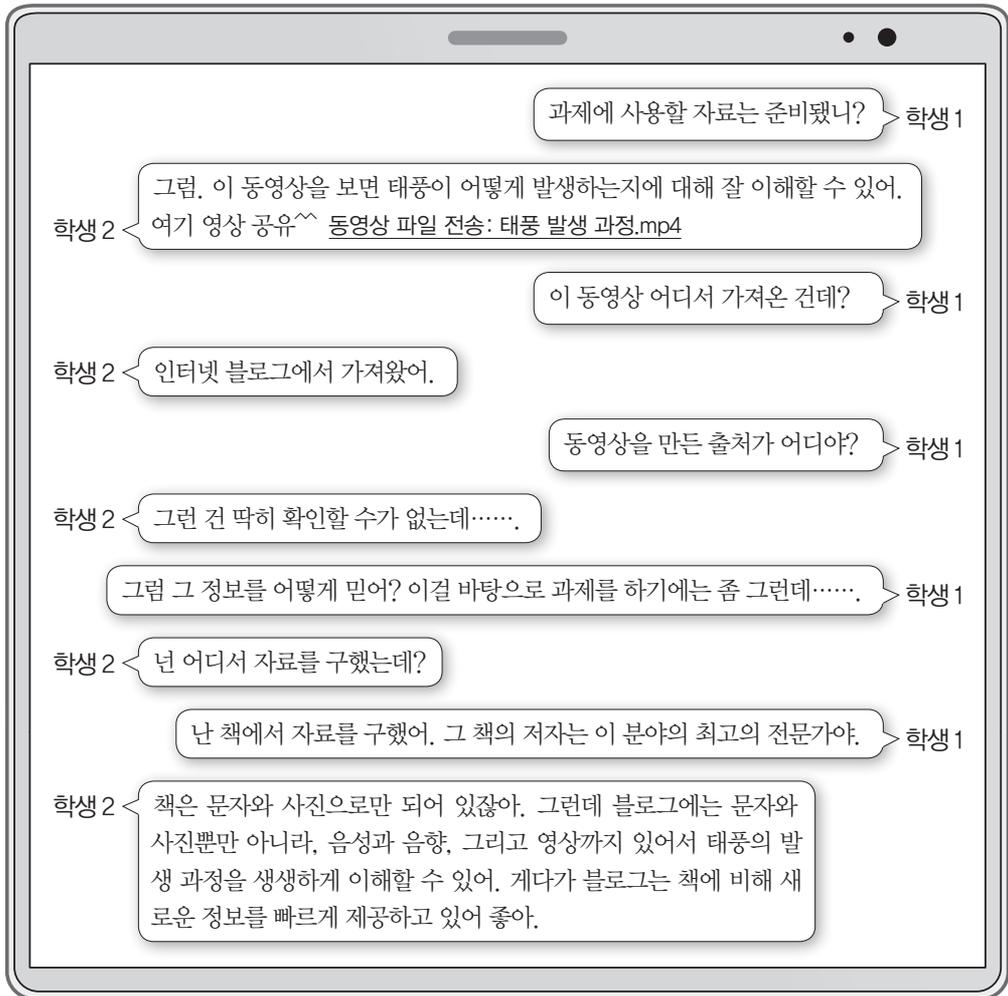
◉ 통속성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성질

문제로 이해하기

[22004-0015]

01 다음은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다. 이를 매체 양식의 구성과 유통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학생 1’은 정보의 출처를 문제 삼아 인터넷 블로그 정보의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학생 2’는 인터넷 블로그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	
㉡	

02

[22004-0016]

다음은 영화 감상 후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매체 언어의 가치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영화 감상 후기를 올려 주세요>

- 나도이제벚꽃: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책으로 먼저 읽었어요. 그런데 영화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소설에서 벚꽃이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이처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다니……. 완전히 감동이에요. 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카메라 움직임과 각도 등 모든 것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나도 이제부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의 팬이 될래요.~

| 보기 |

‘나도이제벚꽃’은 소설에서 제시된 장면이 영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감동하고 있다. 즉, 소설과는 다른, 영상으로 표현된 언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다. 이는 영상 매체 언어를 활용한 영화에서 (㉠) 가치를 느꼈다고 할 수 있다.

[22004-0017]

03 <보기 1>은 캠페인과 관련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기 2>의 ㉠와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1】

수영: ‘학생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자’라는 캠페인에 사용할 유시시(UCC)를 내가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해 왔니?
 인수: 그럼, 내가 누군데. 내가 만들어 온 것을 한번 볼래?
 기희: (수영과 함께 유시시(UCC)를 한동안 본다.) 잘 만들었네. 내용도 참신하고, 구성도 좋고, 전체 시간도 적절하네. 아주 훌륭해. 내가 그동안 인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본 것 같네.
 인수: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지 한번 손대면 깔끔하게 처리하지.
 기희: 수영아, 너는 어떤 거 같니?
 수영: 기희 말처럼 나도 전체적으로는 좋아. 그런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네.
 기희: 뭐가 걸리는데?
 수영: 유시시(UCC)의 내레이션이 반말에다가 비속어를 남발하고 있어 듣기에 불편해.
 인수: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는 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수영: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작할 유시시(UCC)는 캠페인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 게다가 주제가 ‘학생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자’인데,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인수: 음,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 볼게. 그때 다시 의견을 줘.

【보기 2】

<보기 1>에서 ‘수영’은 내레이션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매체 언어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에 대한 (㉠)와/과 (㉡)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04 [22004-0018]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은주'가 간접 광고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쓰시오.

은주: 어제 △△ 드라마 봤니? 이 드라마가 요즘 장안의 화제야.

선규: 당연히 봤지. 그런데 주인공이 ○○ 치킨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나도 다음번에는 ○○ 치킨을 사 먹어야겠어. 화면을 캡처해 놨는데, 너도 한번 볼래?



은주: 음. 이 드라마는 여러 면에서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바로 이런 간접 광고가 문제야.

선규: 간접 광고가 뭔데?

은주: 프로그램 중에 특정 상품이나 기업의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해 광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콘텐츠 안에서 행하는 이런 홍보를 간접 광고라고 해. 여기 캡처한 화면을 보면 치킨을 먹는 주인공 뒤로 '○○ 치킨'이라는 상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잖아.

선규: 아니, 어차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하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은주: 내가 말한 것은 직접 광고이고. 직접 광고는 시청자가 광고 방송임을 인식하는 상황이지 만, 간접 광고는 그렇지 못해. 특히 드라마에서의 간접 광고는 상당히 교묘하여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

선규: 그러면 법으로 규제하면 되잖아.

은주: 현행법에서 간접 광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최근에는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프로그램 제작사의 제작비 충당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일 거야. 결국은 지나친 상업적 목적으로 인해 간접 광고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학습의 길잡이

언어와 매체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우리 사회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바람직한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어 생활 및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매체 언어생활 성찰의 필요성

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은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의 파급력이 상당히 큼.

● 저작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1 자신의 국어 생활 및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
-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해야 함.

뉴 미디어를 통한 언어생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재미나 흥미를 위해 매체를 활용함. •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이나 저주 등의 폭력적인 표현, 차별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기도 함. • 은어나 언어 규범을 파괴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함. •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함.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삼가야 함. • 매체 언어생활도 국어 생활의 일환인 만큼 언어 규범을 잘 지켜야 함. •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왜곡하여 표현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 	

2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현대 사회의 매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매체를 통한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음. •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짐. ➔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를 활용한 정보와 지식의 수용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매체 언어 활동도 언어생활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 ➔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

문제로 이해하기

[01~02] (가)는 누리 소통망[SNS]의 단체 대화 내용이고, (나)는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리 소통망[SNS]

⚙

학생 1 ▶ 안녕? 다들 들어왔네. 그럼, 다음 시간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지 각자 의견을 말해 줘.

학생 2 ▶ 바른 언어 사용이 주제니까 공익 광고 느낌이 나는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떨까?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하여 멋진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3 ▶ 좋은 생각이긴 한데, 준비할 시간이 짧아서 힘들 것 같아. 영상 편집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정도 기술도 필요할 테고 말야.

학생 2 ▶ 그렇겠네. ㅏㅏ 그럼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 뉴스는 어떨까?

학생 4 ▶ 카드 뉴스? 그게 뭐야?

학생 2 ▶ 이미지와 짧은 글을 활용하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건데... 참고할 만한 자료 링크 걸어 둘게.

<http://www.0000.kr>

학생 1 ▶ 한눈에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생각 같아. ㅎㅎ

학생 3 ▶ 나도 찬성. 💡

학생 4 ▶ 방금 자료 확인했는데... 카드 뉴스로 하면 동영상보다 용량도 작아서 SNS로 공유하기에도 좋겠어.

학생 1 ▶ 자, 그럼 결정된 거다.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 3 ▶ 먼저 주제 선정의 배경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요즘 친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실제 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

학생 1 ▶ 맞아. 그중에는 폭력적인 말들도 많이 섞여 있더라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자.

학생 4 ▶ 실제 생활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면 결국 온라인상에서도 언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자 이거지?

학생 2 ▶ 좋은데? 그러면 내가 제안했으니까 내가 초안을 만들어 볼게.

학생 4 ▶ 감동~ ㅏㅏ

학생 1 ▶ 고마워~ 독자들이 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는 거 알지?

학생 2 ▶ ㅇㅋ 알았어.

+

전송

(나) 카드 뉴스

#1	#2	#3
<p>(단위: %)</p> <p>(자료: ○○○ 교육청, 2021)</p>		
<p>온라인상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p>	<p>온라인상의 언어폭력은 실제 언어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p>	<p>바른 언어 사용은 상대방만 아니라 자신도 밝게 만들어 줍니다.</p>

[22004-0019]

01 (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소통할 때 유의할 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 ㉠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한다.
- ㉡ 정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유포하지 않는다.
- ㉢ 중요한 정보는 같은 내용의 글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올린다.
- ㉣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 ㉤ 줄임말이나 은어, 한글 파괴형 표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02 [22004-0020] (가), (나)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가)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매체 자료로 동영상 대신 카드 뉴스를 선택한 이유를 쓰시오.
(단, 동영상과 비교되는 카드 뉴스의 특징을 중심으로 쓸 것.)

(2) <보기 1>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에 새로운 카드를 추가하려고 한다. ㉠에 들어갈 적절한 문구를 <보기 2>에서 고르시오.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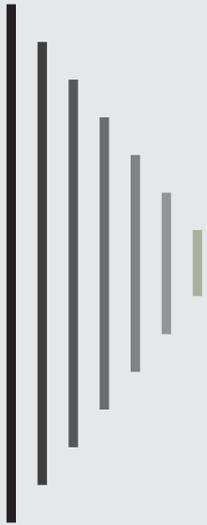
학생 1 <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잖아. 이 내용을 추가하되, 도치법을 사용해서 강조했으면 좋겠어.

[보기 2]

ㄱ.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부정적 언어 사용도 엄연히 폭력이라는 사실.
 ㄴ. 언어폭력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프게 합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
 ㄷ. 그런데 아십니까? 나의 폭력적 언어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추가할 카드 뉴스>

(㉠)



2부



교과서
적용
학습

[22004-0021]

01

〈보기〉를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의 음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분절 음운에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라는 세 부류의 소리가 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는다. 또한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어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다. 반면 모음은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으며 홀로 음절을 이루어 발음할 수 있다. 반모음은 자음처럼 홀로 쓰일 수 없어서 항상 모음과 결합하여 쓰인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 모음이 된다.

다음 제시된 단어에 쓰인 자음, 모음, 반모음에 대해 탐구해 보자.

사과, 연꽃

- ① ‘연꽃’의 ‘ㄷ’은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군.
- ② ‘사과’보다는 ‘연꽃’이 더 많은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군.
- ③ ‘사과’의 ‘ㄴ’과 ‘연꽃’의 ‘ㄷ’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하여 발음되는군.
- ④ ‘사과’의 ‘ㅅ’과 ‘ㄱ’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이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는다.
- ⑤ ‘연꽃’과 달리 ‘사과’를 발음할 때는 마지막 음운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22004-0022]

0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오늘은 음절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음절은 홀로 발음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음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지요. 초성이나 중성이 음절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국어에서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각각 한 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초성이나 종성에 자음이 두 개 오는 음절 유형은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

- ① ‘여자’를 발음할 때, 자음이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② ‘노인’을 발음할 때,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③ ‘닭과’를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④ ‘삶과’를 발음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깎다’를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3

[22004-0023]

〈보기〉에 제시된 (가), (나)의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 음절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ㅜ	ㅡ	ㅗ
중모음	ㅔ	ㅛ	ㅝ	ㅜ
저모음	ㅙ		ㅟ	

(가)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고,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에 놓이고 입술이 둥글게 모아진다.

(나)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코로 공기를 내보내고,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가)	(나)
①	파	드
②	주	누
③	구	아
④	두	무
⑤	코	미

[22004-0024]

04 <보기>를 바탕으로 소리의 길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은 차이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다.
- ㉡ 장단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현대 국어의 유일한 비분절 음운이다.
- ㉢ 현대 국어의 특정 지역 방언에서는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 원칙적으로 국어의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된다. 따라서 원래는 장음이라고 하더라도 복합어를 이루면서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그 길이가 짧아진다.
- ㉤ 발음 실태 조사 결과,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 ① ㉠으로 보아 ‘병(病)[병:]’과 ‘병(甁)[병]’은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른 차이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변별되는 것이구나.
- ② ㉡으로 보아 ‘말[言][말:]’과 ‘말[馬][말]’을 발음할 때 소리의 길이를 달리하는 것을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고 있겠구나.
- ③ ㉢으로 보아 ‘밤[粟][밤:]’과 ‘밤[夜][밤]’의 의미를 소리의 길이를 통해 변별하지 않는 방언도 있을 수 있겠구나.
- ④ ㉣으로 보아 ‘눈보라’의 ‘눈[눈:]’도 ‘첫눈’에서는 짧게 발음되겠구나.
- ⑤ ㉤으로 보아 ‘소식(消息)’을 [소식]이 아닌 [소:식]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겠구나.

[22004-0025]

05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쌍을 찾아보면 됩니다.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또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의 개수가 같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물’과 ‘불’은 최소 대립쌍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입니다. 최소 대립쌍의 예를 더 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학생:

㉠

- ① ‘공’과 ‘곰’은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② ‘산’과 ‘선’은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③ ‘고을’과 ‘노을’은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④ ‘머리’와 ‘허리’는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⑤ ‘소리’와 ‘오리’는 최소 대립쌍입니다.

[22004-0026]

06 <보기>의 ㉠~㉣의 발음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식당에서[식당에서] ㉡ 남은[나른] 음식은 돼지 밥으로 썼다.
- 그는 ㉢ 첫아이[처다이] 앞에서 ㉣ 굳이[구지] 나를 ㉤ 높이어[노피어/노피어] 주었다.

- ① ㉠의 발음을 보니 받침 ‘ㅇ’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도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 가지 않는군.
- ②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연음되는군.
- ③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에는 연음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군.
- ④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만 일어나는군.
- ⑤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결합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되는군.

[22004-0027]

0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홀이불[흔니불]
- ㉡ 닥대[담:따]
- ㉢ 달히대[다치대]

- ① 음운 변동 결과 ㉠, ㉡, ㉢은 모두 음운의 개수 변화가 일어난다.
- ② ㉠에서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고, ㉢에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③ ㉠에서는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고, ㉡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 ④ ㉡에서 일어나는 교체는 용언의 어간이 특정한 음운으로 끝나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 ⑤ ㉢에서는 교체가 일어난 후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다.

[22004-0028]

0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의 탈락은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동일 모음 탈락, ‘-’ 탈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해서 각 현상의 사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 자음군 단순화: 받침 자리에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현상
- ‘ㄹ’ 탈락: ‘ㄹ’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ㄴ, ㅅ’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현상
- ‘ㅎ’ 탈락: ‘ㅎ’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 동일 모음 탈락: ‘ㅏ/ㅑ’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ㅑ’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 ‘-’ 탈락: ‘-’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하는 현상

학생:

㉠

- ① 자음군 단순화의 사례로는 ‘녘’을 들 수 있습니다.
- ② ‘ㄹ’ 탈락의 사례로는 ‘(문어가 바다에) 사니’를 들 수 있습니다.
- ③ ‘ㅎ’ 탈락의 사례로는 ‘(물이) 끓는’을 들 수 있습니다.
- ④ 동일 모음 탈락의 사례로는 ‘(거리에) 서서’를 들 수 있습니다.
- ⑤ ‘-’ 탈락의 사례로는 ‘(구슬을) 모아라’를 들 수 있습니다.

[22004-0029]

03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순행적 유음화는 ‘ㄹ’에 후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순행적 유음화는 합성어와 파생어에도 적용되지요. 한편 역행적 유음화는 ‘ㄹ’에 선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역행적 유음화는 주로 한자어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는 모두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학습해 볼까요?

<자료>

- (가) 물놀이[물로리], 권력[궐력]
 (나) 앉-+-는 → [알튼], 훑-+-는 → [훑튼]
 (다) 올-+-는 → [우:는], 알-+-니 → [아:니]
 (라) 버들+나무 → [버드나무], 하늘+-님 → [하느님]
 (마) 공권력(公權力) → [공핀넉], 입원료(入院料) → [이뵤뇨]

- ① (가)의 ‘물놀이’는 순행적 유음화, ‘권력’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 ② (나)를 통해 용언의 어간이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으로 끝날 때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③ (다)를 통해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라)를 통해 고유어의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마)를 통해 한자어에서 ‘ㄴ’의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004-0030]

04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가) 살피-+-어 → 살피[살피], 이기-+-어라 → 이겨라[이겨라]
 (나) 져[저], 찌서[찌서], 다쳐[다치]
 (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라) 시계[시계/시계], 혜택[혜:택/혜:택]
 (마) 바꾸-+-어 → 바꿔[바꿔], 보-+-아서 → 봐서[봐:서]

- ① (가)를 보니,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② (나)를 보니, ‘스, 쩌, 츠’ 뒤에서는 반모음 ‘j’가 발음되지 않는구나.
 ③ (다)를 보니,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④ (라)를 보니, ‘계’와 ‘혜’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는구나.
 ⑤ (마)를 보니, 자음과 단모음 ‘ㅏ/ㅑ’ 사이에 반모음 ‘w’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22004-0031]

05 <보기>를 바탕으로 ‘ㅎ’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가) 놓고[노코], 종던[조:턴], 넓히다[넌피다], 앉히다[안치다]
 (나)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다) 놓는[논논], 쌓네[싼네]
 (라) 많소[만:쏘], 낱습니다[나씀니다]
 (마) 쌓이다[싸이다], 닳아[다라]

- ① (가): ‘ㅎ’의 앞이나 뒤에 ‘ㄱ, ㄷ, ㅂ, 스’이 놓이면 두 음운이 축약되어 각각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된다.
 ② (나): ‘츠’, ‘ㅌ’ 뒤의 ‘ㅎ’은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③ (다): ‘ㄴ’ 앞에 놓인 ‘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④ (라): ‘ㅎ’ 뒤에 ‘ㅅ’이 올 때에는 ‘ㅎ’은 발음되지 않고, ‘ㅅ’이 ‘ㅆ’으로 발음된다.
 ⑤ (마):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놓이면 ‘ㅎ’은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22004-0032]

06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에서 여러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학생:

㉠

- ① ‘옴네[음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② ‘똥다[똥타]’는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③ ‘색연필[생년필]’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④ ‘따뜻하다[따뜨타다]’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⑤ ‘급행열차[그굉녘차]’는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22004-0033]

01

〈보기〉의 ‘제시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시어] 돕다(도와), 벗다(벗어), 잡다(잡아),
흐르다(흘러서), 이르다(이르러서), 일하다(일하여)

[분류 과정]

활용할 때 어간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인가? ⇨ ㉠
 ↓ 아니요 예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인가? ⇨
 ↓ 아니요 예

㉡

	㉠	㉡
①	돕다, 흐르다	벗다, 잡다
②	돕다, 흐르다	이르다, 일하다
③	벗다, 잡다	돕다, 흐르다
④	벗다, 잡다	이르다, 일하다
⑤	이르다, 일하다	벗다, 잡다

[22004-0034]

02

〈보기〉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어 중에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 ‘명사+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등과 같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도 있지만,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 ‘용언 어간+명사’, ㉤ ‘용언 어간+용언 어간’, ‘비자립적 어근+명사’ 등과 같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도 있다.

- ① ㉠: 논밭, 보슬비
- ② ㉡: 젊은이, 건널목
- ③ ㉢: 들어가다, 찾아보다
- ④ ㉣: 꺾쇠, 덮밥
- ⑤ ㉤: 굽주리다, 뛰놀다

[22004-0035]

03 <보기>의 ㉠~㉤을 통해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누나가 교과서를) ㉠ 들고 가다
- (선생님에게 정답을) ㉡ 되묻다
- (그가 학문의 길을) ㉢ 걸어가다
- (오늘은 날씨가) ㉣ 춥지 않다
- (오빠가 학교에) ㉤ 가 보다

- ①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고'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② ㉡: 두 개의 동사를 어미의 결합 없이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③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어'로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④ ㉣: 두 개의 형용사를 어미 '-지'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⑤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아'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22004-0036]

0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사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주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조사에는 격 조사(주격·목적격·보격·서술격·관형격·부사격·호격)와 보조사 등이 있는데, 문장에서 이들 조사는 둘 이상이 연속해 쓰이기도 한다.

- 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 보조사, 보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② 우리 오빠에게도 꿈이 있었다. → 부사격 조사, 보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③ 인간이 빵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 보조사, 부사격 조사, 보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④ 우리는 해외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⑤ 그는 내 걱정을 기우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22004-0037]

05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탐구 주제] 다음 밑줄 친 말을 탐구하여 공통점을 찾아보자.

- 외부인에 의해 운동장의 잔디가 짓밟히고 있었다.
- 우리는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았다.

[탐구 과정] 형태소 분석을 하면 ‘짓밟히고’는 ‘짓-+밟-+-히-+-고’로, ‘휘날리는’은 ‘휘-+날-+-리-+-는’으로 분석된다.

[탐구 결과]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짓밟히고’와 ‘휘날리는’은 공통적으로

[A]

- ①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②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③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④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⑤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말이다.

[22004-0038]

06 <보기>를 참고할 때, '준말'의 표기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40항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기준으로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를 들 수 있다.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 [ㄷ], [비]이면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익숙하지 못하다'가 줄어든 '익숙지 못하다'가 그 예이다.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 [ㄷ], [비]가 아니면 'ㅎ'만 남는다. 'ㅎ'이 남는 경우에는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다. '추진하도록'이 줄어든 '추진토록', '청하건대'가 줄어든 '청컨대'가 그 예이다.

한편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줄어든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부사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여튼'은 부사이므로 '하영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면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은 부사가 아니므로 '이러튼', '저러튼'으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본말	준말	판단
생각하건대	a. 생각건대 b. 생각컨대	b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생각하건대'에서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이기 때문이다. ①
실천하도록	a. 실천도록 b. 실천토록	b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실천하도록'의 '하'에서 'ㅎ'만 남아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뀌기 때문이다. ②
어떠하다	a. 어떻다 b. 어떠타	b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어떠타'가 어원적으로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왔지만 부사이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③
아무러하든	a. 아무든 b. 아무튼	a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아무러하든'의 '하'에서 'ㅎ'만 남아 그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④
그러하든	a. 그렇든 b. 그러튼	a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그렇든'은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부사이기 때문이다. ⑤

[22004-0039]

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어떤 단위를 층위적으로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둘로 쪼개어져 나오는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가령 ‘통닭구이’는 오른쪽과 같이 층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통닭구이’는 ‘통닭’과 ‘구이’로 먼저 분석된다. 그리고 ‘통닭’은 다시 접사 ‘통-’과 어근 ‘닭’으로 분석되고, ‘구이’는 다시 어근 ‘굽-’과 접사 ‘-이’로 분석된다. 즉 ‘통닭구이’는 ㉠ ‘접사+어근+어근+접사’로 분석되는 단어이며, [[통-+닭]+[굽-+-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닭구이			
통닭		구이	
통-	닭	굽-	-이

- ① 나들이웃 ② 미달이문 ③ 살얼음판
 ④ 닭고기덮밥 ⑤ 찻고추볶음

[22004-0040]

02 <보기>에서 ‘선생님’의 물음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입니다. 가령 ‘그는 예쁜 옷을 샀다.’에서 ‘예쁜’은 ‘옷’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우리는 첫째 주 월요일에 만났다.’에서 ‘첫째’는 ‘주’를 꾸며 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럼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판단해 볼까요?

- ㄱ. 전 세계의 학자가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ㄴ. 그 사람이 나가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다.
 ㄷ. 웬 까닭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
 ㄹ. 그는 빛바랜 모자를 버리고 새 모자를 썼다.
 ㅁ. 당시 온 식구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 ① ㄱ에서 ‘전’과 ‘온갖’은 모두 관형사입니다.
 ② ㄴ에서 ‘그’와 ‘두’는 모두 관형사입니다.
 ③ ㄷ에서 ‘웬’과 ‘다른’은 모두 형용사입니다.
 ④ ㄹ에서 ‘빛바랜’은 형용사이고, ‘새’는 관형사입니다.
 ⑤ ㅁ에서 ‘온’은 관형사이고, ‘같은’은 형용사입니다.

[22004-0044]

06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지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종속 합성어와 대등 합성어로 구분할 수도 있다. 종속 합성어는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대등 합성어는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이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구분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종속 합성어	㉠	
대등 합성어		㉡

	㉠	㉡
①	<u>어느새</u> 옷이 젖다.	<u>눈비</u> 가 내리다.
②	<u>어느새</u> 옷이 젖다.	사람들이 <u>오</u> 가다.
③	<u>산들바람</u> 이 불다.	<u>눈비</u> 가 내리다.
④	<u>산들바람</u> 이 불다.	사람들이 <u>오</u> 가다.
⑤	<u>눈비</u> 가 내리다.	사람들이 <u>오</u> 가다.

[22004-0045]

01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장 성분이란 해당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말한다.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단어, 구, 절 등 다양하며, 조사가 결합되기도 한다.

㉠ 선생님, 저 지금 집에 가도 돼요?㉡ A: 요즘에는 무슨 책 읽어?B: 요즘 읽는 책은 소설이야.

- ① ㉠의 ‘선생님’은 단어인 ‘선생님’이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② ㉠의 ‘지금’은 단어인 ‘지금’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③ ㉡의 ‘무슨 책’은 구인 ‘무슨 책’이 조사와 결합 없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④ ㉡의 ‘요즘 읽는’은 절인 ‘요즘 읽는’이 관형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⑤ ㉡의 ‘소설이야’는 단어인 ‘소설’이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22004-0046]

02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술어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거나,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날이 저물어 간다.’에서 ‘저물어 간다’처럼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때 가장 앞에 있는 용언을 본용언, 뒤따르는 용언들을 보조 용언이라 한다. 가장 앞의 용언이 문장의 의미 구성에 핵심적이고 뒤따르는 용언들은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매개하는 어미에는 ‘-아/어, -게, -지, -고’ 등이 있다.

㉠ 자전거가 완전히 망가졌네.㉡ 정원의 장미꽃이 아름다웠다.㉢ 언니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다.㉣ 그 아이는 밥을 통 먹지 않았다.㉤ 여기서 라디오 방송이라도 듣고 있어 봐.

- ① ㉠의 ‘망가졌네’는 동사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② ㉡의 ‘아름다웠다’는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③ ㉢의 ‘걱정이다’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④ ㉣의 ‘먹지 않았다’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않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서술어이다.
- ⑤ ㉤의 ‘듣고 있어 봐’는 본용언 ‘듣다’와 보조 용언 ‘있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서술어에 본용언 ‘보다’가 연결된 두 개의 서술어이다.

[22004-0047]

03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쓰인 부사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서술어나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 다양한 대상을 꾸미지만, 그 대상은 어떤 성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사어를 ㉠ ‘성분 부사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부사어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데, 이러한 부사어를 ㉡ ‘문장(절)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또 부사어 중에는 ㉢ 그 부사어가 쓰인 문장과 앞 문장을 의미적 관계에 따라 접속해 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 주는 부사어도 있다.

| 보기 2 |

만약 이 향아리가 정말 진품이라면 국보로도 지정될 만합니다. 빛깔 및 형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버텨내면서도 크게 손상된 곳도 없이 원형을 거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전문가들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불행히도 이것이 참 잘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① ‘정말’과 ‘거의’는 서술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아주’는 관형어를, ‘참’은 부사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③ ‘크게’와 ‘오늘’은 뒤따르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만약’과 ‘불행히도’는 뒤따르는 절 전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및’은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22004-0048]

04 <보기>에 제시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장은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단위이다.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문장 내에 누락된 경우,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등의 문제를 가진 문장은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문장 표현을 써야 한다.

- ① ㉠: 별일 없을 때는 음악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내 취미야.
- ② ㉡: 내가 종업원에게 주문하고 나자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다.
- ③ ㉢: 내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 ④ ㉣: 그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 ⑤ ㉤: 아내는 남편에게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그에 접시에 고기를 더 담아 주었다.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1)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1)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 ‘잡다’가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잡는 행위를 하는 주체와 잡는 행위의 대상이 갖추어져야 한다. 곧 행위의 주체와 대상은 ‘잡다’가 의미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요소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문장에서 ‘고양이가’, ‘쥐를’ 등과 같이 구체적인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와 같다.

(2) 별빛이 반짝이다.

(3) 햇살이 밝다.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1)을 타동사문, (2)를 자동사문, (3)을 형용사문이라 부를 수 있다. (1)의 타동사문은 두 자리 서술어, (2)와 (3)의 자동사문과 형용사문은 한 자리 서술어이다. 한 자리 서술어란 필수적 문장 성분 하나를 가진다는 뜻이고, 두 자리 서술어란 필수적 문장 성분 둘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 필수적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4) 삼촌은 조카에게 용돈을 주었다.

(5) 그녀는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6) 그는 군인이 아니다.

(4)의 ‘조카에게’, (5)의 ‘며느리로’, (6)의 ‘군인이’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특히, 학교 문법에서는 (6)의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필수 성분과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다.’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 ‘되다’ 바로 앞에 오는 필수 성분을 보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가 그치다.’의 서술어 ‘그치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다.’의 서술어 ‘그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있다.

05

[22004-004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구두가 굉장히 반짝이네.
- ㉡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
- ㉢ 그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아니고 4번이다.
- ㉣ 마당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우리 형이다.
- ㉤ 우리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 ① ㉠의 ‘반짝이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굉장히’는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 ‘밝았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초저녁부터’와 ‘휘영청’은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의 ‘아니고’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2번이’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 ④ ㉣의 ‘주는’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마당에서’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 ⑤ ㉤의 ‘삼을’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전화위복의 계기로’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06

[22004-0050]

㉡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계가 열두 시에 멈추다.
그는 기계를 잠시 멈추었다.
- ②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
- ③ 조직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노인은 상반신을 움직여 겨우 일어났다.
- ④ 할머니의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다.
소년은 우산살을 휘어 고리를 만들었다.
- ⑤ 정책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쳤다.
나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22004-0051]

01

〈보기〉를 읽고 각 문장의 짜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 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 한다. 그런데 겹문장에는 ㉡ 두 개의 절이 이어진 문장도 있고 ㉢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도 있다.

- ① ‘그 아기가 이제야 잔다.’는 ㉠에 해당한다.
- ② ‘철수는 어제 영수와 서로 싸웠다.’는 ㉡에 해당한다.
- ③ ‘백두산은 장엄하고 금강산은 아름답다.’는 ㉡에 해당한다.
- ④ ‘나는 가을이 왔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는 ㉢에 해당한다.
- ⑤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에 해당한다.

[22004-0052]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우리는 인정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님에 가까스로 마음을 놓았다.
 ㉢ 아이들이 어머니가 만드신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 ① ㉠의 ‘할아버지를’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다.
- ② ㉡의 ‘그가’와 ‘범인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다.
- ③ ㉢의 ‘어머니가 만드신’과 ‘맛있게’는 체언을 수식한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고, ㉢에는 안은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03

[22004-0053]

〈보기〉의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철수가 집을 나섰다, 학교에 가려고.
- ㉡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려고 집을 나서셨다.
철수가 학교에 *갔으려고 / *가겠으려고 버스를 탔다.
- ㉢ 열심히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철수는 훌륭한 학생이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 ㉣ 철수야, 학교에 공부하려고 가니? / *가라. / *가자.
철수야, 학교에 공부하러 가니? / 가라. / 가자.
- ㉤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철수가) 집을 나섰다.
*철수가 유학을 가려고 어머니께서 저축을 하신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은 위치를 이동할 수 있군.
- ②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에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는군.
- ③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에는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군.
- ④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 뒤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없군.
- ⑤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문장은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를 수 없군.

[22004-0054]

0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절은 주로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 ㉠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 부모들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 지금은 영화관에 가기에 너무 늦었다.

- ① ㉠: 형이 잘못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 ② ㉡: 나는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③ ㉢: 나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전국 일주를 할 것이다.
- ④ ㉣: 우리 가족들은 일 년 후에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 ⑤ ㉣: 한국어는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어렵지 않은 언어다.

[22004-0055]

05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중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관형사절에는 그것이 수식하는 체언과 동일한 체언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체언은 관형사절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쥐를 잡은 고양이가 낮잠을 잔다.’에서는 관형사절 ‘쥐를 잡은’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고양이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 문장에서 관형사절이 생성되면서 생략된 체언을 찾고, 그 생략된 체언이 관형사절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해석되는지 연결해 봅시다.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생략된 체언의 문장 성분
①	그 고양이가 잡은 쥐가 많다.		주어
②	형이 나에게 물려준 옷이 마음에 든다.		목적어
③	나는 어제 결혼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부사어
④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⑤	내가 아까 빵을 산 제과점은 이 지역의 명물이다.		

06

[22004-0056]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장 종결 표현이란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 ㉡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느냐?
- ㉢ 집에 들어왔으면 어서 손부터 씻어라.
- ㉣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서울로 출발하자.
- ㉤ 이제 보니 여기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 ① ㉠: 평서형 어미 ‘-는다’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현재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군.
- ② ㉡: 의문형 어미 ‘-느냐’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답을 구하고 있군.
- ③ ㉢: 명령형 어미 ‘-어라’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군.
- ④ ㉣: 청유형 어미 ‘-자’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군.
- ⑤ ㉤: 감탄형 어미 ‘-구나’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군.

[22004-0057]

0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건 및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기준 시점은 발화시, 즉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제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라는 문장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달리는’ 행위와 ‘보는’ 행위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보다’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쓰였으나 ‘달리다’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다. 이는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보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달리는’ 행위는 현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보기 2]

- ㉠ 언니는 밥을 먹고 동생은 물만 마셨다.
- ㉡ 그 가수는 밝은 조명 아래에 서 있었다.
- ㉢ 나는 어제 친구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 ㉣ 어머니께서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대청소를 하신다.
- ㉤ 지금 그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 ① ㉠: ‘먹고’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로, ‘마셨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해석된다.
- ② ㉡: ‘밝은’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로, ‘서 있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해석된다.
- ③ ㉢: ‘숙제하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로 해석된다.
- ④ ㉣: ‘들으면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하신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로 해석된다.
- ⑤ ㉤: ‘웃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맞이하고 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로 해석된다.

[22004-0058]

0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미적으로 볼 때, 피동문은 어떤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의 주체가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 문장이다. 능동문 ‘우리가 산을 보다.’를 피동문 ‘산이 (우리에게) 보이다.’로 바꿀 때, 피동문의 ‘우리에게’는 생략이 가능하다. 즉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에 비해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피동은 ‘보이다’와 같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과 연결 어미 ‘-아/어’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구성에 의한 피동으로 나뉜다. 그런데 국어에는 ‘날씨가 풀렸다.’처럼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자연적 발생이나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이 그러하다.

- ㉠ 산이 눈에 덮였다.
- ㉡ 종이가 갈기갈기 찢겼다.
- ㉢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
- ㉣ 동생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 ㉤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 ① ㉠과 ㉤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과 ㉤의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로 나타나겠군.
- ② ㉡과 ㉢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나겠군.
- ③ ㉢은 능동사 어간에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가 결합함으로써 구성된 피동문의 사례이군.
- ④ ㉣은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군.
- ⑤ ㉤과 같은 피동문의 예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22004-0059]

03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에서 규범적으로 옳은 문장만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1 |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에는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쓴다.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꾸준히 공부시켰다.’와 같은 사동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은 꾸준히 공부했다.’라는 주동문과 대응된다. 그런데 ‘해변에 구급대원을 배치시키다.’와 같은 문장에서 ‘배치시키다’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두다.’라는 뜻인 ‘배치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런 경우는 굳이 사동사를 쓸 필요 없이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로 쓰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

| 보기 2 |

- ㄱ.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한자 쓰기를 반복시켰다.
- ㄴ. 대학 당국은 다음 학기에 김 교수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 ㄷ. 경찰은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 ㄹ. 직업소개소에서 우리 회사에 두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시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05] 다음 <보기>와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기 |

높임 표현이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높이고 낮추는 대상에 따라 높임 표현은 크게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이는 주로 조사, 어미 등 문법 형태소로 표현되지만 특수 어휘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높임의 대상이 주체일 때 그것을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달리, 높임 대상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 한다. 그리고 국어에는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존재한다.

| 자료 |

미래: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제가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 손님들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하니 간혹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 계셔서 당황했어요. 점장님께서는 앞으로 “손님, 손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 하셨는데, 이 말이 적절한 높임 표현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절한 높임 표현이 아니야. 왜냐하면 [A]

미래: 아, ㉣ 그렇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04-0060]

0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기를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겠군.
- ② ㉡은 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부사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④ ㉣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⑤ ㉤은 보조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22004-0061]

05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가 '손님'인데도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 ② '께서'를 통한 주체 높임과 '-시-'를 통한 주체 높임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란다.
- ③ '손님께서 주문하신 커피'에서 '주문하신'의 주어는 사물이므로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 ④ '커피'가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뿐이나 소유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 ⑤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높임의 주격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주어 뒤에 '께서'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란다.

[22004-0062]

06 <보기>의 ㉗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부정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장이 부정문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탐구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국어에는 부정어와만 어울려 부정문에서만 쓰일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전혀, 결코, 별로, 비단, 그다지, 도무지’ 등이 그 예입니다. 가령 ‘그 지식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비전문적이다.’에서 ‘전문적이지 않다’는 ‘전혀’와 잘 어울리고 있으나 ‘비전문적이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탐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지식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비전문적이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 ㉑~㉗이 부정문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활동을 해 볼까요?

- ㉑ 이번에는 물려서지 마라.
- ㉒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
- ㉓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다.
- ㉔ 그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 ㉕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다.

학생: ㉗

선생님: 네, 잘했습니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㉑은 ‘*이번에는 결코 물려서라.’와 달리 ‘결코’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㉒은 ‘*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다.’와 같이 ‘비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㉓은 ‘남편은 아침을 도무지 안 먹는다.’와 같이 ‘도무지’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㉔은 ‘그 제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와 달리 ‘별로’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⑤ ㉕은 ‘통계 수치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와 달리 ‘그다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2004-0063]

01

〈보기〉를 바탕으로 발화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발화: “날씨가 덥네.”

- 의미 1: (어제 일기 예보에서 날씨가 선선할 것이라는 예보를 화자와 청자가 모두 본 상황) 일기 예보가 틀렸네.
- 의미 2: (날씨가 더우면 함께 음료수를 사 마시기로 약속한 상황) 음료수를 사 마시자.
- 의미 3: (화자가 에어컨 옆의 청자에게 말하는 상황) 에어컨을 켜라.

⋮

- ① 담화 맥락에 따라 발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 ② 발화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 ③ ‘의미 1’의 경우 만약 화자가 혼자 일기 예보를 본 상황이라면 발화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 ④ ‘의미 2’의 경우 만약 화자와 청자가 미리 약속한 상황이 아니라도 발화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겠구나.
- ⑤ ‘의미 3’의 경우 만약 화자와 청자가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있다면 의미가 달라지겠구나.

[22004-0064]

0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발화에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다. ㉠ 직접 발화는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이고, ㉡ 간접 발화는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창문 좀 닫아 줘.”라고 발화한 것은 직접 발화를 한 것이고, “오늘 정말 춥지 않니?”라고 발화한 것은 간접 발화를 한 것이다.

- ① ㉠: (엄마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줄 것을 재촉하며) 엄마, 저 빨리 밥 주세요.
- ② ㉠: (친구에게 내일 국어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며) 내일 국어 수업이 몇 교시이지?
- ③ ㉡: (아이에게 방을 청소할 것을 요구하며)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
- ④ ㉡: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자녀에게 잠에 들 것을 권유하며)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니?
- ⑤ ㉡: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것을 학생에게 권유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22004-0065]

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앞서 말한 내용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쓰인다. 또한 ㉠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해당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① A: 지우개가 어디 있지?
B: 이 책상 위에 있는 게 그거 아니야?
- ② A: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
B: 지난번에 만났던 거기서 만나자.
- ③ A: 오늘 점심 뭐 먹지?
B: 어제 먹었던 그거 먹고 싶다.
- ④ A: 너 어제 쓰고 있던 그거 마무리했어?
B: 응. 보고서 쓰느라고 잠 한숨 못 잤어.
- ⑤ A: 너 발표회 때 어떤 의상 입을 거야?
B: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거 입을 거야.

[22004-0066]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기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모인 것을 ㉠ 구름이라고 합니다. 즉, 구름을 이루는 성분 대부분이 물이라는 뜻이죠. ㉡ 그런데 오히려 물만 있다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되어야 하는데, ㉢ 이때 수증기를 뭉치게 하는 일종의 씨앗이 필요하거든요. 이 씨앗을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화산 분출물, 공장 매연 등이 응결핵의 역할을 해요. 이 응결핵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물방울로 커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구름 생성을 돕기도 해요. 식물 플랑크톤이 만드는 ‘디메틸설파이드’는 황이 들어 있는 유기 물질인데, ㉣ 이것이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거든요. ㉤ 이를 응용해 과학자들은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화 은 같은 물질을 구름 위로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② ㉡은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뒤 내용을 이끌어 나감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③ ㉢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될 때’를 가리키며 경제적 표현을 통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④ ㉣은 ‘식물 플랑크톤’을 가리키며 동일한 표현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⑤ ㉤은 ‘디메틸설파이드가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는 것’을 가리키며 앞에 나온 내용을 대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22004-0067]

0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채운의 외삼촌 가족이 채운의 집을 방문한 상황. 채운의 할머니와 엄마, 채운이 이들을 맞이함.)

할머니: 아유. 오랜만이네. ㉠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외숙모: ㉡ 어머님, 건강하시죠? ㉢ 형님도 안녕하세요?엄마: ㉣ 올케, 아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어서 들어와서 앉아. 아유. ㉡ 우리 조카 이제 잘 걷는구나. 고모 알아보겠니?외숙모: 네. 처음 키워 보는 아이라 쉽지 않네요. 이제 걷긴 걷는데 아직 ㉢ 고모를 못 알아봐요.채운: ㉣ 외숙모, 안녕하세요? ㉡ 외삼촌은 어디에 계세요?외숙모: 아, ㉣ 외삼촌은 지금 주차하고 있어. 곧 올라올 거야. 채운이도 그동안 잘 지냈니?

채운: 네, 잘 지냈어요.

엄마: 채운아, 방금 깎아 놓은 과일 ㉣ 할머니랑 외숙모께 갖다 드리렴.

채운: 네, 엄마.

- ① ㉠과 ㉡은 동일한 인물을 화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 ② ㉢과 ㉣, ㉡과 ㉣은 각각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③ ㉢과 ㉣은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 ④ ㉢과 ㉣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⑤ ㉡은 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2004-0068]

06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직시 표현이 담긴 발화의 정확한 지시 대상은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져야 확정된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① 지구는 매일 자전을 합니다.
- ② 네가 이쪽으로 오면 내가 덜 힘들 것 같아.
- ③ 지금부터 세 시간 동안 회의할 예정입니다.
- ④ 여기서 미국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 ⑤ 나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22004-0069]

0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어간들만이 어근으로 쓰인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오르느리다>오르내리다’처럼 ㉠ 음운 규칙이나 표기의 변화만 입은 채 현대 국어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여위시들다’가 ‘여위고 시들다’와 같은 구(句)로 바뀐 것처럼 ㉡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구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① ㉠: ‘검붉다’는 현대 국어의 ‘검붉다’로 이어진다.
- ② ㉠: ‘뛰놀다’는 현대 국어의 ‘뛰놀다’로 이어진다.
- ③ ㉡: ‘술지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살이 찌다’와 같이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④ ㉡: ‘딛먹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찍어 먹다’와 같이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⑤ ㉡: ‘도랏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 좋거나 굶다’와 같이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22004-0070]

02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 묶이지 않은 것은?

| 보기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된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경우 ㉠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예가 흔히 나타났다. ‘젖다’는 ‘王ᄃᆞᆫ 췌메 집보히 것거늘 [왕의 꿈에 집 들보가 꺾이거늘]’에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고ᄃᆞᆫ 곳 짓고 [고운 꽃 꺾고]’에서는 타동사로 쓰였다.

- ① 王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아니 그출썩 [가뭇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 날웨에 날굽 쇠줄 그쳐 [이레에 일곱 쇠사슬을 끊어]
- ② 光明이 두루 비취더시니 [광명이 두루 비치시더니]
 └ 光明이 세계를 스뭇 비취샤 [광명이 세계를 꿰뚫어 비추셔서]
- ③ 王이 좌시고 病이 도ᄃᆞᆫ샤 [왕이 드시고 병환이 좋아지셔서]
 └ 네 天下스 中에 뭇 도ᄃᆞᆫ니라 [네 천하 가운데 가장 좋으니라]
- ④ 마스미 여르샤 道를 得ᄃᆞᆫ시니 [마음이 열리시어 도를 얻으시니]
 └ 큰 마스물 여러 空寂 버리고 [큰 마음을 열어 공적을 버리고]
- ⑤ 魔鬼神들히 다 물러 흐터 가리이다 [마귀신들이 다 물러나 흩어져 갈 것입니다]
 └ 번개 구르물 흐터 [번개 구름을 흩어]

[22004-0071]

03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 문장에서의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帝業을 여르시니 [제업을 여시니]
- ㉡ 흔 말도 묻혀야 잇터시니 [한 말도 못하고 있으시더니]
- ㉢ 右手 左手로 天地 마르치샤 [우수와 좌수로 천지 가리키시어]
- ㉣ 太子 | 글 비호기를 즐겨 [태자가 글 배우기를 즐겨]
- ㉤ 四海를 년글 주리여 [사해를 남을 주랴]

- ① ㉠을 보니,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실현되었군.
- ② ㉡을 보니, 보조사가 붙은 목적어가 실현될 수도 있었군.
- ③ ㉢을 보니, 목적격 조사 없이 목적어로 실현될 수도 있었군.
- ④ ㉣을 보니,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실현되기도 하였군.
- ⑤ ㉤을 보니, 의미상으로는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목적어로 실현되기도 하였군.

04

[22004-007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중세 국어의 특징]

-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형태가 있었다.
-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 객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 ‘이/의’가 부사격 조사로도 사용되었다.
- ㉤ ‘시’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보기 2 |

- ㉠ 大王아 반드기 알라 [대왕아 반드시 알아라]
- ㉡ 大王하 이제 반드기 아랴쇼셔 [대왕이시여 이제 반드시 아소서]
- ㉢ 부텃고 이런 마를 못 듣즈븄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며]
- ㉣ 아츨뵈 닉더니 [아침에 익더니]
- ㉤ 하늬 벼리 [하늘의 별이]

- ① ㉠의 ‘大王아’와 ㉡의 ‘大王하’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알라’와 ㉡의 ‘아랴쇼셔’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듣즈븄며’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아츨뵈’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하늬’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05~06] 다음은 중세 국어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료

부테 羅雲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맛나미 어려브며 法 드로미 어려브니 **네** 이제 사르미 **모들** 得호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엇데** 게을어 法을 아니 듣는다.”

羅雲이 슬보디 “부텃 **법이** 精微호야 **저문** **아히** 어느 듣즈보리잇고, 아래 즈조 **듣즈반마를** 즉자히 도로 니저 곳블 썩니니 이제 저문 **저그란** 안죽 므슴식장 노다가 즈라면 어루 法을 비호스보리이다.”

- 『석보상절』 권6

[현대어 풀이]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는 것이 어려우며 법을 듣는 것이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얻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나운이 사뢰되 “부처의 법이 정미하여 **어린** 아이가 **어찌** 듣겠습니까? 예전에 자주 **들었지만** 즉시 도로 잇어 힘들 뿐이니, 이제 **어릴 적은** 아직 마음껏 놀다가 자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

[22004-0073]

05 <자료>의 밑줄 친 표현을 중심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모들’과 ‘法을’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군. …… ①
표기	‘엇데’의 ‘엇’과 ‘듣즈반마를’의 ‘듣’을 보니, ‘ㄷ’과 ‘ㅅ’이 종성에서 구분되어 표기되었군. …… ②
단어	‘저그란’이 ‘적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으란’이 있었군. …… ③
문장	‘듣는다’가 ‘듣는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듣는다’에는 현대 국어의 ‘-니다’와 같이 주어 2인칭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 ‘-니다’가 쓰였군. …… ④
어휘	‘저문’이 ‘어린’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저문’은 현대 국어의 ‘젊은’과는 의미가 다르게 쓰인 것이군. …… ⑤

[22004-0074]

06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자료>에서 바르게 찾아 묶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ㅣ’, ‘∅(영형태)’로 실현되었다.

- 자음 뒤에서는 ‘이’로 나타났다. ㉠
- 모음 ‘이’나 반모음 ‘j’ 이외의, 대부분의 모음 뒤에서는 ‘ㅣ’로 나타났다. ㉡
- 모음 ‘이’나 반모음 ‘j’ 뒤에서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	㉡	㉢
①	法이	네	부터
②	法이	부테	아히
③	羅雲이드려	네	부터
④	羅雲이드려	부테	아히
⑤	羅雲이드려	네	아히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ㄹ’ 탈락은 ‘ㄹ’이 ‘ㄴ, ㅅ’ 등과 같은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ㄹ’ 탈락은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적용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ㄹ’ 탈락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거나 ㉠ 복합어를 만들 때에는 ‘ㄹ’ 탈락이 일어난다. 복합어를 만들 때의 ‘ㄹ’은 ‘ㄴ, ㅅ’ 외에 ‘ㅈ, ㅊ’ 앞에서도 탈락한다. 그러나 ㉡ 복합어에 적용되는 ‘ㄹ’ 탈락은 동일한 환경이라도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가 많다.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ㄹ’ 탈락이 일어나는 현상은 15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가령 ‘알-’, ‘울-’, ‘살-’ 뒤에 ‘-ㄴ/는’이 결합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아ㄴ, 우ㄴ, 사ㄴ’으로 실현되었다. 유음화가 생긴 것은 ‘ㄹ’ 탈락보다 후대의 일이다. 유음화는 16세기부터 조금씩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 차이 때문에 용언의 활용형이나 복합어에서 이전에 ‘ㄹ’ 탈락의 적용을 받은 형태는 유음화가 새로 생긴 이후에도 ‘ㄹ’ 탈락이 일어난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유음화는 오로지 ‘ㄹ’ 탈락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던 ‘ㄹㄴ’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은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만 ‘ㄹ’ 탈락이 일어났고, 다른 경우에는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령 ‘끓-, 숨-’과 같이 ‘ㄹ’계 자음군을 가진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15세기에 이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ㅎ’이 탈락하였다. 이때에는 ‘ㄴ’ 앞에서도 ‘ㄹ’이 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ㄹ’계 자음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깨’와 같은 자음군을 가지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15세기에는 음절 중성에서 ‘ㄹ’과 ‘ㅂ’이 모두 받음되다가 이후에 ‘ㅂ’이 탈락하면서 ‘ㄹ’과 ‘ㄴ’이 직접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ㄹ’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22004-0075]

01

㉠, ㉡의 사례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소나무	나날이
②	돌도끼	물집
③	바느질	단골집
④	화살	버드나무
⑤	여닫이	아드님

02

[22004-0076]

〈보기〉의 ㉠~㉡에 나타난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괴는 거시며 ㉠ 느논(놀-+-논) 거시며 <<1459 월석 1:11>>
[기는 것이며 나는 것이며]
- 네브터 ㉡ 알논(알-+-논) 낫病이 도커든 <<1481 두시-초 9:16>>
[옛부터 앓는 잇병이 좋아지거든]
- 바람비 즈조물 ㉢ 슬노라(슬-+-노라) <<1481 두시-초 16:35>>
[바람과 비가 잦은 것을 슬퍼한다.]
- ㉣ 솔립(솔+립) ㄱᄃᆞᆫ ㄱᄃᆞᆫ 밍그라 <<1653 벽신 14ㄱ>>
[솔잎을 가늘게 가루 만들어]
- 쇠를 ㉤ 뽏논(뽏-+-논) 듯흐니 <<1481 두시-초 17:30>>
[쇠를 밟는 듯하니]

- ① ㉠: 용언의 어간 받침 ‘ㄴ’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군.
- ② ㉡: 15세기에 이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ㅎ’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군.
- ③ ㉢: 어간의 받침이 ‘ㄴ’로 시작하는 겹받침인 경우에는 ‘ㄴ’이 ‘ㄴ’ 앞에서 탈락하지 않았군.
- ④ ㉣: 합성어에서 일어난 유음화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였군.
- ⑤ ㉤: 15세기에는 ‘ㄴ’과 ‘ㅂ’이 모두 발음되었고, 16세기 이후 유음화가 이루어졌군.

[22004-0077]

03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짝지은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이다. 한편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특정한 통사적·의미적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가리킨다. 단어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도 기능한다. 예를 들어 ‘상우 책 읽는다.’와 같은 문장에서 ‘책’은 품사로는 명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이다. ‘읽는다’의 경우 품사로는 동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다.

- 너는 ㉠ 외국 살 때 ㉡ 뭐 좋아했니?
- ㉢ 우리 아들 ㉣ 오늘 ㉤ 반장 됐어.

		품사	문장 성분
①	㉠	명사	부사어
②	㉡	대명사	목적어
③	㉢	관형사	관형어
④	㉣	부사	부사어
⑤	㉤	명사	보어

[22004-0078]

04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 어미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국어의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맨 뒤에 놓이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높임 관련 선어말 어미와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어지는데, 종결 어미는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며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연결 어미는 절을 연결하거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미로 명사형, 부사형,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

•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화단을 ㉠ 크게 ㉡ 가꾸셨고, 요즘은 어머니께서 ㉢ 작은 텃밭을 ㉣ 일구고 ㉤ 계십니다.

- ① ㉠~㉣에는 모두 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에는 부사형 어미가 사용되었고, ㉢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과 ㉣에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에는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에는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에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22004-0079]

05 <보기>의 (가)~(마)에 대한 학생의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입니다. 겹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에 대해 말해 볼까요?

- (가) 그는 줄넘기를 하려고 집을 나섰다.
- (나)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는 싫어한다.
- (다) 저 큰 나무에는 새가 많이 살고 있다.
- (라) 그가 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마)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수족관에는 동물들이 많았다.

학생:

- ① (가)는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하여 주어 하나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② (나)는 두 절의 목적어가 동일하여 목적어 하나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③ (다)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④ (라)는 관형사절의 보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⑤ (마)는 관형사절의 부사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22004-0080]

06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특히 다의어의 경우 여러 개의 반의어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좋다'의 반의어는 '(굳이) 싫다'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쁘다'가 될 수도 있으며, '(비위가) 약하다'가 될 수도 있다.

	단어	반의어
①	독하다	순하다, 약하다
②	쓰다	지우다, 달다
③	서다	앉다, 무더지다
④	열다	닫다, 다물다
⑤	벗다	입다, 신다

[22004-0081]

01

(가)를 참고하여 (나)의 언어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언어 자료

㉠: 밥물[밤물], ㉡: 앞집[압쩍], ㉢: 신라[실라], ㉣: 앞마당[암마당], ㉤: 맞반이[만빠지]

- ① ㉠~㉣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
- ② ㉠, ㉡를 고려할 때 ㉣의 ‘ㅍ’의 발음은 ‘파열음 거센소리 → 파열음 예사소리 →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③ ㉠, ㉢ 모두 앞 음절 받침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
- ④ ㉡, ㉤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첫음절 받침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파열음 예사소리로 바뀌었다.
- ⑤ ㉤에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모두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절이 두 개 있다.

[22004-0082]

02 사전에서 ‘뜨다’를 검색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뜨다¹ [뜨다]「동사」

①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른다.

②

「1」착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기다.

「2」(비유적으로)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되다.

⋮

뜨다² [뜨다]「동사」

「1」감았던 눈을 벌리다.

「2」처음으로 청각을 느끼다.

「3」무엇을 들으려고 청각의 신경을 긴장시키다.

뜨다³ [뜨다]「형용사」

「1」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

「2」감수성이 둔하다.

「3」입이 무겁거나 하여 말수가 적다.

「4」날이 무디다.

「5」다리미, 인두 따위의 쇠붙이가 잘 달구어지지 않는다.

「6」비탈진 정도가 둔하다.

⋮

- ① ‘뜨다¹’~‘뜨다³’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군.
- ② ‘뜨다¹’~‘뜨다³’은 모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군.
- ③ ‘뜨다²’는 ‘벌리다, 느끼다’와 의미상 상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뜨다³’은 ‘더디다, 둔하다, 무디다’와 같은 단어와 유의 관계에 있겠군.
- ⑤ ‘뜨다¹-①’과 반의 관계를 가진 말은 ‘방향’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겠군.

[22004-0083]

03

〈보기〉를 참조하여 제시된 문장들의 서술어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성분 중 서술어는 ‘걷다’, ‘뒹다’처럼 하나의 어절로 성립하는 것도 있고,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처럼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연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있다. 다음으로 본용언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있다. 이는 다시 ‘기러기가 울며 간다.’에서처럼 ㉡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간다.’에서처럼 ㉢ 따로따로 일어나는 동작이 연결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세 개 이상의 용언이 연결되어 있는 구성은 앞의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 → 본용언 ‘쓰다’에 보조 용언 ‘있다’와 ‘않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② ‘우리 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 ‘걷다’와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③ ‘오늘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고 싶다.’ → ‘맞다’와 ‘걷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고, 여기에 보조 용언 ‘싶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④ ‘내일 보낼 편지를 써 두어야 한다.’ → 본용언 ‘쓰다’와 ‘두다’가 연결된 상태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⑤ ‘동생은 숙제를 하고 나서 쉬었다.’ → 본용언 ‘하다’에 보조 용언 ‘나다’가 연결된 상태에, ‘하다’와 따로 일어나는 동작인 ‘쉬다’가 결합하였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22004-0084]

0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최근에 산 책은 값이 아주 비싸다.
 ㉡: 부지런한 선영이는 아침에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은 인구가 매우 많다.
 ㉣: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도서관은 규모가 컸다.
 ㉤: 친구들을 지켜보던 수현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나갔다.

- ① ㉠~㉣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 ② ㉠, ㉢,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 ③ ㉠은 목적어가 생략된 절을 가지고 있고, ㉣은 부사어가 생략된 절을 가지고 있다.
- ④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관형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고,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22004-0085]

05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머니: 수현아, ㉠ 지금이 대체 몇 시니? 새벽 1시야.

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과제 끝내야 해요.

어머니: ㉡ 어쩔, 우리 딸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했었다니……. 그런데 피곤해서 어떡하니?딸: 그렇긴 해요. 다른 건 다 끝냈는데 ㉢ 이 과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네요.

어머니: 그렇구나. 그런데 내일 할머니 댁에 갈 수 있겠니?

딸: ㉣ 못 갈 거 같아요.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어머니: ㉤ 그렇게 말했었나?

딸: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대신 토요일에 갈게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얼른 하고 자렴.

- ①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 ② ㉡: 감탄사를 사용하여 상대의 발화가 의외임을 나타낸다.
- ③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보다는 행위의 대상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상황이 불가피함을 나타낸다.
- ⑤ ㉤: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전 발화 내용을 나타낸다.

[22004-0086]

06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孔:공자·즈 | 曾중자·즈드려 ㉡ 닐·러 곶·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 슬·흐
 父·부母:모·씩 ㉣ 받·즈·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히·오·디 아·니:흠·이 ㉤ :효·도·인 ㉥ 비·르·소
 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 일:흠·을 後:후世:세·에 :베·퍼 ·써 父·부母:모를 :현·더
 케 :흠·이 :효·도·인 ㉧ ㅁ·츄·이·니·라

- 『소학언해(小學諺解)』

[현대어 풀이]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므로, 감히
 험하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다.

- ① ㉠과 ㉤에서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를 찾을 수 있다.
- ② ㉢와 ㉦에는 그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의 해당 어휘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다.
- ③ ㉥와 ㉧를 통해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같이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 첫음절의 ‘ㄴ’ 앞에 ‘ㄴ’이 오지 못하는 제약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 ⑤ ㉤에 포함된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처럼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뜻을 나타내는 데 쓰였음을 보여 준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이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음운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종성에서 발음 가능한 자음의 최대 개수는 하나인데,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는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표준 발음에서 ‘값’은 겹받침 ‘ㅅ’ 중 ‘ㅅ’이 탈락하여 [갑]으로 발음되고, ‘삶’은 겹받침 ‘ㅃ’ 중 ‘ㄷ’이 탈락하여 [삼]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값이[갑씨]’, ‘삶은[살:믄]’ 등과 같이 겹받침 중 뒤에 있는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현대 국어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은 자음군을 구성하는 자음들의 음운론적 성격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음운론적 성격을 보면 자음은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음은 자음 중에서도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는 부류로 파열음(ㅂ, ㅃ, ㅍ, ㄸ, ㅌ, ㅍ, ㅊ, ㅋ, ㆁ, ㆁ, ㆁ), 마찰음(ㅅ, ㅆ, ㅎ), 파찰음(ㅈ, ㅉ, ㅊ)이 여기에 속하며 공명음은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구강이나 비강의 울림을 일으켜 발음되는 부류로 비음(ㅁ, ㄴ, ㅇ)과 유음(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의 경우를 보면, 자음군을 구성하는 자음 중 주로 장애음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공명음인 ‘ㄴ’과 장애음인 ‘ㅎ’으로 구성되어 있는 ‘ㄴㅎ’에서는 ‘ㄴ’과 ‘ㅎ’이 탈락하고 ‘ㄴ’이 남는다. 그러나 ‘ㄹ’이 포함된 자음군의 경우 예외가 많으며 후행하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자음군 단순화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각 자음의 음운론적인 성격을 고려해 겹받침의 발음을 기능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겹받침의 표준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자음군 단순화와 다른 음운 현상이 중복되어 일어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어떤 음운 현상과 함께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읽고’, ‘넓다’에서 ‘ㄹ’은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지 않는 데도 결과적으로 [일꼬], [널따]와 같이 발음된다. 이는 ‘ㄹ, ㅃ’의 ‘ㄱ, ㅂ’ 뒤에서 먼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ㄱ, ㅂ’이 탈락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2004-0087]

01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삶만[삼: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② ‘읽어[일겨]’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③ ‘값있는[가빈느]’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④ ‘많거든[만:커든]’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⑤ ‘넓고[널꼬]’는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02

[22004-008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표준 발음법 자료]

제10항 겹받침 ‘ㄷ’, ‘ㄷ’, ‘래, 려, 래’,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ㅍ]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리, 려,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ㅍ]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표준 발음법 자료를 통해, 겹받침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발음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겹받침을 구성하는 자음들의 음운론적 성격을 고려하여, 윗글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단,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 활동]

다음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보자.

앉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곶], 읊는[음는], 훤는[할른]

- ① ‘앉다’의 표준 발음이 [안따]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② ‘여덟’의 표준 발음이 [여덜]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③ ‘외곶’의 표준 발음이 [외곶]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④ ‘읊는’의 표준 발음이 [음는]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⑤ ‘훤는’의 표준 발음이 [할른]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2004-0089]

03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들다¹「동사」

[1]【…에】【…으로】

「1」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숲속에 드니 공기가 훨씬 맑았다.

「2」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 『오후가 되면 햇빛이 안방으로 든다.

[2]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밤이 들자 기온이 떨어졌다.

들다²「동사」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 『칼이 잘 들다.

들다³「동사」

[1]【…을…에】

손에 가지다. 『꽃을 손에 든 신부.

[2]【…을】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역기를 번쩍 든 역도 선수

- ① 들다²는 자동사로 쓰인다.
- ② 들다³-[1]은 들다¹-[2]에 비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더 많다.
- ③ 들다¹-[1]-「2」의 용례로 ‘아침이면 이 방에 별이 잘 들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들다³-[2]의 반의어가 쓰인 예로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리다.’를 제시할 수 있다.
- ⑤ 들다¹-[1]-「1」을 활용한 관용 표현이 사용된 예로 ‘그의 영향력은 말 한마디에 온 나라를 들었다 놓을 정도였다.’를 제시할 수 있다.

[22004-0090]

04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안은문장 구성이나 이어진문장 구성에서는 두 절에 동일한 성분이 중복되어 쓰이거나 두 절의 성분이 의미하는 대상이 동일할 때 둘 중 하나의 성분이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가령,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에서는 명사절인 ‘집에 가기’의 주어인 ‘나는’이 안은문장의 주어인 ‘나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 우리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 아버지는 내 생일에 새 자전거를 사 주실 것을 약속했다.
- ㉢ 아들 내외는 저희를 집으로 부른 이유를 내게 물었다.
- ㉣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자기의 도끼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 ㉤ 그는 부지런하므로 필시 성공할 것이다.

- ① ㉠: 명사절의 주어가 안은문장의 주어 ‘우리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② ㉡: 관형사절의 주어가 안은문장의 주어 ‘아버지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③ ㉢: 관형사절의 목적어가 의미하는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의미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
- ④ ㉣: 인용절의 관형어가 의미하는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의미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
- ⑤ ㉤: 앞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가 한 번만 나타났다.

[22004-0091]

0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는 ‘-습-’, ‘ㄷ, ㅌ, ㅈ, ㅊ’일 때는 ‘-줍-’, 모음이나 ‘ㄴ, ㄹ’일 때는 ‘-습-’으로 실현되었다. 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줍-, -습-’은 각각 ‘-술-, -줄-, -술-’으로 실현되었다.

[보기 2]

須達이 護彌드려 무로되 主人이 므슴 차바닐 손소 돌녀 밍그노닛가 太子를 ㉠ 請흐스빠 ㉡ 이 받즈보려 ㅎ노닛가 大臣을 ㉢ 請흐야 이바도려 ㅎ노닛가

護彌 닐오되 그리 아닝다

須達이 썸 무로되 婚姻 위흐야 아스미 오나든 ㉣ 이바도려 ㅎ노닛가

護彌 닐오되 그리 아니라 부터와 중과를 ㉤ 請흐스보려 ㅎ닝다

- 『석보상절』 권6

[현대어 풀이]

수달이 호미더러 묻되 “주인이 무슨 음식을 손수 다녀 만드오? 태자를 청하여 대접하려 하오? 대신을 청하여 대접하려 하오?”

호미 이르되 “그런 것이 아니오.”

수달이 또 묻되 “혼인을 위하여 친척이 오거든 대접하려 하오?”

호미 이르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을 청하려 하오.”

- ① ㉠과 ㉡을 비교해 보면, ‘수달’이 ‘태자’는 높이고 ‘대신’은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과 ㉢을 비교해 보면, ‘수달’이 ‘주인’은 높이고 ‘아스’는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보면, ‘호미’가 ‘부터’는 높이고 ‘중’은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과 ㉤을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습-’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말음이 ‘ㅁ’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004-0092]

01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존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 쓰이므로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의존 명사는 격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기도 하고,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나 후행하는 서술어가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다. 일부 자립 명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①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의미하는 ‘김’은 부사격 조사 ‘에’와만 결합하므로 격 조사 결합의 제약을 보이는 의존 명사이다.
- ②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인 ‘바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의 뒤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제한되는 의존 명사이다.
- ③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듯이’는 그 뒤에 ‘없다’나 ‘있다’만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행하는 서술어에 제한이 있는 의존 명사이다.
- ④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인 ‘개’는 의존 명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다.
- ⑤ 자립 명사인 ‘숟가락’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22004-0093]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 정말 맛이 좋다.
- ㉡ 나는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 ㉢ 그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함을 깨달았다.

- ① ㉠, ㉡, ㉢에는 모두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다.
- ②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이고, 서술어는 ‘맛이 좋다’이다.
- ③ ㉡의 안은문장의 서술어는 ‘결심했다’이고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 ④ ㉠, ㉢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 ⑤ 명사절에 조사가 결합하여 ㉡에서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22004-0094]

0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예인: 내일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평가가 있는데,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난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거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승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떤 발음이 어려워?

예인: 응. 어려운 부분에 밑줄 쳐 두었어.

등심초

꽃잎은 하얗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승주: ㉠

- ① ‘꽃잎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꼐니폰]으로 발음해야 해.
- ② ‘없네’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엄:네]로 발음해야 해.
- ③ ‘맺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니까 [맷찌]로 발음해야 해.
- ④ ‘못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니까 [모타고]로 발음해야 해.
- ⑤ ‘풀잎만’은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풀님만]으로 발음해야 해.

[22004-0095]

04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우리가 어떤 문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사실로 인정되는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정우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라는 문장에는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장의 의미 속에 포함된 다른 의미를 함의라고 합니다. 함의는 아주 일반적인 언어적 속성이기 때문에 함의를 갖는 문장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료>

- ㉠ 저것은 펭귄이다. — 저것은 새이다.
- ㉡ 그가 집에서는 말을 잘한다. — 그가 다른 곳에서 말을 잘 안 한다. 그가 다른 곳에서 말을 잘하는지 어떤지 잘 모른다.
- ㉢ 우리 팀은 우승에 실패했다. — 우리 팀은 우승에 성공하지 못했다.
- ㉣ 진호는 연지의 남편이다. — 연지는 진호의 아내이다.
- ㉤ 나는 오늘 책방에 책을 사러 왔다. — 나는 오늘 서점에 책을 사러 왔다.

- ① ㉠은 ‘펭귄’과 ‘새’가 상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 문장을 함의한다.
 ② ㉡은 보조사 ‘는’이 ‘대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의 두 문장 중 한 문장을 함의할 수 있다.
 ③ ㉢은 ‘실패’와 ‘우승’이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한다.
 ④ ㉣은 ‘남편’과 ‘아내’가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한다.
 ⑤ ㉤은 ‘책방’과 ‘서점’이 동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한다.

[22004-0096]

0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에 들어갈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현대 국어의 의문 대명사 ‘무엇’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의문 대명사의 단독형은 ‘므스’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므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므스’, 부사격 조사 ‘와/과’ 앞에서는 ‘므슴’으로 나타난다.

- 나그내여 너는 쯔 성이 ㉠고. 《변노 상:44》
현대어 풀이: 나그네여, 너는 또 성이 무엇인고?
- 善知識아 定慧는 ㉡과 곧 ㅎ뇨. 《육조 중:6》
현대어 풀이: 선지식아, 정혜는 무엇과 같은가?

	㉠	㉡
①	므스	므스
②	므스	므슴
③	므슴	므스
④	므슴	므슴
⑤	므슴	므슴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단어들은 의미를 지니므로 단어들의 관계는 의미를 중심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간 어휘의 의미 관계는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로 논의되어 왔다. () 낱씨'에서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단어들은 '시원한', '선선한'이나 '따뜻한', '추운'처럼 다양하다. 이들은 선택 가능한 단위로서 '시원한'과 '선선한'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를, '따뜻한'과 '추운'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문장의 동일 위치에 넣을 수 있는 선택항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계열 관계라 한다.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 외에도 계열 관계의 예로 상하 관계를 들 수 있다. 상하 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간 관계를 가리킨다.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상위어, 하위어로 지칭되며, 상위어보다 하위어가 의미 자질을 더 많이 갖는다. 그리고 계층적 구조 내에서는 계층을 달리하여도 단어들의 위계 관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조류-핑-장끼'에서 '조류'와 '핑', '핑'과 '장끼'는 모두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적 위계 관계에서 '조류'와 '장끼' 역시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류'와 '핑', '핑'과 '장끼', '조류'와 '장끼'는 모두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핑'이 [+조류], [+핑과]의 의미 자질을 갖는다면 '장끼'는 거기에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갖게 된다. 또한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관계인 일방 함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준다.'에서 '반려동물' 대신 상위어인 '동물'로 교체해도 의미상 문제가 없지만, 하위어인 '강아지'로 교체하면 의미상 문제가 생긴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강아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하위어를 상위어로 교체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합 관계는 한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양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된다. 문장 내 단어들은 문법적, 의미적으로 결합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들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 나타나는 제약을 포괄적으로 공기(共起) 제약이라고 한다. 공기 제약을 위반한 예로는 의미상 모순된 표현을 들 수 있다. 가령 '색깔 없는 녹색'의 경우, '녹색'에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이라는 색깔과 관련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것과 모순되는 '색깔 없는'이라는 수식어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다. 공기 제약을 위반한 경우 유의어 대체를 통해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색깔 없는 녹색'처럼 '녹색' 대신 유의어인 '초록'으로 대체하여도 같은 의미상 모순이 발생하여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01

[22004-009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보기

- ㄱ. '차가운', '뜨거운'이나 '깨끗한', '더러운'은 모두 '물'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단위로, 서로 계열 관계를 맺고 있다.
- ㄴ. '뜨거운 차가움'은 '뜨거운'과 '차가움'이 의미상 모순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장 내 단어들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다.
- ㄷ. '적은 함유량'을 공기 제약을 위반하지 않은 표현으로 볼 때, '적은'을 '낮은'으로 바꾸면 공기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 ㄹ. '시끄러운 고요'를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으로 볼 때, '고요'를 '정적'으로 바꾸어도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2

[22004-0098]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보기

- ㉠ 생물(生物):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영양·운동·생장·증식을 하며, 동물·식물·미생물로 나뉜다. ≙ 생물체, 유생물.
- ㉡ 무생물(無生物): 생물이 아닌 물건.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돌, 물, 흙 따위를 이른다.
- ㉢ 동물(動物): 생물계의 갈래 가운데 하나.
- ㉣ 당나귀: 포유류 말과에 속한 동물의 하나. ≙ ㉢ 나귀.

① ㉢는 ㉣를 함의하지 않지만, ㉣는 ㉢를 함의한다.

② ㉠나 ㉢는 ㉡나 ㉣보다 항상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③ '㉠와 ㉡'와 달리, '㉠와 ㉢'나 '㉢와 ㉡'는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④ '㉡와 ㉢'는 반의 관계를 맺고 있고, '㉡와 ㉣'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⑤ ㉢는 ㉠와의 관계에서는 상위어가 되지만, ㉡와의 관계에서는 하위어가 된다.

[22004-0099]

03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습 활동] 다음을 참고하여 ㉠~㉡에 제시된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자.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음과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ㅏ	ㅓ	ㅜ	ㅞ	ㅟ	ㅘ	ㅚ
a	o	u	ae	yeo	wa	wo

ㄱ	ㅋ	ㄷ	ㅌ	ㅍ	ㅎ	ㄴ	ㅁ	ㅇ	ㄹ
g, k	k	d, t	tt	p	h	n	m	ng	r, l

- (1)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 (2)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 대관령[대:괘령] → Daegwallyeong
- ㉡ 팔당[팔팡] → Paldang
- ㉢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 목호[무코] → Mukho
- ㉤ 월곶[월곶] → Wolgot

- ① ㉠에서 유음화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다.
- ② ㉡에서 된소리되기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에서 'ㄴ' 첨가, 비음화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④ ㉣에서 거센소리되기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⑤ ㉤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다.

[22004-0100]

04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가 ㉠ 늦게 ㉡ 학교에 왔을 때 나는 ㉢ 이미 집에 ㉣ 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 ① ㉠: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② ㉡: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③ ㉢: 단일어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④ ㉣: 용언 어간이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⑤ ㉤: 합성어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22004-0101]

05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 휘노더니 이랑이 ㉢ 소리를 높히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 밑 홍운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같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현대어 풀이] 홍색(紅色)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휘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奇異)하며, 기운이 진홍(眞紅)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 ① ㉠: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 표기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 현대 국어와 달리, 합용 병서에 의해 만들어진 ‘ㄴ’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 ‘-를’이 결합된 것을 볼 때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 연결 어미 ‘-거늘’을 활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 ‘붉-’에 명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어미 ‘-기’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1~04] (가)는 방송 보도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시청한 사회 문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진행자: ○○시 △△광장에 공중 보행로 설치를 앞두고 시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취재한 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시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광장 일대에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저는 공중 보행로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한데요. 정확히 공중 보행로가 뭔가요? 육교와 다른 건가요?

기자: 육교 또한 공중 보행로의 일종인데요. 육교는 보통 하나의 도로를 건너기 위한 수단으로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린다면, 공중 보행로는 여러 개의 도로를 연결해서 건널 수도 있고, 주변 건물의 출입구와 연결하면 계단이나 경사로 없이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 보행로 사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장면 2]를 본 후)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니 공중 보행로가 무엇인지 알겠네요. 그런데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유동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과 관련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 보행로를 만들어서 유동 인구가 손쉽게 근처 상가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과, 현재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보행로를 여러 방향에서 항상 연결되는 보행로로 변경하는 것이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진행자: 그런 목적이라면 지하도 설치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기자: 지하도는 시공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공중 보행로가 최적 대안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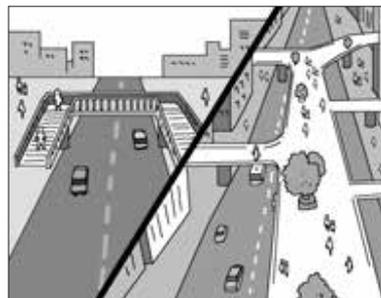
진행자: 그렇군요. 사업비 60억 원이면 아주 큰 사업 같은데요. 그만큼의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기자: ○○시는 구도심에 위치한 △△광장에 도심 상징물의 성격을 띤 보행 시설이 생기면 주변 상권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공중 보행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관계자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장면 1]



[장면 2]

○○시 관계자: △△광장 공중 보행로 건설은 활력 있는 도심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공중 보행로가 조성되면 근처 상가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 침체된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시민 1: 공중 보행로가 생기면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이 분리될 수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광장의 길 건너편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민 숲 공원도 있는데, 공중 보행로가 생기면 시민 숲 공원의 접근성도 높아질 테니 기대가 됩니다.

시민 2: 공중 보행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보행로 양쪽으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쓰레기라도 투척하면 공중 보행로 아래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볼 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자: 공중 보행로 설치 사업은 보행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면 장점도 많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관리 문제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장면 3]

(나)

학생 1: 공중 보행로가 도심 상징물로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생기면 도시 홍보도 되고 좋겠지?

[A] 학생 2: 육교도 이용객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데, 공중 보행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테니, 난 설치하는 거 반대야.

학생 3: 공중 보행로로 인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공중 보행로만 붐비지 않을까?

학생 2: 공중 보행로가 생기면 근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거야. 우리 집은 층수가 낮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 방 안을 훤히 들여다보는 건 생각만으로도 싫어.

[B] 학생 3: 예전에 다른 도시에서 공중 보행로를 만들 때는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 방식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여 주던데, 이번 보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 공중 보행로이니까 안전성이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

학생 1: 현재 설계상으로는 각종 설계 기준에 맞춰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 내진 기준도 반영되어 있어서 튼튼할 거라 하니 괜찮을 거 같아.

학생 3: 우리끼리만 논쟁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면 어떨까?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 발표회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좋아. 어떤 방법으로 친구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까?

학생 1: ㉠ 설문지를 만들어서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보자.

[22004-0102]

0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자는 공중 보행로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 ② 하나의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
- ③ 시민 인터뷰를 삽입하여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공중 보행로를 대신할 수단의 설치 가능성을 기자에게 확인하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시 관계자 인터뷰를 삽입하여 공중 보행로 설치 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시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22004-0103]

02 <보기>는 편집 회의에서 (가)를 준비하며 계획한 내용이다. 이 중 (가)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공공성이 강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용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 보도 제목을 방송 첫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 ㉢ 시민 인터뷰 중 일부는 핵심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넣어서 전달력을 높인다.
- ㉣ 방송 매체의 공적 특성을 고려해 진행자는 기자와 시청자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 ㉤ 숫자가 포함된 정보는 음성만으로는 전달력이 약할 수 있으니 시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22004-0104]

03 (나)의 학생들이 (가)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심 상징물의 효과를 근거로 들어 공중 보행로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2’는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면서 ‘시민 2’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실제 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다른 도시와 대비되는 ○○시만의 특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시 관계자’의 의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1’은 방송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근거를 내세우며 ‘시민 2’의 입장과는 달리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01~03] 다음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주민 등록 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민 등록 번호 제도를 유지해야 할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민 등록 번호 폐지를 주장하시는 미래 연구원 신 박사님, 주민 등록 번호 유지를 주장하시는 국민 생활 연구소 강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신 박사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장면 1]

신 박사: 주민 등록 번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과 일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아라비아 숫자식 개인 식별 번호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주민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 등록 번호는 고유한 개인 식별 번호로서, 부여받은 개인의 신원만을 인증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민 등록 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제삼자에 의한 도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 등록



[장면 2]

번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등록 번호를 통한 인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 등록 번호 도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 등록 번호를 전면 폐지하고 개인의 생체 정보와 결합한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연구원: 저 또한 주민 등록 번호 도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 등록 번호는 복지나 공적 부조 등과 같은 공적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효율적인 행정 수단입니다. 주민 등록 번호의 대량 유출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 등록 번호를 유지하지 않고 일시에 폐지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 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주체의 책임을



[장면 3]

강화하거나 주민 등록 번호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는 할 수 있으나, 주민 등록 번호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생체 정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체 정보를 신원 인증 시스템의 일부에 포함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두 분 모두 주민 등록 번호의 대량 유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내셨는데,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시청자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누리집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 주신 의견 중에 ‘주민 등록 번호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강 연구원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강 연구원: 주민 등록 번호를 폐지하면 행정과 공공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잃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령 구청이나 법원 등에서 신원 인증을 요구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민 등록 번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신원 인증이 필요할 경우 ISP 안전 결제나 SSI 보안 시스템과 같이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하는 보안 인증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면 4]

사회자: 강 연구원님은 주민 등록 번호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별도의 보안 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신 박사님, 혹시 주민 등록 번호를 폐지해야 할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신 박사: 강 연구원님께서 행정과 공공 서비스에서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주민 등록 번호라는 개념에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련의 번호를 매기고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국민들을 관리 대상 혹은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면 5]

사회자: 신 박사님 말씀은 주민 등록 번호에 내재된 근본적인 의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주민 등록 번호의 유지 여부에 대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04-0106]

01 위 대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 ㄱ.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대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회자와 대담 참여자가 격식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ㄴ. 매체 수용자가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체 수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ㄷ.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의사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의 시청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 ㄹ. 매체의 메시지 전달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활용하여 대담 참여자와 시청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04-0107]

02 위 대담의 [장면 1]~[장면 5]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은 한 화면에 대담 참여자와 대담 주제를 제시하여 시청자가 대담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② [장면 2]는 대담 참여자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화면에 제시하여 시청자가 대담 참여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③ [장면 3]은 대담 참여자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화면에 제시하여 시청자가 대담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④ [장면 4]는 대담 참여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를 화면에 직접 제시하여 대담 참여자가 주장한 내용의 타당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장면 5]는 대담의 주제를 다시 화면에 제시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대담의 주요 내용을 환기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2004-0108]

03 <보기>는 위 대담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이다.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신 박사님과 강 연구원님의 주장이 모두 흥미로웠어. 그렇지만 주장에 포함된 개념이나 대안으로 제시한 보안 인증 방식이 모두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어. 다양한 사람들이 시청하는 텔레비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시청자 중에는 나처럼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 같아.”

- ① 문자 언어, 그림,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방송 내용에 대한 매체 수용자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청자의 수준을 고려한 정보 전달 방안이 필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매체의 수용자가 개인적 수준에 따라 매체가 전달한 정보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매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에 할애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매체 수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04~05] 다음은 뉴스 진행자의 논평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짜 뉴스’ 거짓 정보나 특정한 의도에 따라 조작된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법안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생산하여 악용한 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가짜 뉴스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러한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법률 제정과 함께 소급 적용을 통한 가짜 뉴스의 엄벌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지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지지를 표하며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짜 뉴스 유포에 가담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함.’과 같은 발언을 통해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 경제 연구소가 지난 201×년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연간 30조 900억 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언론 진흥 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를 3만 5948개로 추정했고, 이 가운데 1%가 가짜 뉴스라고 가정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스 당사자가 받는 피해 금액은 22조 7700억 원(개인 5400억 원, 기업 22조 2300억 원),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 3200억 원이었습니다.

[22004-0109]

04 위 논평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안 도입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대 측의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고 있군.
- ② ‘가짜 뉴스’ 처벌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논평에서 인용한 누리꾼 의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겠군.
- ③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던 보고서의 발간 시기를 고려하면 제목의 ‘30조 원’은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은 수치일 수 있겠군.
- ④ 진행자가 논평에서 소개한 법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가짜 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모든 ‘가짜 뉴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군.
- ⑤ 진행자는 논평에서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옹호하고 있을 뿐,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군.

[22004-0110]

05 위 논평을 들은 학생이 학교의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고 할 때, <보기>를 고려하여 세운 글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목적: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주장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도 조사하여 정리한 글을 작성함.
- 독자 분석: ‘가짜 뉴스’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개인별로 관심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
- 활용 매체: 학교 신문, 학교 누리집의 게시판

- ① 찬반 입장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논거를 대비하여 균형 있게 제시한다.
- ②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려운 개념은 고등학생의 인식 수준이나 이해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③ 학생들의 관심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 ④ 학교 누리집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누리집에는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 ⑤ 두 가지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찬성 측 주장은 학교 신문에, 반대 측 주장은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하여 각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01~03] 다음은 연주회 관련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면 1]

(화면에 촬영 스튜디오가 배경으로 보이며, 'TV로 만나는 문화 공연'이라는 프로그램명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타난다. 배경 음악이 흐른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월에 새로운 연주회로 만나게 될 첼리스트 김○○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면 2]

(연주자의 이름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타난다.)

연주자: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주회를 통해서 찾아뵙지 못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첼리스트 김○○입니다.

[장면 3]

진행자: 네, 저희도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연 문화가 많이 위축되었었는데요, 이제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연주자: 맞습니다. 연주를 관람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공연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입장에서 무대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주회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연주회는 어떤 곡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연주자: 네. 이번 연주회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으로 연주곡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비발디의 「사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면 4]

(연주회 소개가 화면에 나타난다.)

바흐와 비발디로 만나는 바로크의 밤 연주회

- 일시: 202×년 3월 2일 오후 8시
- 장소: △△홀
- 주최: □□신문

프로그램 소개

바흐 (J. S. Bach)	무반주 첼로 모음곡 모음곡 1번 G장조, BWV 1007 모음곡 3번 C장조, BWV 1009	18분 22분
비발디 (A. Vivaldi)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Op.8 No.1, E장조, RV. 269 '봄' Op.8 No.2, g단조, RV. 315 '여름' Op.8 No.3, F장조, RV. 293 '가을' Op.8 No.4, f단조, RV. 297 '겨울'	42분

[장면 5]

진행자: 그렇군요. 오랜만에 만나는 바로크 음악이네요. 바로크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크 음악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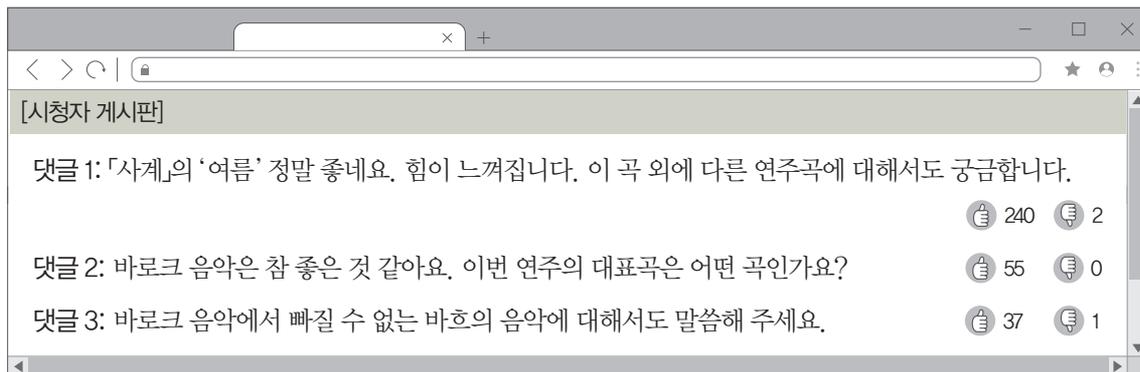
연주자: 네. 바로크 음악은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한 음악 양식을 말합니다. 바로크 음악은 근대 음악의 기초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발디의 음악에는 락 음악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잠깐 비발디의 「사계」 연주 실황 중에 ‘여름’ 1악장을 들어 보실까요?

[장면 6]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1악장 연주 실황 영상이 나온다.)

[장면 7]

진행자: 흥미롭네요. 정말 강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그럼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실시간 댓글을 살펴본 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눠 보죠.

**[장면 8]**

진행자: 올라온 댓글을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느껴집니다.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연주회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주자: 네.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바흐가 쾨텐 궁정의 악장이었던 시절에 쓴 곡으로, 음악가로서의 바흐가 한참 전성기일 때의 작품이지요. 당시 서른다섯 살 때였는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중년에 이르러 이른바 ‘결작의 숲’에 들어서곤 하는데, 바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의 바흐를 대표하는 기악곡이라 할 수 있는 이 곡의 별미는 화성입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여러 대의 첼로가 동시에 연주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중음 주법이 수시로 등장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중음 주법이란 바이올린, 첼로 등의 현악기에서 두 현 또는 그 이상의 현의 음을 동시에 내는 주법을 말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모음곡 중에서도 특히 3번에서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바흐가 전해 주는 첼로 선율의 황홀함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연주회가 더 기대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은 연주로 음악 애호가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연주회장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004-0111]

01 다음은 위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한 방송 연출 계획이다. 위 인터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장면	방송 연출 계획
1	방송 처음 화면에 프로그램명 자막을 제시하고 배경 음악을 삽입 ㉠
2	연주자를 소개할 때 시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주자의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 ㉡
5	바로크 음악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도표 제시 ㉢
6	비발디 음악을 시청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연주 실황 영상 제시 ㉣
7, 8	인터뷰 내용에 대해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자 게시판의 실시간 댓글 질문을 살펴본 후, 진행자가 댓글과 관련된 질문 제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12]

02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각 자료를 구성할 때에는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중 중요한 정보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보아야 한다.

- ① 연주회 일시를 부각하기 위해 연주회 일시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주최 기관은 연주곡에 비해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③ 연주회의 제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주곡의 작품 번호를 상세히 제시한 것이겠군.
- ④ 프로그램 소개에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왼쪽부터 작곡가, 연주 소요 시간, 연주곡의 순서로 제시한 것이겠군.
- ⑤ 연주회와 관련된 여러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연주회의 제목, 일시, 장소, 주최 기관,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겠군.

[22004-0113]

03 다음은 위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시청한 후,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진: 민서야, 혹시 아까 내가 한번 보라고 했던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 봤니? 여기 파일을 보면 지난번 음악 동아리 활동 주제가 바로 바로크 음악이었는데 말이야. [동아리 활동 모음.hwp](http://www.△△△.hwp)

민서: 응, 맞아. 나도 그 인터뷰 봤는데 비발디의 「사계」가 참 좋더라. 그래서 '여름' 말고 다른 부분도 검색해서 들어 봤어. <http://www.△△△.kr> 여기서 들었는데 너도 한번 들어 볼래?

현진: 우아, 나도 「사계」를 더 듣고 싶었는데. 좋아 좋아 ㅎㅎ 정말 고마워. ^^ 「사계」의 '여름'을 들어보니까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비발디의 음악에는 락 음악적 특징이 있다고 한 설명에 나도 공감이 가더라. ☺ 그리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꼭 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서: 나도 여러 대의 첼로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처럼 들린다는 중음 주법이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지더라고. 이번 연주회에 대한 인터넷 기사도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중음 주법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

현진: 응.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에서 특히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하니 까이 곡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까?

민서: 좋은 생각이야. 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찾아볼게.

현진: 아, 여기 있네. 이 곡을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ㅋㅋ <http://www.□□□.kr>

현진: 우아, 빨리 찾았구나. 고마워.

- ①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소개된 비발디 음악의 특징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표현하였다.
- ②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 ③ 대화 중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설명한 중음 주법이 잘 드러나는 연주곡을 찾아보았다.
- ④ 한글의 특정한 자음자를 활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와 관련된 연주곡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 ⑤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의 내용과 연주회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이번 음악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구성한 후 공유하였다.

[04~05] 다음은 학생 발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현대 문학의 감상’ 주제 발표를 위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책으로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어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많이 읽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영상 매체라 할 수 있는 영화 「소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소설에 비해 영화를 보신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군요. 순수한 사랑을 그린 소설 「소나기」가 영화화되면서, 영화 「소나기」에는 매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담겼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보시면, 자료는 「소나기」 소설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을 영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먼저 영화 촬영에 활용된 스토리보드를 함께 살펴보시죠.

[A]

<p>#1</p> 	<p>#2</p> 
<p>개울가 풍경이 화면 전체에 보이고, 개울가에 나타난 소년의 얼굴이 화면 중앙에 잡힌다. 어딘가 허전한 얼굴.</p>	<p>어느 날, 소년은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개울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있다.</p>
<p>#3</p> 	<p>#4</p> 
<p>소년은 세수를 한다.</p>	<p>소년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검은 얼굴을 들여다본다.</p>
<p>#5</p> 	<p>#6</p> 
<p>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몇 번이고 움킨다.</p>	<p>소녀가 개울을 건너오고 있다.</p>

<p>#7</p> 	<p>#8</p> 
<p>이를 보고 소년이 당황한다.</p>	<p>소년이 달린다.</p>
<p>#9</p> 	<p>#10</p> 
<p>소년의 한 발이 물속에 빠진다.</p>	<p>소년은 코피를 흘려 내면서 메밀밭으로 달려 나간다.</p>

잘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영화 촬영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개울가의 풍경과 물속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시나요?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 보면, 이야기의 구성은 유사하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먼저 소설 「소나기」에서는 서술자를 통해 표현되었던 것들이 영화에서는 다양한 시·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표현됩니다. 또한 「소나기」를 소설로 읽을 때에는 장면의 여러 부분을 독자가 상상하면서 읽지만, 영화에서는 상상의 영역이 연출의 영역으로 바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체의 차이에 의해 독자나 시청자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22004-0114]

04 위 발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낯선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소설과 영화라는 각각의 매체를 통해 동일한 작품을 접한 경험을 확인하고 있다.
- ③ 소설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여러 작품을 감상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작품이더라도 활용된 매체에 따라, 학생들의 감상 경험이 다름을 보여 주기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소설과 영화라는 매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심미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05

[22004-0115]

〈보기〉는 위 발표에서 제시한 **자료**이다. 〈보기〉와 [A]를 비교할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졌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짙짙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 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 ① [A]는 〈보기〉와 달리 개울가의 풍경이 그림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보기〉에는 [A]와 달리 소년이 물속의 얼굴을 움키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보기〉에는 [A]와 달리 소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난 후의 소년의 내면이 서술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보기〉에는 [A]와 달리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소년의 심정이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상상하도록 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에는 모두 소녀가 나타난 후에 당황해하는 소년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01~03] 다음은 광고를 주제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광고는 상품이나 정보를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매체 자료입니다. 광고는 수용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수용자와 생생하고 풍부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광고에서 사용되는 문자 언어의 특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광고의 문자 언어는 첫째,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참신한 표현으로 수용자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면서도 재치 있는 표현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오래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고에 사용된 문자 언어를 통해 광고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표현이 지니는 심미적 가치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광고를 봐 주세요.

구분	(가)	(나)	(다)
공익 광고			
광고에 실린 문구	P해 가지 않게 P해 주세요 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 차량이 5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SNS를 멈추지 않으면 당신이 멈추게 됩니다 교통사고 원인 1위 '운전 중 스마트 폰 사용'

선생님: 이 세 광고는 큰 틀에서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학생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사용된 표현 방식도 서로 다르지요? 광고에서 활용되는 문자 언어의 표현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가)~(다)의 광고에 사용된 문구의 표현 방식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기
- ㉡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 ㉢ 서로 비슷한 글귀를 짝지어 표현하기

선생님: 또한 광고에서는 광고 문구와 같은 문자 언어 외에도 광고가 전달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소리, 음성, 이미지, 몸짓, 공간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영상 광고는 장면마다 시각 이미지는 물론 배우나 성우의 음성 언어, 또는 인물의 행위와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품이 활용되기도 하고, 문자 언어로 자막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면서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풍부하게 전달하여 수용자의 감각적·정서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22004-0116]

01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처벌의 측면에, (나)와 (다)는 보상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② (나)는 차량이 주행하는 상황에, (가)와 (다)는 차량이 주차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자의 경계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③ (다)는 운전자 본인이 처할 위험에, (가)와 (나)는 타인이 처할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④ (가)와 (나)는 개인이 입을 피해에, (다)는 집단이 입을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부주의한 행동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⑤ (가)와 (다)는 어른의 시선에, (나)는 어린이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004-0117]

02 (가)~(다)의 광고 문구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에 따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피하다의 ‘피’와 영어 알파벳 ‘P’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는 ‘P해 가지 않게’와 ‘P해 주세요’를 짝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는 ‘도로 위의 어린이’를 ‘빨간 신호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는 ‘교통사고 원인’을 ‘스마트폰 사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는 ‘SNS를 멈추지 않으면’과 ‘당신이 멈추게 됩니다’를 짝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03

[22004-0118]

다음은 텔레비전 광고의 일부이다. 위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장면들의 의미 구성 방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영상: 두 갈래 길 표지판 모습 자막 및 음성: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 뒤로 스쿨버스 앞을 끼어드는 승용차 모습 자막 및 음성: 방심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영상: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 뒤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모습 자막 및 음성: 안심은 조심조심을 외칩니다.
#4	#5	#6
		
영상: 공사장 철제 구조에 풀린 나사 모습 자막 및 음성: 방심은 반칙을 좋아하고,	영상: 안전모를 쓴 공사 인부들 모습 자막 및 음성: 안심은 원칙을 좋아합니다.	영상: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남녀의 모습 자막 및 음성: 방심은 기분을 따르고,
#7	#8	#9
		
영상: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의 모습 자막 및 음성: 안심은 기분을 따릅니다.	영상: 차 안에서 두 갈래 길 표지판을 바라본 모습 자막 및 음성: 지금 우리 안의 마음은	영상: 차 안에서 안전띠를 매는 아이의 모습 자막 및 음성: 방심인가요? 안심인가요?

- ① #1에서 제시한 두 갈래 길 표지판의 시각 이미지를 #8에서 다시 제시하여 방심과 안심이라는 우리 안의 ‘두 마음’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2의 좌측과 #3의 우측에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을 배치하여 서로 다른 상황이 같은 구역에서 일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5에서 자막 및 음성에 담긴 내용과 상반되는 모습의 인물을 보여 주어 수용자가 장면에 담긴 메시지를 추측하도록 하고 있다.
- ④ #6과 #7에 헬멧의 착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인물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대비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9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인물의 행위를 통해 암시하여 수용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4~05] (가)는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받은 이메일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 방송



스팸 메일 판단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진행자: 평소 메일로 전송된 광고를 보고 이것이 스팸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은 메일로 전송된 광고성 정보가 스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전송되는 광고들은 겉보기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광고성 정보가 스팸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와 관련된 광고성 정보 중에서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스팸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에 따라 여러분이 메일로 받은 광고성 정보 중 스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 메일에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스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사전에 동의했다면 수신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전송자가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 보시고 동의한 적이 없다면 스팸으로 보면 됩니다. 또한 수신에 동의했다더라도 다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성 정보가 담긴 메일 안에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방법에 따라 본문 내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스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해 둔 경우는 스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 학생이 받은 이메일

보낸 사람: 어여쁨 쇼핑 <shop@eoyeoppeum.com>
 받는 사람: 박△△ <xxxx@dream.com>
 제목: (광고) 7월 소식지 - 여드름 피부를 위한 효과적인 세안 비법 공개

안녕하세요 회원님! 어여쁨 쇼핑입니다.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여드름 피부라면 주목해야 할 7월 신상품
피부 진정 클렌징 『○○ 크림』

(※ 주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여드름 염증 완화 기능 탁월!”

㉠ ○○ 크림은 여드름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 크림에 함유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염증을 낮게 하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보충해 주어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피부, 관절액, 연골, 눈물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량의 물과 결합하는 특성을 지녀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합니다. 우측의 [표]는 ○○ 크림과 자사의 기존 제품인 A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의 종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 크림	A 제품
트리클로산	함유	미함유
히알루론산	함유	미함유
살리실산	함유	함유
비타민 C	함유	함유

㉡ [표] 제품의 성분 종류 비교

“무농약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천연 화장품!”

에센셜 오일이란 방향성 약용 식물의 꽃, 뿌리, 열매, 줄기 등에서 추출하는 오일입니다. 식물 특유의 향을 가진 천연 식물성 오일로 살균, 진정, 이완 등의 효능이 있으며 끈적임이 없이 산뜻해서 의약품, 화장품, 향수뿐만 아니라 아로마 세러피에도 활용됩니다. ○○ 크림은 무농약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천연 화장품이므로 피부의 살균과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출처: © ◇◇ 뷰티 블로그)

㉢ ○○ 크림은 까다로운 품질 관리 기준을 거쳐 생산됩니다. 벌써부터 효과를 보았다는 회원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제품 구입 바로 가기(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후기]

- 김××(10대, 남):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2주 쯤 봤더니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 이××(30대, 여): 그동안의 클렌징 제품들과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축축할 수가 있죠? ⑤
- ↳ 최××(20대, 여): 여드름 피부를 위한 화장품이 축축하기까지 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년 ××월 ××일 기준으로 회원님의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신 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e-mail, please click [unsubscribe]
 어여쁨 쇼핑(shop@eoyeoppeum.com) ××시 ××구 ××길 1 ☎1000-0000[무료]

[22004-0119]

04 (가)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학생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용한 소식처럼 보이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겠군.
- ② 본문에 제시된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정확한 정보라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이겠군.
- ③ 광고가 목적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이겠군.
- ④ 사전에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면 본문에 정보 수신 동의에 따른 발송임을 고지했으므로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이겠군.
- ⑤ 수신 거부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본문 내에서 수신 거부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이겠군.

[22004-0120]

05 <보기>를 고려하여 (나)의 정보 전송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상업 광고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사실을 부풀려 수용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용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에 는 광고에서 제시한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광고에서 제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광고에 누락된 정보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은 없는지, 특정한 대상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은 없는지가 있다.

- ① (a)의 제품의 기능성을 공식적인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사실이 있나요?
- ② (b)는 화장품의 성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인가요?
- ③ (c)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④ (d)의 품질 관리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나요?
- ⑤ (e)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요?

[01~03] (가)는 종이 신문의 기사이고, (나)는 학생이 (가)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면 2022년 *월 *일 *요일

사회

제2454호 ©© 신문

‘실시간 검색어 순위’ 폐지된 지 벌써 1년, 어떤 것이 바뀌었나?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 적어 이점 많아… 폐지로 불편하다는 입장도 여전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던 장수 서비스였다. 2005년 점유율 높은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른 이슈 제공과 사회 문제 공유, 여론 형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비중 있는 서비스가 되어 가면서 조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광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졌다. 그래서 2020년 B 포털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A 포털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폐

지하였다.

A 포털마저 서비스를 폐지하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불필요한 정보를 접할 필요가 없어 편해졌다는 입장과 화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불편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자가 인터뷰한 결과, 누리꾼들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했다. B 포털 이용자인 누리꾼 김○○ 씨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 적응이 되었다. 사실 남들이 왜 이 단어를 검색했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검색어를 클릭하게 되는 면이 있었는데 불

필요한 정보를 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편한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누리꾼 박△△ 씨는 “여전히 너무 불편하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대중의 의견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그런 창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의 폐지로 부작용에 대한 여러 논란이 함께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지녔던 순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기자 good@xxxx.com

지난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 ‘심각’

전문가 “감축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시각적 연구 대부분 사업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하지 못한 사실은 노력이 있었지만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도 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환경부 주관하는 정부의 정책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시각적 연구에서 가장 많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은 20%에 그치는 실정임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기자 good@xxxx.com

□□시 폐교를 활용한 ‘안전 교육관’ 개관

□□에서 새로운 문화의 안전 교육관을 개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관으로 1인 1명당 맞춤형 안전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기자 good@xxxx.com

(나)



[22004-0121]

01 (가)와 (나)의 매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기사의 배치와 분량을 달리하여 정보의 중요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② (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정보를 수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첨부하여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22004-0122]

02 (나)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뉴스의 특성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이 함께 제시되므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겠네.
- ② 정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사가 노출되는 순서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겠네.
- ③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겠네.
- ④ 기사가 작성된 일자가 다양하므로 기사들을 비교해 화제에 대한 언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네.
- ⑤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기사의 제목을 수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겠네.

[22004-0123]

03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언론사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정하고 그중 어떤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문제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뉴스를 생산해 보도한다. 이는 뉴스를 본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뉴스에 담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게 한다. 이러한 뉴스의 기능을 '의제 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는 뉴스에서 다루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점을 부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뉴스를 통해 언론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간파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의 '◎◎ 신문'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의 부작용을 제시한 것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폐지된 배경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 ② (나)의 '□□일보'가 지하철 지연 사건을 기사에 언급한 것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나)의 '☆☆ 방송'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가짜 뉴스 문제와 관련지어 다룬 것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가)의 '◎◎ 신문'과 (나)의 '◇◇일보'가 누리꾼의 반응을 기사에 제시한 것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 신문'과 (나)의 '△△ 신문'이 기사에 '1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폐지된 1년 후의 변화를 기사에서 다룬 문제로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04~05]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경쾌한 배경 음악과 함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스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는 “스타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짜잔! (장면 외가 송출된다.) 오늘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가수 최○○ 씨를 초대하여 신곡 발표 소식을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최○○입니다. (박수 소리)

진행자: 반갑습니다. 먼저 “스타 데이트”에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최○○: 무척 영광이지요.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스타로 초대를 받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진행자: 요즘 새 앨범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시청자분들께 신곡은 언제 발표되는지와 앨범 발매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최○○: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음원이 공개될 예정인데 긴장이 많이 되네요. 좋은 곡으로 찾아뵙고자 열심히 준비하였고,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집 앨범 『꿈꾸는 낮』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최○○ 씨의 앨범 준비 작업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장면 4)의 동영상이 송출된다.)

진행자: 녹음 작업하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최○○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위기의 곡을 거뜬히 소화하여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곡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에서 녹음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지만, 이번 1집 수록곡들의 콘셉트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최○○: 말씀드렸다시피 제 1집 앨범 제목은 『꿈꾸는 낮』으로, 따스한 햇볕 아래 잠이 든 것처럼 포근한 분위기의 곡들로 앨범을 구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도 이전의 모습보다는 부드러운 동작 위주의 춤들을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행자: 어떤 무대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맛보기로 신곡을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 그럼 1집 대표곡인 「낮잡」이라는 곡을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최○○이 노래를 부른다.)

진행자: 와, 노래가 참 좋네요. 고음 부분에 어우러지는 코러스의 화음이 몽환적으로 느껴집니다. 곡의 분위기가 오늘의 의상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곡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일부러 의상도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네, 신곡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노란색과 파란색 의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팬들께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기도 하고요. 저희 팬클럽 색상도 노랑과 파랑이거든요.

진행자: 팬클럽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럼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오늘의 “스타 데이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팬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곡 많이 들어 주시고 앨범의 다른 곡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최○○이 되겠습니다.

진행자: (경쾌한 배경 음악과 함께) 지금까지 최○○ 씨를 만나 뵈었습니다. 다음 주도 화제의 스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1집 신곡 최초 공개!

[장면 5]



[장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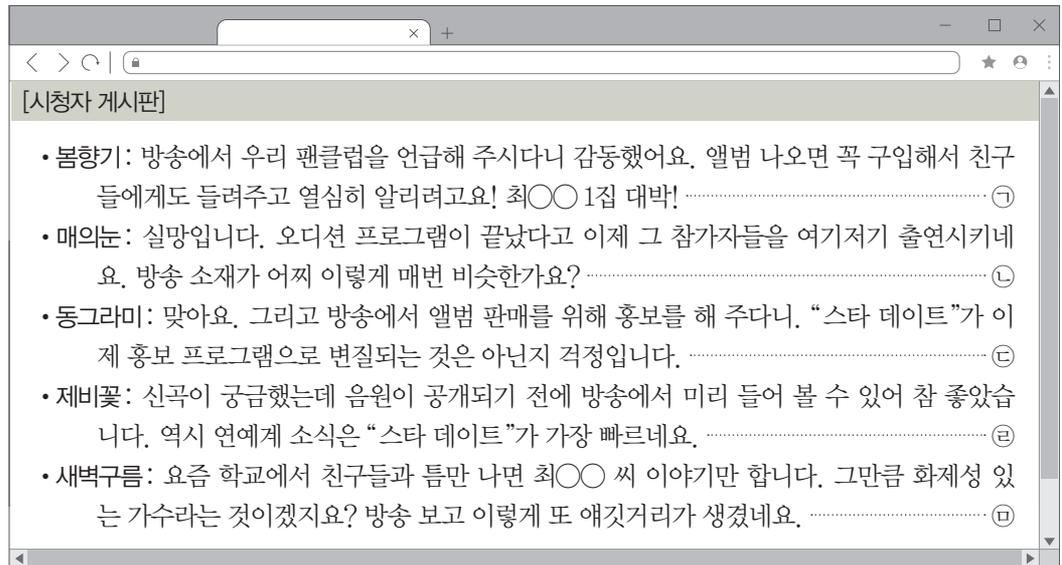
[22004-0124]

04 다음은 위의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출자가 계획한 내용이다. 인터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인터뷰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배경 음악을 넣어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해야겠어.
- ②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할 때 인물을 클로즈업하여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에게 주목하도록 해야겠어.
- ③ 진행자의 발언 중에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던진 질문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④ 인터뷰 대상자가 발언한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시청자에게 인터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겠어.
- ⑤ 스튜디오의 배경에 프로그램의 명칭을 나타내어 시청자가 현재 시청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겠어.

[22004-0125]

05 다음은 위의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 시청자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남긴 댓글이다. 시청자의 반응에 대한 이 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좋아하는 가수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신곡을 홍보하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에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중 매체가 상업적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중 매체가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시청한 방송의 내용을 일상생활의 대화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1~02] 다음은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연락드려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메신저로 문의하려고 해요.

어디에 쓰실 꽃인가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보내 드리려고요.

꽃은 고르셨나요? 저희 가게 누리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링크 좀 보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살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www.△△flower.co.kr 입니다.



이 꽃이 좋아 보여요. ㉡ 누리집에서 보니 가격이 39,900원인데, 깎아 주실 순 없나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미 20% 할인된 행사 가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감사 메시지도 보낼 수 있나요?

꽃바구니에 다는 리본에 쓰는 방법하고, 꽃바구니에 넣는 카드에 글을 인쇄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본은 15글자까지 가능하고, 카드에 쓰는 글은 글자 수가 아주 많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카드에 글을 인쇄할까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A] □□□ 선생님.
승현이와 진수예요.
저희를 많이 아껴 주신 것 감사해요.
졸업하고 나서야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려요.
지혜와 사랑을 보여 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해요♡~.

이 정도면 카드 안에 다 들어가겠네요. 글자체나 디자인 따로 준비하신 것 있나요?

예, 준비해 둔 것이 있어요. 이걸로 할게요. ㉢ 스승의 날 카드.hwp

알겠습니다.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꽃집 바로 앞 ○○ 중학교 교무실이에요.

받으실 분 성함은요?

□□□ 선생님이요.

몇 시까지 배달해 드릴까요?

㉠ 아, 오전까지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계좌로 송금했어요.

아, 확인했어요. 그럼 주문하신 대로 꽃을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2004-0126]

0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물리적 거리의 제약에 따라 소통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 ② ㉡: 실감 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적 이미지와 음성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언어 표현의 의미를 보완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제공한 문서에 수신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다.
- ⑤ ㉤: 참여자의 상호 작용에 제약이 있어 의사소통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2004-0127]

02

[A]의 문자 언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간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표현이다.
- ② 발신자가 '꽃'을 통해 표현하려는 의도를 언어로 구체화한 것이다.
- ③ 인쇄물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④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를 활용하여 수신자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신자의 생각과 느낌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즉각성을 보여 준다.

[03~05]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 보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시작으로 단독 주택에까지 의무화되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색이 있는 페트병은 기존 것보다 진한 색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지만, 투명 페트병은 어떤 색으로든 탈바꿈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큰 고품질 원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명 페트병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영상)

환경부 관계자: 1.8리터짜리 투명 페트병 하나면 손바닥 크기만큼의 이불솜 한 봉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고품질 재료를 따로 잘 모으지 못하여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형편인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이런 고품질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나 음료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여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다음 세척하고 비닐 포장지를 제거한 후 찌그러트린 다음 뚜껑을 달아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재활용품 수거 업체 직원: 시민들께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시지만 이렇게 잡물이 섞여 있으면 허사가 되거든요. 포장지가 안 떼어졌거나 음식물이 남아 있거나 색깔이 들어 있는 페트병은 저희 작업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기자: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 주민들도 분리배출이 안 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말도 많습시다.

(인터뷰 영상)

주민: 일부 주민들이 비닐 포장을 안 떼거나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것을 버리고 가는데, 홍보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페트병 포장을 열심히 떼려고는 하는데, 떼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자: 한국 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품 용기 자체의 특징도 페트병 분리수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영상)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중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원료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



업체 직원: 잡물이 섞여 있으면 허사가 되거든요



아파트 분리배출 장소



주민: 포장지 떼기가 너무 어려워요

소비자원 관계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보니, 각 가정에서의 혼합 배출도 문제이지만, 제조 단계에서 페트병에서 분리해 내기 쉽지 않은 다양한 재질의 포장을 붙이는 것이나 투명 플라스틱 재질에 색을 첨가하는 것 등이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기자: 따라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영상)

전문가: 물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품을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겠지요.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방식으로 제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만 재활용을 강조하면 재활용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기자: 자원 재활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각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기업,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제품 생산 단계에서 개선 필요해

[22004-0128]

03 <보기>를 참고하여 위 보도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의 특징은 정보 제공의 속도, 개방성, 방향성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보 제공의 속도 면에서 정보를 제공하자마자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수용자에게 정보가 지연되어 전달되는 매체가 있다. 정보 유통의 개방성 면에서 어떤 매체는 특정 수용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는 데 반해, 어떤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 유통의 방향성 면에서 어떤 매체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 일방향적인 반면, 어떤 매체의 소통은 쌍방향적 성격이 강하다.

- ① 제공된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해지는 속도는 인쇄 매체보다 느리다.
- ②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시점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빨라진다.
- ③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
- ④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수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
- ⑤ 다양한 인물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쌍방향 소통의 정도가 높다.

[22004-0129]

04 <보기>와 관련지어 위 보도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매체 자료에 반영된 관점과 가치를 파악하고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점검해 보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매체 자료의 출처는 어디이며, 생산자는 누구인가?
- 매체 자료의 내용은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 생산자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 강조하거나 드러내려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약화하거나 다루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가?
- 매체 자료의 내용은 누구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가?

- ① 이 보도는 방송사에서 보도 담당자들이 제작한 것이군. 이 방송사와 보도 담당자들이 평소
에 공신력 있는 보도를 해 왔는지 살펴봐야겠어.
- ② 기자는 분리배출의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했군.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한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 ③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시민들에게서만 찾지 않고 재활용품 수거 업체
나 용기 제조 기업에서도 찾았군. 균형 잡힌 관점을 갖고 보도하려는 노력이 보여.
- ④ 재활용품 배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의 분리배출 과정에서 생
기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이로 볼 때, 이 보도의 초점은 전반적인 재활용 분리배출이 아
니야.
- ⑤ 고품질 원료인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여 해외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려 주고 있군. 투명 페트병 수거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

[22004-0130]

05 다음은 위 보도를 접한 후 학생 자치회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분리해서 배출하지는 의도를 살려야 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의 ‘분리배출’ 앞에 ‘별도’를 추가해야겠어.
- ② 보도에서 지적한 일회용품 제조 단계의 문제는 이 포스터의 주제와 맞지 않아 다룰 수 없겠어. 대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QR 코드를 ㉡의 자리에 제시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자.
- ③ 학생들에게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에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라는 문구를 넣자.
- ④ 변경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 좌측에 제도 시행 전의 배출 방법을 나타낸 그림과 화살표를 제시하여 제도 시행 후의 배출 방법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자.
- ⑤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순서를 고려할 때 그림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아. ㉤를 왼쪽의 첫 번째 그림과 맞바꾸어야 해.

[01~03] (가)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에서 나눈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민지가 작성한 스토리보드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휴대 전화 메시지

대화방 (4명)

민지 { 애들아, 이번에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졸업식장에서 상영할 축하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영수 { 각자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할 것 같아. 영상 제작을 하려면 기획, 촬영, 편집 등이 필요하니까. }

철준 { 맞아. 촬영은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장비를 가진 사람부터 확인해야 해. }

수민 {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영상 촬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화질도 얼마나 좋다고. 내가 어제 찍은 영상 보내 볼 테니 화질 한번 확인해 봐. 첨부 파일: 일상 영상.avi }

철준 { 정말 화질이 좋네. 이 정도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겠다. 그런데 화질만 좋은 게 아니라 영상 촬영도 수준급인 것 같은데? 수민이가 촬영 맡으면 되겠다. }

민지 { 나도 찬성. 그런데 수민아, 스마트폰으로 편집도 가능해? 촬영한 사람이 편집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

수민 { 좋아, 촬영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할게. 그런데 편집은 어려울 것 같아. 스마트폰에 있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 보려 했는데 기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편집 화면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더라고.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민지 { 그러면 컴퓨터에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 사람 있어? }

영수 { 우리 집 컴퓨터에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평소에 편집도 많이 해 보았으니까 내가 할게. }

민지 { 좋아. }

철준 { 그럼, 난 뭘 하지? }

민지 { 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줘. 영상을 제작하려면 배경 음악이 필요하잖아.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봐. 그리고 졸업 축하 영상에 선배님들의 재학 중 사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구할 수 있을 거야. }

철준 { 알았어. 그런데 졸업 축하 영상이니까 축하 멘트를 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 }

민지 { 응. 선생님들께서 축하 멘트를 해 주시면 좋지. 네가 축하 멘트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겠어? }

철준 < 수민이랑 같이 해 볼게. 그런데 지금 말한 것 말고도 자료를 준비하다가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더 추가해도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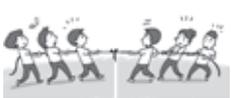
민지 < 물론이지. ㉠ 자료는 많을수록 좋아. 회의에서 논의한 것 외에 어떤 자료라도 좋으니 준비해 봐.

철준 < 좋았어. 열심히 자료를 찾아볼게.

영수 < 그런데 민지야. 영상을 제작하려면 스토리보드가 생명인데 그걸 누가 할지 안 정했다.

민지 < 응. 그건 내가 맡을게. 그리고 일단 스토리보드 초안을 만들어 올 테니까 다음 회의 때 같이 수정해 보자.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 다들 안녕!

(나) 졸업 축하 영상 스토리보드 초안

장면 번호	장면 스케치	장면, 카메라, 화면 등에 대한 설명	대사, 배경 음악, 자막
S#1		2학년 후배 여학생이 텅 빈 3학년 교실의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말함.	• 대사: “선배님, 이제 이 의자에 앉을 일은 다시 없겠죠?” • 배경 음악, 자막: 없음.
S#2		화면을 둘로 분할하여 왼쪽 화면에는 선배들의 입학식 사진을 보여 주고, 오른쪽 화면에는 텅 빈 3학년 교실의 모습을 보여 줌. 여학생의 대사와 함께 왼쪽 화면이 점차 커지면서 화면 전체가 됨.	• 대사: “선배님, 지난 시간이 기억나세요? 우리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 볼까요?” •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연주곡 • 자막: 없음.
S#3		S#2의 선배들 입학식 사진에 이어 체육대회 사진, 학교 축제 사진 등을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 줌. 이때 앞의 사진과 뒤의 사진이 서로 겹치면서 화면이 전환됨.	• 대사: 없음. •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연주곡 • 자막: 없음.
S#4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차례대로 나타남.	• 대사: 선생님들의 축하 멘트 음성 • 배경 음악: 산뜻한 느낌의 연주곡 • 자막: 선생님들의 축하 멘트를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함.
S#5		아무도 없는 빈 교정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 주다가 점차 화면이 어두워짐.	• 대사: 없음. • 배경 음악: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 자막: ‘선배님! 저희들이 열렬히 응원합니다!’라는 자막을 화면 중앙에 글씨 크기를 크게 하여 넣음.

01

[22004-0131]

(가)에서 졸업 축하 영상 제작을 위해 학생들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마트폰 영상 편집이 가진 장단점
- ② 졸업 축하 영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 ③ 졸업 축하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역할 분배
- ④ 영상을 촬영할 기기와 세부적인 촬영 방법
- ⑤ 졸업 축하 영상의 재생 시간과 영상을 상영할 매체

02

[22004-0132]

‘민지’가 (나)를 만들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에서 한 여학생이 3학년 교실의 의자에 앉아 선배들이 졸업하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대사를 해야겠어.
- ② S#2에서 화면 분할 기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어 졸업하는 선배들의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야겠어.
- ③ S#3에서 선배들의 재학 중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을 제시할 때 배경 음악으로 잔잔한 느낌의 연주곡을 삽입하여 선배들이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④ S#4에서 선생님들의 축하 멘트 장면에 자막을 추가함으로써 축하 멘트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⑤ S#5에서 선배들을 격려하는 문구를 화면 중앙에 크게 나오게 함으로써 졸업하는 선배에 대한 후배들의 마음을 강조해야겠어.

[22004-0133]

03

㉠에 따라 준비한 <보기>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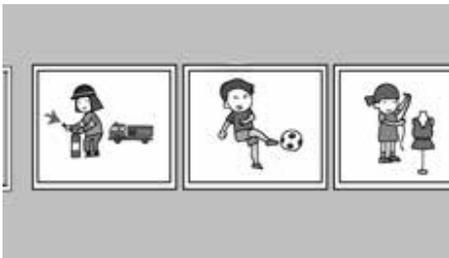
[A] 동영상 자료

- (1) 체육 대회에서 선배들이 이어달리기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 (2) 후배들이 응원 도구를 들고 선배들의 졸업을 열렬히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B] 사진 자료

- (1) 선배들의 체험 학습 활동을 담은 사진들
- (2) 교정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들



[C] 음악 파일

-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연주곡



- ① S#3에 [A]-(1)을 추가로 제시하여 선배들의 모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 ② S#3에 [B]-(1)을 추가로 제시하여 선배들 재학 시절의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낸다.
- ③ S#3의 선배들 사진 사이사이에 [B]-(2)를 계절 순으로 삽입하여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 ④ S#4의 배경 음악을 [C]로 교체하여 화면의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한다.
- ⑤ S#5의 화면을 [A]-(2)로 교체하여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04~05]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동아리 소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오늘은 여러분이 동아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동아리의 부장들이 나와 동아리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은 교내의 복도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아리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아리의 소개 시간은 5분이며, 소개가 끝난 후 1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배부한 자료의 내용을 보고 온라인 예절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행 동아리부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동아리 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동아리 부장 ○○○입니다. 우리 동아리 이름은 ‘무동력 세상 탐방’으로, 줄여서 일명 ‘무세탐’이라 부릅니다. 우리 동아리는 이름처럼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여행하는 모임입니다. (채팅 창에 링크로 된 주소 하나를 띄우며)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이곳은 우리 동아리의 블로그입니다. 여기 가시면 그동안 우리 동아리에서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창을 살짝 본 후) 지금 우리 동아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 동아리 소개를 이어 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은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약 20km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마을에서 찍은 것입니다. (채팅 창을 보며) 사진 속 마을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이 마을의 이름은 ◇◇ 마을입니다. 산수유가 아름답게 피는 마을로 유명해서 봄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사진 네 장을 보여 주며) 자, 이 사진들은 우리 동아리의 활동 모습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채팅 창의 설문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며) 역시 다들 바닷가를 좋아하시는군요. 여행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바다죠. 탁 트인 바다가 주는 시원함은 어디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으니까요. (채팅 창을 보다가 깜짝 놀라며)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원래의 사진을 이상하게 변형해서 올리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바닷가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닷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어떠신가요?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패들보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멋있죠? 참, 동영상은 잘 보이시나요? (채팅 창을 보며)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잠시 후)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의 소리 크기를 키우지 않았었네요. 이제는 잘 들리시나요? (채팅 창을 보며)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올리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행조아’님께서 올리신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sr진’과 ‘식사’는 무슨 말일까요? (채팅 창을 보며) 아, ‘사진’과 ‘식사’라는 뜻이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식사하는 장소가 멋있는데, 그 장

소가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사진 속 장소는 ××산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멋진 곳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셋별’님께서 올리신 질문에 답변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증공만 한 바퀴 돌아도 숨이 찰 만큼 체력이 좋지 않은데 무동력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증공’이 뭘까요? (채팅 창을 보며) 아, ‘증공’이 ‘중앙 공원’이라는 뜻이군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웃음) 아무튼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시면 여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력을 키우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행 동아리 소개를 마칩니다.

선생님: 네, 여행 동아리 부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팅 창을 보니 중간에 동아리 부장이 실수한 것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너무 심한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행동이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22004-0134]

04 <보기>는 선생님이 사전에 배부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 중에서 동아리 소개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긴 온라인 예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우리가 지켜야 할 온라인 예절>

- ㉠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문법과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신조어나 줄임말 사용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35]

05 여행 동아리 부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아리를 소개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소개하는 도중에 채팅 창을 확인하여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어.
- ② 특정한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한 후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설명할 내용을 정해야겠어.
- ③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으니, 내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준비하여 동아리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겠어.
- ④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제시된 자료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자료의 내용을 수정해야겠어.
- ⑤ 하이퍼링크를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니, 우리 동아리의 블로그 주소 링크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의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시인: 좋아요. 시 낭송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시 낭송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시 낭송이 끝난 후) 와! 작가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시를 쓰신 분이 직접 낭송해 주시니까 시의 내용이 귀에 쫄쫄 들어오네요.

○○ 시인: 화면에 띄운 시화도 시의 내용과 잘 어울려 좋았어요. 학생들의 숨씨가 대단하네요.

사회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전에 부탁드린 대로 작가님의 서재를 잠시 보고 싶은데요. 서재에 어떤 책이 있는지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 시인: 알겠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제 서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사회자: 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과학,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네요. 문학 작품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시나 봅니다.

○○ 시인: 그럼요, 어느 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으세요.

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시간입니다. 작가님은 언제부터 시를 좋아하셨나요?

○○ 시인: 중학교 수업 시간에 운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가 어찌면 한 사람의 영혼을 뒤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저도 그런 전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설문 조사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질문이고,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시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 시인: 저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많이 관찰합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도 보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 기구를 타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한 후 그 모습을 시 속에 담아내곤 합니다.

사회자: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시인: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학창 시절부터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집에 와서 일기로 쓰곤 했는데, 그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저도 평상시 친구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학교 학생이 직접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창에 작가님의 시 「하루」에 대해 질문을 올린 학생이 있는데, 직접 작가님께 질문해 주세요.

□□□ 학생: 작가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시 「하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시의 끝부분에 나타난 ‘나는 노을 속으로 걸어갔다’는 표현을, 저는 이상향을 향해 나아간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나요?

○○ 시인: 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군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네요.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다만 시란, 시를 발표한 순간 시인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어떤 표현의 의미는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시의 구절들을 자신이 직접 해석하고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나요?

□□□ 학생: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략)

01

[22004-0136]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를 할 수 있어.
- ② 학생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어.
- ③ 인터뷰 내용을 사회자가 요약하여 정리해 줄 수 있어.
- ④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
- 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인터뷰 장면을 볼 수 있어.

02

[22004-0137]

다음은 온라인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계획한 내용이다. (나)의 온라인 인터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인터뷰 대상자에게 시 낭송을 부탁하고 학생이 만든 시화를 화면에 보이게 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시 낭송을 인상적으로 나타내야겠어.
- ㉡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직접 여쭙봐야겠어.
- ㉢ 인터뷰 대상자와 학생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팅 창에 질문을 올린 학생을 지목하여 그 학생이 직접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후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자의 서재를 볼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인터뷰 내용에 반영해야겠어.
- ㉤ 인터뷰가 진행되는 방에 학생들이 접속할 때 닉네임 대신 학번과 이름을 쓰도록 해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익명의 누군가가 아닌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38]

03

다음은 한 학생이 (나)의 온라인 인터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기 위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이다. (나)와 관련하여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p>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 시인을 온라인으로 만나다.</p> <p>30101 정민</p>	<p>1. ○○ 시인에 대한 소개</p> <p>▶ 시인 약력 1998년 시 「행복」으로 등단 2002년 ‘△△△ 문학상’ 수상</p> <p>▶ 시인의 창작 경향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주로 창작함.</p> <p>○○ 시인의 시 낭송</p>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p>2.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p> <p>시인의 서재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p>   <p>“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p> <p>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음. ⇒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방법</p>	<p>3. 인터뷰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p> <p>▶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p> <p>시란 발표한 순간 시인의 손을 떠나는 것이므로, 시의 의미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임을 새롭게 알게 됨.</p> <p>▶ 일상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p> <p>평소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이 없었는데 시인의 말을 듣고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p>

- ① <슬라이드 1>은 제목을 통해 (나)가 온라인 인터뷰 상황이라는 점과 시인이 주로 다루는 제재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슬라이드 2>는 (나)에서 사회자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를 낭송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슬라이드 3>은 (나)에서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시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말풍선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슬라이드 4>는 (나)에서 시인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깨달은 점을 각각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⑤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4>는 두 슬라이드의 배치 순서 및 각 슬라이드 내의 내용 배치에 있어 (나)의 인터뷰의 진행 순서를 따르고 있다.

[04~05] 다음은 학생 기자가 지역 인터넷 신문에 제시한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역 인터넷 뉴스]
(7) 230. 7. 댓글 23

Ⓛ 기사 입력: 2022.03.××. 17:20, 최종 수정: 2022.03.××. 20:32

주변 이웃을 위해 노래 부르는 풀꽃 앙상블

- 매주 노인 요양 시설을 찾아가 노래로 마음을 치유해

우리 주변의 뛰어난 학생 동아리를 찾아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 「청소년이 미래다」의 세 번째 주인공은 △△고등학교의 음악 동아리인 ‘풀꽃 앙상블’이다. 총 21명으로 이루어진 이 동아리는 개교 때 결성되어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전통이 깊은 동아리이다.

‘풀꽃 앙상블’은 매주 주말이면 학교 근처에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 드린다. 같은 노인 요양 시설을 매번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방문하는 곳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모든 어르신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노인 요양 시설과 협의하여 노래를 들을 신청자들을 정하고, 그분들께 노래를 불러 드리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여 부르기 때문에 호응이 매우 높다.

‘풀꽃 앙상블’이 노래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10년 전부터이다. 동아리 지도 교사인 박△△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동아리 학생 중 한 명이 노인 요양 시설에 봉사 활동을 가서 말동무가 되어 드렸는데, 하루는 어르신이 너무 심심해하셔서 노래를 한 곡 불러 드렸다고 한다. 그 노래를 들은 주변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크게 좋아하셔서 그다음 주에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그것이 ‘풀꽃 앙상블’이 노래 봉사를 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박△△ 선생님은 “1년에 40회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많이 가는데, 최근엔 지역 아동 센터에도 몇 번 갔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동아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아리 부장인 조□□ 학생은 “매주 노래를 부르러 나가는 것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저희들의 노래를 듣고 행복해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조□□ 학생의 인터뷰 영상

점점 인정이 메말라 가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 동아리 ‘폴꽃 앙상블’은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폴꽃 앙상블’ 같은 봉사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좀 더 살 만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치유하는 ‘폴꽃 앙상블’이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폴꽃 앙상블’이 운영하는 블로그(<https://blog.○○○.com/ensemble/252874>)를 방문하면 동아리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 이○○ 학생 기자

☞ 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 기사]

- ㉕ 우리 주변의 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벽화 그림 동아리 ‘청소년 벽화 화가’
-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동아리 ‘낭독하는 천사’

[댓글 23]

삶의지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니 대단하네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 내가제일: 맞아요. 저도 절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누군가: 기자님, ‘폴꽃 앙상블’ 블로그 주소가 이상한가 봐요.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 ㉕ 이○○ 학생 기자: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했으니 이제는 잘 될 거예요.

↳ 누군가: 네, 이제는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22004-0139]

04 ㉑~㉕을 통해 인터넷 신문 기사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기사 내용에 대한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② ㉒: 기사 내용이 잘못되어 바로잡아야 할 경우 정보 생산자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③ ㉓: 정보 생산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④ ㉔: 정보 수용자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사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
- ⑤ ㉕: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2004-0140]

05

학생 기자가 위 인터넷 신문 기사를 쓰면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사의 제목에 ‘폴꽃 앙상블’의 주요 활동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부제를 통해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보여 주어야지.
- ② 기사의 본문에 ‘폴꽃 앙상블’의 역사와 함께 동아리명에 얽힌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지.
- ③ 기사의 본문에 ‘폴꽃 앙상블’이 노래 부르는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 ④ 기사의 본문에 ‘폴꽃 앙상블’의 동아리 부장과 인터뷰한 동영상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 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폴꽃 앙상블’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로 제시하여 ‘폴꽃 앙상블’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01~03] 다음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서쪽 하늘에 크게 빛나는 별을 보셨나요?
목성과 토성이 4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 육안으로는 거의 하나의 별처럼 겹쳐 보이는 ‘대근접’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소식
○○○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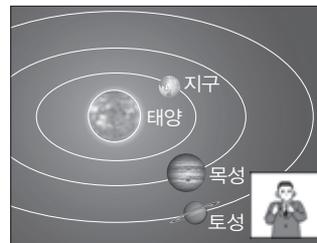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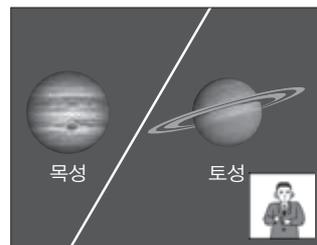
기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아름답고 큰 띠를 가진 토성이 오
늘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하나의 별처럼 보였
습니다. 이 천문 현상을 대근접이라 부릅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12년, 토성은 30년으로 두 행성은 거의 20년만
다 가까워지는데 이번에는 0.1°의 영역 안에서 가까워져 맨눈으로 보
면 거의 하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국립 △△과학관 □□□ 박사: 이 둥글고 아주 밝은 원이 목성의 모습이고
요, 여기 타원형이며 고리가 살짝 보이는 것이 토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은 400년 만에 관측되고 있는 실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기자: 두 행성의 대근접은 지난 1623년 이후 처음이지만 당시에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 지구에선 관측이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측이 가능
한 건 사실상 1226년 이후 거의 800년 만입니다.

오늘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은 △△과학관, ◇◇천문대 등 여
러 기관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목성과 토성
의 다음 대근접은 60년 이후에나 관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22004-0141]

01

〈보기〉는 위 뉴스 보도에 제시할 화면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한 내용이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 화면의 우측 하단에서 수화로 보도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특정 수용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 진행자가 기사를 부른 후 전환된 장면에서 기사를 보여 줌으로써 누가 보도하고 있는지 밝혀 준다.
 ㉢ 목성과 토성이 근접하는 현상을 보여 줄 때는 그래픽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보도 내용 중 핵심 내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 전문가의 발언 시 그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을 화면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42]

02

〈보기〉는 위 뉴스 보도를 본 ‘철수’와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본 ‘민희’의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 ㉡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철수: 어제 텔레비전 뉴스 봤니? 부모님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에 대한 보도를 하더라고.
 민희: 난 뉴스는 못 봤지만, △△과학관에서 진행한 ㉡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우주쇼’라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시청했어. 며칠 전부터 소식 듣고 기다렸거든. 어제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는지 초반에는 네트워크 상태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졌어.
 철수: 그랬구나. 근데 난 좀 아쉬웠던 게 뉴스 보도 내용이 3분밖에 안 됐고, 보도 시점도 대근접이 이미 끝난 뒤라 뉴스를 보고 밤하늘을 봤더니 대근접은 이미 끝났더라고.
 민희: 그래? 인터넷 생중계는 대근접 두 시간 전부터 긴 시간 동안 진행했어. 진행하는 박사님의 친절한 설명도 좋았지만, 접속한 사람들이 모두 천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분들과 우주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도 재미있었어. 또 대근접 시점에는 방송으로 천체 망원경에 비친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지.
 철수: 으아, 아쉽다. 나도 인터넷 생중계로 볼 걸 그랬네. 그런데 뉴스에서 잠깐 천체 망원경에 비친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생각보다 희미하고 작아서 아쉽더라. 과학 시간에 본 영상에서 목성과 토성은 선명했는데 왜 그런 거지?
 민희: 나도 그게 궁금해서 생중계를 진행하는 박사님께 여쭙어 보니, 지상에 설치된 천체 망원경으로는 한계가 있대.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 본 크고 선명한 사진은 우주에 설치된 허블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에서 찍은 거라고 하시더라.

- ① ㉠와 ㉡는 모두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군.
 ② ㉡는 ㉠와 달리 시청자 간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했군.
 ③ ㉡는 ㉠와 달리 사건 발생 시점에 즉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군.
 ④ ㉠는 ㉡와 달리 진행 중에 시청자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해 주지 못했군.
 ⑤ ㉠는 해당 채널을 선택한 사람들이, ㉡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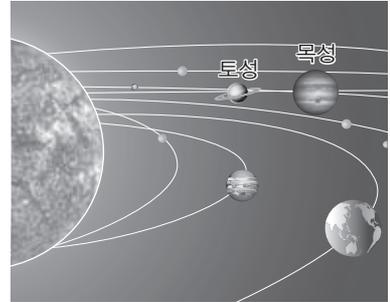
[22004-0143]

03

〈보기〉는 학생이 위 뉴스 보도를 보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본 자료이다. 학생이 해결하고자 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지구 등의 행성이 태양 둘레를 공전하면서 지나간 궤적을 면으로 이어서 평면으로 생각한 것이 공전 궤도면이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여러 행성의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는 서로 다르다. 목성(1.31°)과 토성(2.49°) 역시 그러하므로, 두 행성이 20년마다 가까워진다고 해도 매번 거의 하나의 별처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니다. 두 행성이 공전 궤도면까지 가까운 곳에서 일직선상에 놓여야 거의 하나의 별처럼 겹쳐 보일 수 있다.



- ① 목성과 토성의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는 왜 서로 다를까?
- ②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시 둘 사이의 실제 거리는 얼마나 될까?
- ③ 목성과 토성의 다음 대근접은 왜 20년 뒤가 아니라 60년 뒤일까?
- ④ 목성과 토성이 거의 20년마다 가까워지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 ⑤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은 왜 태양에 가까우면 관측이 어려울까?

[04~05]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축과 문화’ 시간입니다. ○○○ 박사님을 모시고 건축과 문화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게시판에 이용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강수량 차이가 건축의 차이를 낳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사: 그렇죠. 강수량이 많고 집중 호우가 내리는 동아시아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나무를 중심으로 한 목조 건축이 발달한 반면, 강수량이 적은 서유럽은 비가 고루 내려 지반이 단단하므로 무거운 돌을 중심으로 한 석조 건축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자: 지반이 약한 동아시아 지역은 목조 건축이, 지반이 단단한 서유럽 지역은 석조 건축이 발달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나무와 돌이라는 주된 건축 재료의 차이가 두 지역의 건축의 특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박사: 돌로 지은 건물은 벽에 창문을 크게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벽이 지붕을 받쳐야 하는데 창문을 크게 내면 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문이 많지 않고, 창문을 만든다 해도 세로로 긴 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석조 건축이 발달한 서유럽은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폐쇄적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 반면 목조 건축이 발달한 동아시아는 가로로 넓은 창을 많이 낼 수 있으니 개방적인 건축이라는 말씀이겠군요?

박사: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들어열개문이라고 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되던 문이 때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죠.

사회자: 들어열개문이요? 그게 뭐죠?

박사: 여기 이 사진 속의 문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옥을 보면 접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문이 있죠.

사회자: 아, 지금 청취자분들은 사진을 못 보시니까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자면, 한옥에서 문짝을 접고 한쪽을 들어 올려서 처마 밑에 걸어 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들어열개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목조 건축이 발달한 동아시아는 이처럼 내부와 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건축을 중시하게 된 거네요. 와! 자연적 조건인 강수량이 건축과 문화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네요.

박사: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 매력적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녹아 있거든요.

사회자: 저도 ○○○ 박사님과 함께 ‘건축과 문화’ 시간을 진행하다가 건축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축과 문화’를 듣고 계십니다. 박사님, 그밖에도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강수량 차이가 둘의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이 또 있을까요?

박사: 강수량이 많은 동아시아는 벼농사를 주로 짓고, 강수량이 적고 서늘한 서유럽은 밀 농사를 주로 지었습니다. 이것이 집단을 중시하는 동양과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의 문화 차이를 낳은 이유 중의 하나라

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벼농사는 관계 수로 등의 공사나 모내기 등이 필요하므로 집단으로 노동할 일이 많지만, 밀 농사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회자: 아, 그러니까 집단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벼농사는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에, 개인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밀 농사는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사: 맞아요. 물론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는 무수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농사 형태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럼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문화 차이가 반영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사: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문화 차이가 동서양의 대표적인 게임인 바둑과 체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둑의 돌들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다른 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돌을 놓는 위치도 격자의 내부가 아니라 격자가 만나는 교차점 위죠. 반면 체스의 말들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고 각자의 말들이 움직이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말을 놓는 위치도 격자의 내부입니다.

사회자: 동서양을 대표하는 바둑과 체스에도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과 개체를 중시하는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축과 문화’ 시간이었습니다.

[22004-0144]

04 위 대담에 나타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담 내용에 대한 청취자의 질문을 뽑아 청취자를 대신하여 질문하고 있다.
- ② 사진을 볼 수 없는 청취자들을 위해 사진 속의 대상을 말로 설명해 주고 있다.
- ③ 출연자와 프로그램명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사회자가 이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 ④ 연속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시작할 때에 지난 시간에 박사와 나누었던 대담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⑤ 주로 듣기에 의존해야 하는 청취자들이 대담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박사의 말을 요약해 주고 있다.

05

[22004-0145]

다음은 위 대답을 들은 청취자들이 청취자 게시판에 남긴 의문들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게시판]

청취자 1: 동아시아에도 돌로 지은 건축물이 있고 서유럽에도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건축을 각각 목조 건축, 석조 건축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취자 2: 동양의 대표적인 게임을 바둑이라고 했는데, 동양에는 바둑 말고 장기도 있지 않나요? 장기는 오히려 체스와 유사한데 장기에도 동양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청취자 3: 강수량의 차이가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주된 건축 재료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서유럽에 많이 분포한 대리석이 동아시아에 많이 분포한 화강암보다 가공하기가 쉬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청취자 4: 서유럽의 창 모양을 벽이 지붕을 받쳐야 하는 석조 건축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했는데, 그럼 동아시아의 창의 모양은 목조 건축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어 있나요?

청취자 5: 벽과 문이 없는 우리의 '정자'도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을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① '청취자 1'은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주된 건축 재료에 대한 박사의 견해에 의문을 드러내며, 건축 재료가 건축의 특징과 관련 있다고 보는 박사의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 ② '청취자 2'는 바둑을 동양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보는 박사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바둑에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박사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청취자 3'은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주된 건축 재료의 차이를 초래한 이유에 대해 박사가 제시한 것과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취자 4'는 서유럽의 창 모양과 석조 건축의 특성을 관련짓는 박사의 말에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그 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 ⑤ '청취자 5'는 대답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서유럽 건축보다 동아시아 건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박사의 견해를 옹호하고 있다.

[01~03] 다음 라디오 인터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문화 초대석'입니다. 요즘 ○○○ 작가님이 쓰신 책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작가님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작가: 네, 안녕하세요. 제 보잘것없는 책에 과분한 관심 보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행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직접 인사해 주시죠.

작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입니다.

진행자: 청취자 게시판에 청취자분들이 작가님 멋있다고 야단이지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작가님과의 질의응답, 작가님이 선정하신 그림책 소개, 청취자 퀴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아이들 그림책을 소재로 책을 쓰게 되셨나요?

작가: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림책은 아이들이 인생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책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느끼고 경험하기에 첫 경험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은 아이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진행자: 요즘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영상이 굉장히 흔한 시대잖아요. 부모 대신 책 읽어 주는 스마트 펜이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요. (카메라를 향해 스마트 펜을 꺼내 보이며) 이렇게 생긴 펜을 스마트 펜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해 드리면, 그림책의 글자 위에 이 펜을 대면 녹음된 목소리가 나와 해당 부분을 읽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작가님 책을 읽어 보니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작가: 기술의 발달로 요즘 아이들은 30년 전의 아이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모들에게 그림책 읽어 주기를 권합니다. 그림책을 읽어 주는 순간만큼은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시간에 읽은 그림책은 아무리 평범한 내용이라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진행자: 결국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해 볼게요. 어떤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작가: 그림책을, 자신이 할 말을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궁금한 이야기를 해 주는 책,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속 이야기를 말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을 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지만 정답이 정답이라고 깊게 느끼기 위해선 아이가 스스로 의문을 품어야 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드는 일이고, 그 시간을 누군가 천천히 따라가 줘야 합니다. 그때 아이 곁을 책이 지켜 준다면 아이는 책과 친구가 됩니다. 따라서 좋은 그림책은 저절로 아이의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그림책입니다.

진행자: 가장 좋은 책은 부모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책이라는 거군요. 저도 제 아이에게 어떤 책을 골라 줘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작가님이 책

의 뒷부분에 각 연령대에 맞는 그림책을 추천해 놓으셨으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 네,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가장 읽고 싶어 하는 책들 중 해당 나이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선정해 본 것입니다.

진행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청취자들을 위해 작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그림책 「윤지의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작가님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로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 작가님이 목소리 연기까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작가: 네, 쑥스럽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진행자 낭독 시작, 화면에는 그림책이 비치고 있음.)

진행자: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나무 하나씩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윤지도 자신이 키울 나무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윤지는 그 나무에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나무만큼 잘 크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작가: (아이 목소리로) 넌 왜 이렇게 안 크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속상하다, 정말!

진행자: 윤지는 답답한 마음에 시시때때로 물을 주고 온갖 흙을 퍼 와서 나무를 덮어 주었습니다.

작가: (아이 목소리로) 자, 물도 많이 주고 흙도 덮어 줬으니 이제 진한이 나무보다, 민지 나무보다 훨씬 더 크는 거다. 약속!

진행자: 그런데 나무는 그럴수록 점점 색이 얼어져 가고 더 아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속이 상해 한참을 울던 윤지는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가: (아이 목소리로) 선생님께서 나무 중에는 원래 키가 작고 꽃이 늦게 피는 나무도 있다고 하셨어. 그런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흙을 많이 덮어 주면 오히려 잘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야.

진행자: 그때부터 윤지는 그 나무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늦기는 했지만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였습니다. 윤지는 기뻐했습니다.

진행자: 작가님, 목소리 연기까지 하며 읽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청취자 퀴즈입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이 그림책을 읽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하, 역대 최고 난도에 당황하고 계실 청취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께서 직접 힌트를 주시겠습니다.

작가: 방금 읽어 드린 「윤지의 나무」는 이 시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아까 ‘어떤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한 저의 답변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자: 네, 힌트는 거기까지만!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게시판에 정답 많이 올려 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04-0146]

01 위 라디오 인터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청취자 게시판을 활용하여 청취자들의 의문 사항을 대신 질문하고 있다.
- ② 배경 음악을 활용하여 소개하는 책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③ 인터뷰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소리로만 전달되는 라디오 인터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청취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인터뷰의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 ⑤ 작가는 귀로만 듣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 목소리 연기를 통해 내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22004-0147]

02 다음은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청취자 퀴즈의 답변들이다. 작가의 힌트를 고려할 때 정답에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한 사람은?

보이는 라디오 '문화 초대석' 청취자 게시판

〈청취자 퀴즈 정답을 올려 주세요〉

고모댁: 부모의 변덕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데미안: 정답! 부모가 자녀의 고집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은쪽이: 저요, 저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삐약이: 부모가 자신의 욕심과 자녀의 욕심을 절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ㅋㅋ

금방울: 부모가 자녀를 잘 파악해야 자신의 의도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 ① 고모댁
- ② 데미안
- ③ 은쪽이
- ④ 삐약이
- ⑤ 금방울

03

[22004-0148]

〈보기〉는 위 프로그램에 대해 비평하는 방송 중 일부이다. 청취자들의 의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방송 진행자: 지난 7월 4일에 방송된 보이는 라디오 ‘문화 초대석’은 요즘 부모님들의 필독서로 알려진 한 책의 저자 ○○○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그림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청취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죠.

- “그동안 아이에게 책 읽힐 때 스마트 펜을 많이 애용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했어요. 그런데 작가님 쓰신 책의 제목이나 출판사 등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아 아쉬웠어요.” (‘주니’님의 의견)
-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좋을지 막막했는데 이번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책만 읽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아이는 책 고르라고 하면 그림 많고 웃긴 책들만 고르거든요.” (‘독서광’님의 의견)
- “책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 줄 때보다 제가 직접 읽어 줄 때 아이가 훨씬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예전에 읽은 책에서는 책을 읽은 뒤 아이와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든지, 책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하는 등의 독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새침이’님의 의견)

- ① ‘주니’는 ‘독서광’과 달리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주니’와 ‘새침이’는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주니’는 ‘새침이’와 달리 방송 내용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 ④ ‘독서광’과 ‘새침이’는 자신의 아이를 기준으로 방송 내용에 반응하고 있다.
- ⑤ ‘새침이’는 ‘독서광’과 달리 방송 내용을 자신의 독서 경험과 관련짓고 있다.

[04~05] (가)는 학생이 공익 광고의 전략에 대해 찾아본 자료를 요약한 것이고, (나)는 공익 광고의 포스터와 광고 문구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공익 광고의 행위 유도 및 억제 전략〉

1.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 활용 전략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거나 문제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전략. 문제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싶을 때는 수용자의 공포감을 자극하기도 함.

2. 언어적 은유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전략

은유적으로 진술된 언어적 메시지를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제시하는 전략

3. 광고의 수용자를 '당신'이라 칭하는 전략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광고를 보고 있는 수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전략

4. 문장 차원의 전략

1) 평서문 활용

공익 광고에는 평서문이 가장 많이 활용됨. 평서문을 사용하여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만 실제로는 어떤 것을 단언함으로써 강한 설득을 하는 방법임.

2) 명령문보다 청유문, 의문문을 활용

공익 광고에는 명령문보다 청유문이나 의문문이 많이 활용됨. 명령문은 수용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감을 주는 데 반해, 청유문이나 의문문은 수용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권고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음. 명령문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 메시지보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전략을 활용할 때임.

(나)

㉠	㉡	㉢
		
<p>빠지는 건 순간</p> <p>도박은 당신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 더 나은 삶을 주지 않습니다.</p>	<p>당신을 지키는 '히어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p> <p>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일상화합시다.</p>	<p>한 번 쓰고 버리시겠습니까?</p> <p>비정규직 600만 시대,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의 능력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p>

[22004-0149]

04 (가)를 읽고 (나)의 ㉠~㉢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 ㉢과 달리 수용자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은 ㉠, ㉢과 달리 억제하려는 문제 행위가 표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은 ㉢과 달리 수용자를 '당신'이라 칭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 ④ ㉡, ㉢은 ㉠과 달리 각각 청유문과 명령문을 통해 바람직한 행위를 권고하고 있다.
- ⑤ ㉠, ㉡, ㉢은 모두 언어적 은유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제시하고 있다.

[22004-0150]

05 <보기>는 학생이 기존의 ‘급식 줄서기 캠페인’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가)를 참고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수정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문제 상황

이전의 ‘교내 식당 앞 한 줄 서기 캠페인 문구’가 아이들에게 지나친 거부감을 주었음.

• 이유 분석

명령형 문장과 줄을 서지 않으면 쥐게 될 부정적 결과를 부각하는 전략이 거부감을 준 것이라 생각됨.

• 수정 방향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명령형 문장을 지양할 것, 문제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부각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여 듣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 줄 것.

- ① 당신이 오늘 무시한 식당 앞 그 줄, 당신 양심에 빨간 줄로 새겨집니다.
- ② 식당 앞 한 줄 서기는 식당 앞 소음과 혼잡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③ 한 줄 서기에 쓴 당신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 ④ 한 줄 안 서는 당신이 끌어내린 우리들의 공공 예절 수준,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 ⑤ 한 줄 서기는 우리가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할 줄 아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01~02] (가)는 답사 동아리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만든 촬영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 수원 주변 답사에서는 답사 영상을 제작해 보면 어떨까? 이전에는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곤 했는데, 생각해 보니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답사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학생 2: 응,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동아리 발표회에서 답사 영상을 상영하면 답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보다 친구들의 호응도 좋을 것 같아.

학생 3: 맞아.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답사에 대해 추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생생한 장면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

학생 1: 좋아. 그럼 우리 이번 답사에서는 답사 영상을 제작해 보는 것으로 하자. 먼저 어떻게 영상을 구성해야 할지 계획을 한번 의논해 봐야겠는데.

학생 3: 시작 장면은 답사 당일 아침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구성해 보면 어떨까?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좋고, 답사를 시작하는 설렘이 잘 표현될 것 같아서 말이야.

학생 2: 좋은 생각이다. 답사 당일의 아침 풍경을 영상의 시작으로 하고, 계획한 답사 일정에 따라서 답사 공간이 바뀔 때마다 인상 깊은 영상을 남겼으면 좋겠어.

학생 1: 그렇다면 영상 촬영의 순서도 답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네. 제일 먼저 수원 화성 일대를 답사하고, 이후에는 ○○ 미술관을 가기로 했었지?

학생 2: 맞아. 다음에는 수원 근처에 있는 용건릉을 살펴보기로 했고, △△ 수목원이 마지막 코스야. 미술관이나 수목원에 갔을 때에는 그림과 꽃들을 근접 촬영하여 생생하게 담아내면 좋겠어.

학생 3: 그래. 그리고 수원 화성이나 용건릉을 답사할 때에는 카메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동선과 중요한 유적지가 잘 담기게 말이야.

학생 1: 좋아. 그리고 미술관을 들른 후에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까 점심을 먹는 장면도 짧게 촬영해 보면 좋겠어. 우리들의 즐거운 추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3: 나도 찬성이야. 답사 영상은 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미도 있지만 소중한 추억의 기록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영상에 어울릴 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해 보면 어떨까? 마지막 장면에는 자막으로 답사에 참여한 동아리 친구들의 이름과 후기도 넣어 보고 말이야. 그리고 영상의 중간중간에 대화 내용도 적절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도전하는 일이지만 답사 영상 촬영이 웬지 잘될 것 같다. 그리고 답사 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주요 내용은 자막이나 내레이션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아.

학생 1: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회의 내용을 반영해서 촬영 계획을 만들어 볼게. 다음 회의에서 촬영 계획에 회의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나) 답사 영상 촬영 계획

장면	화면 구성	자막, 내레이션	대화, 배경 음악
1	답사 당일 아침 풍경	‘2022년 답사 영상’ 자막으로 제시	출발을 준비하는 대화, 아침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
2	수원 화성의 유적지	주요 유적지에 대한 소개를 내레이션으로 제시	잔잔한 배경 음악
3	○○ 미술관의 그림들	그림의 제목과 간단한 소개를 자막으로 제시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
4	동아리원의 점심 식사 장면	‘모두가 즐거운 점심 식사’ 자막으로 제시	점심 식사 중 대화, 경쾌한 배경 음악
5	용건릉의 유적지	주요 유적지에 대한 소개를 내레이션으로 제시	잔잔한 배경 음악
6	△△ 수목원의 꽃들	꽃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를 자막으로 제시	풍경에 적합한 배경 음악
7	답사 종료 후 인사	동아리원의 이름과 간단한 후기를 자막으로 제시	밝은 분위기의 배경 음악

[22004-0151]

01 (가)에서 영상 제작을 계획하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상 촬영의 순서
- ② 영상 촬영 후의 편집 일정
- ③ 영상에 어울릴 만한 배경 음악
- ④ 영상의 시작 장면과 마무리 장면
- ⑤ 촬영 대상에 적합한 카메라 촬영 기법

[22004-0152]

02 (가)를 바탕으로 (나)의 장면 1~7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에서는 답사를 시작하는 설렘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선택하고, 답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구성하려고 하는군.
- ② 장면 2와 5에서는 동선과 유적지가 잘 담기도록 카메라가 학생들을 따라가며 촬영하고, 주요 유적지에 대한 소개는 내레이션으로 제시하려고 하는군.
- ③ 장면 3과 6에서는 그림과 꽃이 생생하게 보이도록 근접 촬영을 한 후, 그림과 꽃의 소개는 자막으로 제시하려고 하는군.
- ④ 장면 4에서는 점심 식사 장면을 통해 답사에 참여한 동아리원의 모습과 추억을 담아내려고 하는군.
- ⑤ 장면 1~7의 순서는 답사 일정에 따라 배치한 것이라 할 수 있군.

[03~05] 다음은 '한국 건축의 특징'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면 1]

(‘TV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명과 강연자의 이름이 화면 하단에 나타난다. 배경 음악이 흐른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입니다.

[장면 2]

(표가 화면에 제시된다.)

여기 표를 보시면 ‘채 분화’와 ‘실(室) 분화’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공간 구성 방법에 따라 채 분화와 실 분화 건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 분화는 단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된 채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므로써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체의 기능을 충족하는 공간 구성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에 실 분화는 한 채 혹은 적은 수의 건물이 동시에 다양한 공간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단위 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실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공간 구성 방법을 말하지요. 한국 전통 건축은 전반적으로 채 분화의 특성이 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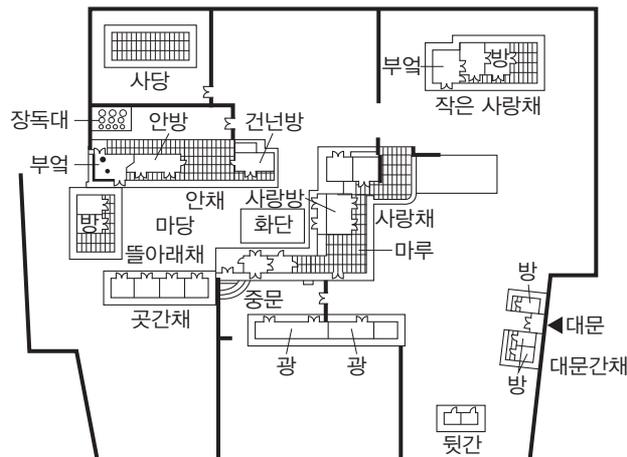
[장면 3]

(소수 서원의 영상이 화면에 제시된다.)

여기 소수 서원을 보시면, 여러 독립된 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숙사(宿舍)라는 하나의 기능을 지니는 독립된 채들이 모여 건축 군을 형성함으로써 서원이라는 완성된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여러 유형의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주택은 채 분화의 특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실 분화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장면 4]

(평면도가 화면에 제시된다.)



〈고택 평면도〉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안채, 사랑채, 곳간채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간 구성은 채 분화의 특성에 속합니다. 반면에 안채는 안방, 건넌방, 부엌 등의 실로 나뉘어 있지요, 이것은 실 분화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건축은 실 분화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채 분화의 특성을 강하게 지닙니다.

[장면 5]

조선 시대의 유교 사상은 채 분화에 영향을 미쳐, 남녀 공간의 구별과 상하 관계에 따른 공간의 위계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엄격한 구별로 인해 폐쇄적인 여성의 공간인 안채와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를 분리하여 배치한 것이지요. 또한 아들이나 손자가 머무는 작은 사랑채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는 웃어른이 사용하는 사랑채보다는 작은 규모로 배치됨으로써 공간의 위계성을 보여 줍니다.

[장면 6]

(그림이 화면에 제시된다.)

이 그림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외부 공간인 마당은, 각각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면서도 건물 또는 다른 마당과 유기적인 공간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대청은 마당과 접하고 있는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청과 마당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유기적인 공간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건물과 마당 사이에 설치한 마루는 경계가 불분명한 완충 공간으로, 마당과 건물 내부 사이의 유기적인 공간 관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유기적 관계는 인간, 건축물, 외부 공간 등이 교차되는 부분인 상호 관입(相互貫入)적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며, 동시에 공간 상호 간의 이질적 성격을 약화합니다. 또한 채 분화를 통해 형성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외부 공간은 개개 건물이 지니는 평면상의 한계를 보완하는데요, 즉 외부 공간인 마당과 여러 건물의 공간이 겹쳐 보이도록 배치함으로써 독립된 개별 건물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깊이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 7]

그럼 이제 댓글을 확인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중에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좋겠네요.

(댓글이 화면에 제시된다.)

[댓글] 서양 건축에도 한국 건축에서 나타난 상호 관입적 공간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지요?

[장면 8]

서양 건축에서도 상호 관입적 공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 화면에 제시된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죠. 이것은 20세기의 위대한 건축가로 손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벽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입구와 각 실에서 바로 연결되는 독립적인 테라스가 보이실 텐데요, 그는 이러한 중간 영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간 영역이란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있는 영역으로, 그는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와 닿아 있는 중간 영역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이렇듯 서양의 건축물에서도 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상호 관입적 공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 재미있었나요? 채 분화의 특성을 지닌 한국 전통 건축의 공간은, 여러 채의 건물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배치, 다양한 외부 공간과 개별 건물의 내부 공간의 유기적 관계 등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2004-0153]

03 위 텔레비전 방송 강연을 제작하기 위해 세운 자료 활용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시청자가 채 분화와 실 분화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각각의 개념을 표로 제시해야겠어.㉠
- 채 분화의 특성을 시청자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소수 서원의 영상을 제시해야겠어.㉡
- 한국 건축의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조선 시대 궁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 시청자가 경계가 불분명한 완충 공간인 마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해야겠어.㉣
- ‘상호 관입적 공간’이 낯선 용어이므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건축은 물론, 질문이 있는 경우 서양 건축에 대한 시각 자료도 활용해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54]

04 [A]에 들어갈, 댛글에 대한 강연자의 답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립된 건물이 군(群)을 형성하는 군집성
- ②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분할성
- ③ 개개 건물이 다른 건물과 분리되는 독립성
- ④ 여러 채의 건물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다양성
- ⑤ 공간 상호 간의 이질적 성격을 약화하는 연결성

[22004-0155]

05 위 텔레비전 방송 강연을 바탕으로 할 때, [자료]에 대해 시청자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안채에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한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인 채 분화의 특징을 보여 주는 군.
- ② 사랑채와 안채를 각각 분리하여 배치한 것은 유교 사상이 채 분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작은 사랑채를 사랑채에 비해 작은 규모로 배치한 것은 상하 관계에 따른 공간의 위계성을 보여 주는군.
- ④ 사랑채의 마루, 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은 사랑채와 마루, 마당의 유기적인 공간 관계를 형성하는군.
- ⑤ 안채, 안채와 사랑채 사이 마당 등의 공간이 겹쳐 보이도록 배치하여 개별 건물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깊이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군.

[01~03] (가)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실의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학생 1 ▶ 한국사 모둠 활동 과제를 위해 주제를 정해야 할 텐데, 자유롭게 말해 보자.

학생 2 ▶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극심했다는 내용의 책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조선의 주권과 관련하여 조선 말 국제 정세에 대해 다뤄 보면 어떨까?

학생 3 ▶ 좋은 생각이지만,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내실 있게 발표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만 주권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학생 1 ▶ 나도 그 주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주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루면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도 돼. 그래서 말인데, 특정한 지역이나 인물과 연관 지어서 주권에 대해 다루면 어떨까? 독도를 주제로 삼고, 독도와 관련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잘 모를 만한 인물인 안용복에 대해 발표하는 거지.

학생 4 ▶ 좋은 생각이네. 독도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안용복이 노력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거 같고.

학생 1 ▶ 생각해 보니 나도 그래. 안용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제는 확정됐고, 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할까?

학생 2 ▶ 발표문도 준비해야겠지만, 독도와 관련한 안용복의 행적을 보여 주는 카드 뉴스 형식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 주면 발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학생 3 ▶ 카드 뉴스가 뭐야?

학생 1 ▶ 카드 형식으로 주요 이슈나 뉴스를 보여 주는 거야. 사회 문제에서부터 요리법까지 다양한 주제를 깔끔하게 보여 줄 수 있어서, 요즘 많이 만들어지더라.

학생 2 ▶ 카드 뉴스를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의 링크 주소 보내 줄게. www.*****.com/board_10f98dsf0

학생 3 ▶ 링크 주소의 웹 페이지에서 보니깐 카드 뉴스가 뭔지 알겠다.

학생 2 ▶ 온라인으로 배포할 때는,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첨부하기도 하더라.

학생 4 ▶ 그러면 슬라이드에 독도나 안용복과 관련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발표할 때 바로 보여 줄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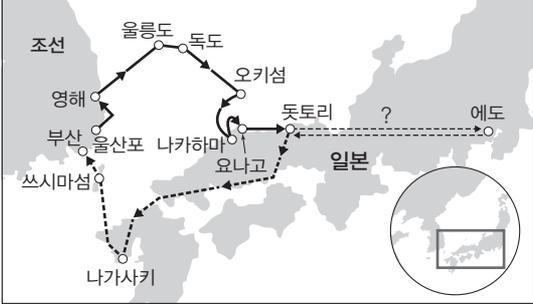
학생 3 ▶ 그러면 정리해 보자. 카드 뉴스 형식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독도와 안용복'을 주제로 발표. 어때?

학생 1 ▶ 좋아. 좋은 자료나 기사를 찾으면 이 대화방에 링크 주소나 파일을 올리기로 하자. 그리고 ㉠ 발표를 위해 제작할 슬라이드와 관련하여 제안할 내용도 이 대화방에 올리기로 하자.

+

전송

(나)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고유한 영토, 독도</p> <p>안용복은 독도를 지켜 조선의 주권을 수호한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용복의 1차 도일 경로</p> <p>1693년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고, 안용복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합니다.</p>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p style="text-align: right;">- 출처: 동북아역사재단</p>	 <p style="text-align: right;">- 출처: 독도박물관</p>
<p>‘죽도(울릉도),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라,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다.’ - 돛토리 번 답변서(1695) 中</p> <p>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 울릉도 영유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대한 도쿠가와 막부의 물음에 돛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돛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p>	<p>‘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 왔지만 향후에는 죽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 - 죽도 도해 금지령(1696) 中</p> <p>이에 1696년 일본 측은 울릉도, 독도에서의 일본인 조업을 금지하는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립니다.</p>

[22004-0156]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예상 청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독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22004-0157]

02 다음은 ㉠에 따라 학생들이 슬라이드 제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슬라이드 1’에는 독도 사진을 제시하고 안용복이 독도를 지켜 조선의 주권을 수호한 인물임을 드러내야겠어. ①
- ‘슬라이드 2’에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여 보여 주어야겠어. ②
- ‘슬라이드 3’에는 인물 간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제시하여 안용복과 도쿠가와 막부 간에 논쟁이 있었음을 드러내야겠어. ③
- ‘슬라이드 2~4’는 역사적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해야겠어. ④
-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4’에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은 우리말로 풀어서 제시해야겠어. ⑤

03

[22004-0158]

〈보기〉는 신문 기사이다. 〈보기〉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울릉도에서 만난 안용복

안용복 기념관, 안용복 선생 및 일본의 독도 침탈 관련 자료 전시

△△ 신문(배포 20××, ××, ×× 11:05:17)

- 출처: 독도박물관



안용복 기념관 앞 광장의 조형물

일본을 찾아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안용복 선생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안용복 기념관은 울릉군 북면에 위치해 있으며, 독도의 주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안용복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교육의 장이다. 기념관 실외에는 안용복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업적을 형상화한 동상[사진 참조]과 도일 과정에서 사용한 판옥선 모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념관 우측의 사당에는 안용복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기념관의 1층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안용복 선생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으며, 2층에서는 안용복 선생의 업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구비된 전시실과 안용복 선생의 행적과 독도의 가치를 알려 주는 4D 상영관을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옥상의 독도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울릉도의 인근 해역과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

- ① 〈보기〉와 〈나〉는 모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보기〉와 〈나〉는 모두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고 사진 속 객관적 수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보기〉와 달리 음성 언어와 영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보기〉는 〈나〉와 달리 특정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 ⑤ 〈보기〉는 〈나〉와 달리 표제와 부제를 모두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04~05] (가)는 인터넷 뉴스 기사이고, (나)는 (가)를 읽은 독자들이 쓴 댓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 세 번 양치질, 잘못하면 치아 마모 유발



- ① 마른 칫솔에 소량의 치약을 묻혀 닦을 것. 다량의 치약이나 물을 묻혀 양치질을 하면 많은 거품이 치아를 골고루 닦는 것을 방해
- ② 치아를 닦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닦기
- ③ 치아 바깥쪽과 혀 닿는 안쪽 면도 꼼꼼하게 닦기
- ④ 세균이 많고 백태가 생길 수도 있는 혀도 반드시 닦기
- ⑤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의 구강 보조용품으로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꼼꼼하게 닦아 주기

㉠ <치아 건강을 지키는 습관>

양치질은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습관이지만, 치과 전문의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무작정 양치질을 할 경우 오히려 치아 마모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치아라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잘못된 양치법으로 인해 법랑질과 상아질이 마모되면 민감성 치아가 될 수 있다. 흔히 이가 시리다 혹은 시큰거린다고 표현하는 민감성 치아가 되면 자연 회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아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바른 양치법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잘못된 양치법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 충치, 균열 등도 민감성 치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양치질로 인한 치아 마모는 바른 양치법을 따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칫솔모가 치아 사이는 물론 치경부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위치시키고, 칫솔모의 끝이 2~3mm 정도 움직이도록 진동하듯 왕복하며 닦는 것이 바른 양치법이다. 하지만 치아 구조상 치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서 칫솔로 관리하기 어려운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순서 또한 중요하다. 보통은 칫솔이 잘 닿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기 쉬운 구강 안쪽의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할 구강 안쪽부터 양치질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강** 치과 전문의는 “치아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에 3번, 빠짐없이 열심히 양치질을 하더라도, 과도한 힘을 가해 수평으로 닦을 경우, 치경부 마모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 기자 (입력 2021.05.××. 13:30 / 수정 2021.05.××. 18:10)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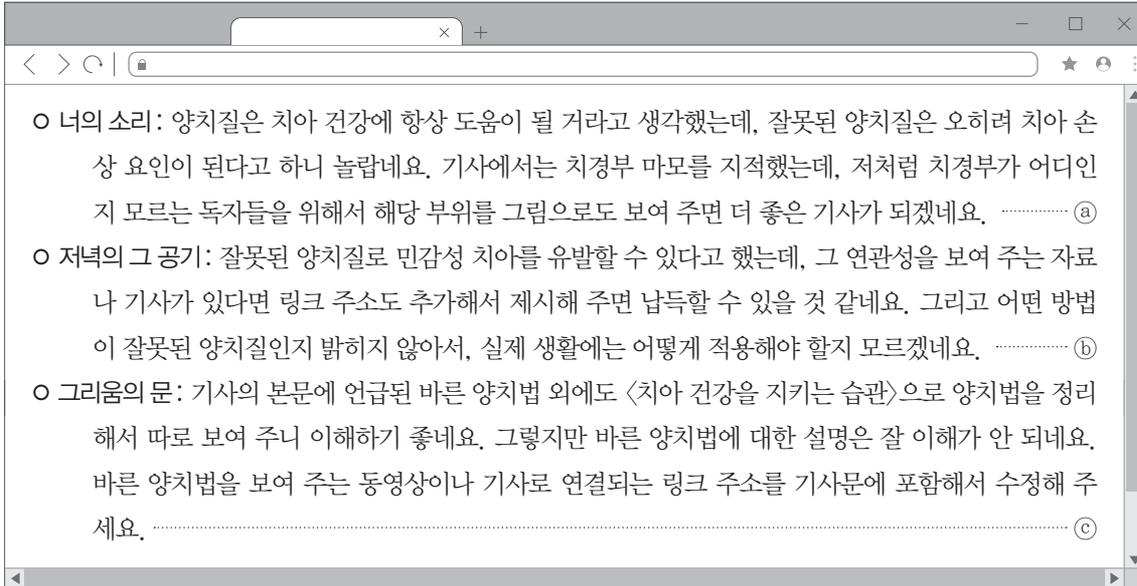
㉣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21	54	2	0	1

‘양치질’ 관련 기사(기사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 ‘쓱쓱쓱’ 양치질로 구강 건강 지키기 약속
- 손상되면 재생 어려운 치아, 올바른 양치질 등 꾸준히 관리해야
- 식후 바로 양치질 해야 한다? 양치질 제대로 알고 합시다

(나)



[22004-0159]

0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사에는 문자 언어 외에도 이미지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는 수정되어 다시 게시될 수 있다.
- ③ ㉢: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기사의 생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읽을 수 있다.
- ④ ㉡: 독자들은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 기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⑤ ㉢: 화제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읽을 수 있다.

[22004-0160]

05 (나)는 (가)를 읽은 독자들이 쓴 댓글의 일부이다. (나)에 나타난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는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는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과 ㉢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 ⑤ ㉡와 ㉢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01~02] 다음은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인터뷰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뷰 내용	채팅 창
<p>진행자: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식품 유통 회사인 ‘○○신선’의 김○○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p>	<p>도리도리: 와~ 반가워요! 새싹이: 대표님을 실시간으로 만나다니^^</p>
<p>김 대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p>	<p>⋮</p>
<p>진행자: ‘○○신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p>	<p>상크미: 아토피 피로워요. 달콤청굴: 맞아요. 먹는 게 중요하죠. 하트뽕: 우리 △△산지 사과가 최고입니다.</p>
<p>김 대표: 네. 저는 아토피가 있어 음식을 신경 써서 먹었는데, 질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산지에서 좋은 재료를 배송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요.</p>	<p>민트빛: 달콤청굴 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 @ 달콤청굴: ㄱㅅㅎㅇ ↳, 민트빛: 무슨 말??</p>
<p>진행자: 네. 지금 인터뷰를 보고 계신 분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상크미’ 님이 피부 질환의 괴로움에 대해, ‘달콤청굴’ 님이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p>	<p>⋮</p>
<p>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신선’을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p>	<p>⋮</p>
<p>김 대표: ‘신뢰’입니다. (채팅 창을 본 후) 네. ‘멍이’ 님의 말씀처럼 ‘신뢰’라는 말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흔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신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p>	<p>ⓓ 멍이: ‘신뢰’가 정말 중요한 듯. 성공한 사람들이 꼭 강조하는 말임. 새싹이: 성과가 없는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한 용기♡</p>
<p>진행자: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p>	<p>ⓐ 하트뽕: 우리 △△산지 사과가 최고입니다. 우리 △△산지 사과가 최고입니다.</p>
<p>김 대표: 네. 제가 하는 일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제가 하는 일이 확실히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졌던 것 같아요.</p>	<p>↳, 슛돌이: 사과 얘기 좀 그만합시다. ⋮</p>

진행자: 네, 그랬군요. 아,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 오셔서 현재 1,0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 대표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C]

김 대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채팅 창을 보며) 아, 혹시 대표님, 이전에 모 기업의 유능한 사원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김 대표: 맞아요. 창업하기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었죠.

진행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김 대표: 음,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가치가 있었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저의 비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좋은 농산물, 해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이어서 건강한 재료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 제게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행자: 네, 혹시 시청자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채팅 창을 보며) 아,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네요. 새로운 일을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D]

김 대표: 한번은 믿었던 생산지에서 납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평소에 만들어 두었던 생산자 목록을 활용하여 전국의 납품 업체에 연락을 취했고, 여러 생산자로부터 소량의 물건을 받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하루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요?

김 대표: 시작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E]

진행자: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인터뷰 영상은 ◇◇누리집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새싹이: 대표님 □□ 아파트 사시죠? 이웃 주민^^

숯돌이: 대표님이 제 친구 입사 동기였다는데 유능했다고 들음!

도리도리: 그만두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시다.

◎ 상크미: 일이 있어서 중간에 못 들었는데 이번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

새싹이: 새 분야를 개척하면서 힘들었던 점?

도리도리: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

달콤청굴: 응원해요. 전 지금 타국에서 유학 중인데 열심히 살게요!

숯돌이: 좋은 말씀 감사^^

민트빛: 지금 독서실에서 보다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자!

달콤청굴: 감사합니다^^

숯돌이: 안녕히 가세요 *_*
:

[22004-0161]

01

[A]~[E]를 통해 알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통해 진행자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② [B]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가 채팅에 참여하는 특정 사람을 선정하여 일대일 쌍방향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를 통해 진행자가 인터뷰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를 통해 진행자가 인터뷰 중에 채팅 창의 내용을 반영해 질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와 시청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시간에 만나서 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004-0162]

02

<보기>를 참고하여 ㉠~㉥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익명을 기반으로 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에서 생산된 정보는 파급력과 확산성이 큰 편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은 아닌지,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등을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실시간으로 문자 언어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파악한 후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방적인 표현을 반복하거나,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자음, 모음의 일부를 생략해 사용할 경우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신의 언어 사용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은 초성자만 사용한 표현으로, 대화 참여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② ㉡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방 표현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 ③ ㉢는 대화의 주제와 무관한 말을 반복한 표현으로, 다른 대화 참여자의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④ ㉣는 대화 참여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노출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⑤ ㉤는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으로,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03~05] (가)는 신문사 누리집에 있는 기사문과 댓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학생이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신문

입력 시간: 202×. 03. 12. 13:05
 수정 시간: 202×. 03. 14. 16:40

정치	경제	사회	칼럼	문화	글자 크기 □ ↔ ⇄
----	----	----	----	----	----------------

지금 우리 사회는 ‘오디션’ 시대

-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텔레비전을 켜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마주한다. 오디션 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다. □□ 방송의 ‘나도 스타다’, ◎◎ 방송의 ‘코리아 싱어’, ◇◇ 방송의 ‘트로트 셋별’ 등의 프로그램이 각 방송국의 시청률 1위를 이끄는 주역들이다.

오디션은 실력을 펼칠 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하지만 오디션의 인기 뒤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 대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순위를 가르는 경쟁의 구조로 진행이 되고,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나도 스타다

코리아 싱어

트로트 셋별



제시된 영상은 3월 3일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예고편으로, 해당 방송국에서 무료로 제공한 영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노래를 하고, 긴장하며 심사위원의 평가를 기다린다. 떨어진 참가자는 쓸쓸히 박수를 치며 퇴장한다. 물론 제작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구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필연적인 한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꿈’을 담보로 경쟁을 조장하고, 1위에게만 집중하는 성공 지향적인 분위기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시민 기자: 박○○ -



인기 가수 ○○○

★ 성대에 좋은 △△ 토종꿀 ★

3월 한 달간만 파격 세일
2병에 엄청 싼 99,000원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A]

추천 기사_당신이 관심 있어 할 기사

☞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

- ◇◇ 방송, 대왕 가수 1위 발표 반전!

[댓글]

꼬물망: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재야의 고수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어요! 👍 4 🗨️ 2

↳ 피터팬: 하지만 개인사는 보여 주지 말고 노래 실력만으로 경쟁했으면...

꿈천사: 심사위원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심사위원을 시청자가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5 🗨️ 0

보소미: 방송국과 프로그램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 3 🗨️ 1

↳ 박○○: 확인하고 방금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적응 학습 _ 매체 189

(나)

부영이의 블로그
[전체 공개 글]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가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기사(아래의 [바로 가기] 링크 참고)를 읽었다.

[바로 가기] ☆☆ 신문 지금 우리 사회는 ‘오디션’ 시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경쟁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시선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누군가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곤 한다. 가장 인상적인 오디션 참가자로 임신 8개월 차 여성분을 잇을 수가 없다.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 방송의 ‘코리아 싱어’ 예선에 도전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그녀의 모습은 감동이었다.

꿈이 있다면 어떤 환경도 장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오디션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굴곡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특별하고 멋진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멋지게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다.

#오디션 #기회 #꿈

[댓글]

핑크빛: 나도 동의함. 일단 기회 자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의 한 표를~! ^^

↳ 부영이: 저와 같은 생각이시구나! 음악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그런데 너무 감정만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점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부영이: 그렇지만 그건 극히 일부 참가자의 경우만 그런 거 아닌가요?

뚜벅이: 그런데 저 그림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 부영이: 제 캐릭터라고 동생이 그려 줬는데, 마음에 들어요 ^_^

[22004-0163]

03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수용자가 필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겠구나.
- ② 정보 수용자는 내용과 관련된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기사의 내용을 신뢰할 수도 있겠구나.
- ③ 정보 수용자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른 기사에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 ④ 정보 수용자는 문자, 이미지, 영상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서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 ⑤ 정보 수용자는 정보 생산자가 기사를 입력하고 수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22004-0164]

04 다음은 (가)를 읽고 난 후 (나)를 작성하기 위해 글쓰기가 떠올린 생각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나는 이 기사와 의견이 조금 달라. 블로그에 내 생각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 싶어. ㉠ 독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블로그 방문자 모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해야겠어. ㉡ 내 개인 블로그에 편하게 쓰는 글이니까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들어가도 될 거야. ㉢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신문 기사에 독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쓰겠지? ㉣ 네티즌으로 소통하는 댓글에서는 대화 상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높임 표현으로 의견을 주고받아야겠어. ㉤ 내 글의 핵심 내용을 대표하는 문구를 해시태그로 표시해서 글의 화제를 중심으로 쉽게 검색될 수 있게 해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65]

05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배너 광고는 인터넷에서 그래픽 이미지로 제작되는 형태의 광고로, 배너를 클릭하면 설정한 사이트로 넘어가 소비자들이 광고 제품의 사이트를 방문하게 할 수 있다. 제품 판매 업체는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목표 고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삽입하고, 매력적인 문구나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배너를 클릭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 배너 광고의 장점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광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너 광고는 신문사 사이트에서도 빠짐없이 활용된다. 경계해야 할 것은 광고 목적의 콘텐츠가 기사의 가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① 토종꿀 제품의 판매 업체는 ☆☆ 신문 사이트의 독자들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위한 목표 고객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설정해 둔 배너 광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겠군.
- ③ 광고 목적의 콘텐츠가 신문 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사의 본문과 다른 새로운 창에 광고 내용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제품의 가격을 광고 전면에 제시한 것은 시간의 제약 없이 화면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의 특징을 활용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겠군.
- ⑤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배너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군.

[01~02] (가)는 라디오 광고, (나)는 포스터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라디오 광고(20초)

(신나는 행진곡이 배경 음악으로 나오며)

[성우 내레이션]

전 세계가 함께하는 신나는 건강 축제!

모여라! 뒹굴어라! 즐겨라! (더 큰 소리로) 제5회 ○○ 머드 축제!

청정한 갯벌에서 한류 중심의 축제로 도약하는 ○○ 머드 축제!

(더 큰 소리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음악에 맞춰 성우가 노래를 부르며)

다 같이 ○○ 머드 축제~ ♪ 다 같이 즐겨 ○○ 머드 축제~ ♪

모두 모여, 모두 모여, ○○시로 함께 모여.

[성우 내레이션]

화려한 축제의 현장에 특별히 준비된 피부 건강 이벤트!

한류를 이끄는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나) 포스터 광고

유명 스타들도 즐겨 찾는다는 머드 축제에 나도 간다.

나도 축제에 참여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겨야지.

머드가 대체 머드래요?

머드는 진흙을 함유한 점토성 물질로,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최: ○○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축제 관련 문의 전화: 012-345-0000 축제 안내 누리집: www.◇◇.or.kr

관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01

[22004-016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음악 등 청각 요소만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관련된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가)는 노랫말을, (나)는 그림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하는 표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실시간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 수용자가 정보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02

[22004-016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활용되는 매체 자료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용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에 활용하는 설득 전략으로는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동원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 인상적인 이미지나 표현을 제시하여 광고 수용자의 흥미나 감성을 자극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의 장점과 우수성을 열거하여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등이 있다.

- ① 머드 축제를 한여름 밤의 꿈에 비유하는 표현은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자 한 것이겠군.
- ② 머드의 여러 우수성을 열거한 부분은 수용자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겠군.
- ③ 유명인들도 즐겨 찾는다는 메시지는 수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설득 전략을 사용한 것이겠군.
- ④ 축제가 열리는 기간 및 장소 등은 표면적으로 지역 축제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겠군.
- ⑤ ‘머드가 대체 머드래요?’라는 유사한 소리를 이용한 표현은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겠군.

[03~05] (가)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동아리 학생들이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트렌드 읽기]	◇◇ 인터넷 신문	입력: 202×. 08. 20. 06:10
조회 수 356		수정: 202×. 08. 21. 20:21

완판 신화 ...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다

-요즘 뜨는 '편슈머 마케팅'-

유통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편슈머의 등장이다. 편슈머는 '재미'를 뜻하는 '펀(Fu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가 합쳐져 탄생한 신조어이다. 편슈머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신의 소비 성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유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소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미를 소비하고 또 그 경험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의미하는 가성비를 추구하던 소비의 흐름에서 가격 대비 재미의 비율을 의미하는 '가잼비'를 추구하는 흐름으로 소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기업은 편슈머를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가령, 식품 회사와 이불 회사가 협업을 하여 라면 봉지 모양의 침구 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식품 회사와 문구 회사가 협업하여 특정 문구 제품 모양의 사탕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준비한 수량이 연일 매진, 완판으로 이어지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편슈머를 공략하기 위해 만드는 제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방 세제나 강력 접착제 등을 만들 때 초콜릿이나 사탕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생활 화학 제품을 먹거리로 오해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지난 18일 보건 복지 위원회가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식품처럼 디자인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어떤 물품을 만들 경우 해당 물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편슈머 마케팅을 활용할 때 안전에 대한 고려를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 김○○ 기자(abc11@○○.com) -

[댓글]

아삭이: 안전보다 화제성에만 몰두하는 기업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 공롱알: 동감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호잇: 법적 규제만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 신문의 기사 한번 보세요. 기업의 입장을 나타낸 내용이더라고요.
↳ 아삭이: 그 기사도 찾아봐야겠네요.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결국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호잇: 그건 맞아요.^^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

작성자: 권채원(사회 문제 탐구 동아리 대표)

[카드 1]

가성비? 요즘은 가잼비!

-편슈머 마케팅의 빛과 그림자-

*가잼비: 가격 대비 재미의 비율을 뜻하는 유행어.



[카드 2]

편슈머가 뭐지?

Fun(재미) + Consumer(소비자)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유통 업계는 ‘편슈머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드 3]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와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인터뷰) 소비자 “평소 좋아하는 음료수병의 디자인을 본뜬 가방이 출시되어서 재미로 구입을 했죠. SNS에 올렸더니 다들 획기적이라는 반응이에요.”

[카드 4]

재미는 있다고?

비식품 상품 + 식품 디자인 →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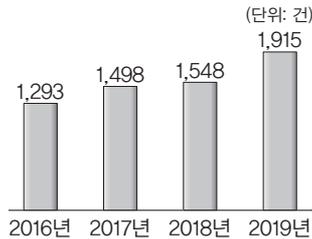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인데 겉모습이 식품과 유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5]

어린이 이물질 삼킴 사고가 증가한다고?

소비자학과 ○○ 교수는 어린이 이물질 삼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카드 6]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미 + 안전 = 편슈머 제품

소비자의 관심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덧글]

까꿍: 최근에 편슈머 제품과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하더라고요. www.○○.co.kr/abc12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

↳ 돌리: 정말요?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쌍쌍이: 최근 소비 경향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유용했다니 저도 기분이 좋군요.^^

[22004-0168]

0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드러내어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 수용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의 생산자로 참여하여 본문의 입력과 수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
- ⑤ (가)는 표제와 부제를 통해, (나)는 첫 번째 카드의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정보 생산자의 소속이 드러나고 있다.

[22004-0169]

04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카드 1]~[카드 3]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카드 뉴스란 짧은 글과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의 뉴스를 의미한다. 소재와 주제가 동일한 글이라도 글과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독자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카드 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또한 구성적인 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식,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 독자의 경험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 ① [카드 1]을 보니, ‘가짬비’를 추구하는 소비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목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군.
- ② [카드 2]를 보니, 관련 분야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카드 뉴스의 중심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③ [카드 3]을 보니, 편슈머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독자를 인터뷰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군.
- ④ [카드 2]와 [카드 3]을 보니, 카드의 제목과 내용을 물음과 답변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군.
- ⑤ [카드 1]~[카드 3]을 보니, 현재 유통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편슈머 마케팅’을 주제로 다루고 있군.

05

[22004-0170]

〈보기〉는 (나)를 본 후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카드 4]와 [카드 5]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채원: 우리 동아리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 봤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담: 나도 재미있게 봤어. 그런데 [카드 4]에 제시된 삽화는 편슈머를 공략하기 위한 제품은 맞지만, 위험한 제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

지우: 그렇네. [카드 4]에 들어갈 삽화는 비식품인데 식품 디자인으로 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신: 채원아, 고생 많았어. 그런데 [카드 4]와 [카드 5]는 각각 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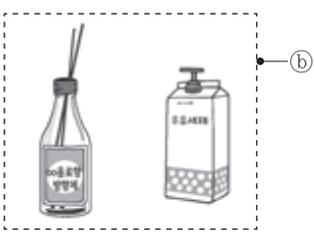
지우: 아,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전할 때는 핵심 어구별로 끊어서 화살표를 이용하여 제시하되, 문자 옆에 시각적인 기호를 추가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또 인터뷰 내용은 만화처럼 인물 캐릭터에 말풍선을 넣어서 제시해 주자.

유담: 좋아. 그리고 사용한 그래프의 제목과 출처를 독자들에게 알려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채원: 그래. 다들 좋은 의견 고마워! 반영해서 수정할게.

[카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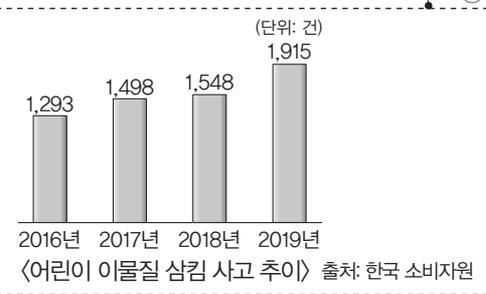
재미는 있는데, 안전은 괜찮을까?
비식품 상품 + 식품 디자인 → 위험하다!



걸모습이 식품과 유사
⇒ 먹으면 안 되는 제품
⇒ 안전사고 발생!!

[카드 5]

‘재미’가 어찌면 어린이에게는?
... ‘위험’할 수도 있다!



연도	사건 수 (건)
2016년	1,293
2017년	1,498
2018년	1,548
2019년	1,915

〈어린이 이물질 삼킴 사고 추이〉 출처: 한국 소비자원

어린이 이물질 삼킴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해야 해요.

○○ 소비자학과 교수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01~03] 다음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세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고, 저는 인터뷰를 요청드렸던 영화 동아리 반장 김 세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장 감독: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세진: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뷰라 걱정이었는데, 연결이 원활해서 다행입니다. 감독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 감독: ㉠ 인사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기쁘네요. 영상 촬영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세진: ㉡ 네. 저희가 이번 교내 축제에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 발표할 계획이라서요. 다양한 영상 촬영 기법이 궁금합니다.

장 감독: 영화를 직접 찍으려고 도전하는군요. ㉢ 일단요 그 정신을 높이 샅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촬영 기법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먼저 카메라에 비치는 피사체의 크기에 따른 숏(shot)의 종류를 알려 드릴게요. 숏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숏이 모여 신(scene)이 되고, 신이 모여 시퀀스(sequence)를 이룹니다. 그리고 시퀀스가 모여 우리가 보는 영화가 되니까, 숏은 영화의 최소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피사체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보면 익스트림 롱 숏-롱 숏-풀 숏-미디움 숏-클로즈업 숏-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롱 숏은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경 전체를 촬영하는 방법이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은 눈, 귀, 코 등의 부분을 극도로 확대하여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은상: 풀 숏은 인물의 신체 전체를, 미디움 숏은 머리에서 허리 정도까지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 맞지요?

장 감독: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롱 숏은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리 하여 전경을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숏을 말하는데, 배경과 인물이 시야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 클로즈업 숏은요 얼굴 등과 같이 피사체에서 보여 주고 싶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피사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피사체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업 숏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을 사용하면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화를 위해 스케치했던 그림을 공유해 줄게요. 참고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숏을 나누는 기준은 감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라는 거 알아 두세요.

					
익스트림 롱 숏 (extreme long shot)	롱 숏 (long shot)	풀 숏 (full shot)	미디움 숏 (medium shot)	클로즈업 숏 (close up shot)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 (extreme close up shot)

〈감독이 공유한 자료〉

문영: (들뜬 목소리와 몸짓으로)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감독님의 작품을 많이 좋아하는 이문영입니다. 화면에 피사체의 크기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의 종류와 그 효과가 궁금합니다.

장 감독: (웃음) 문영 학생이 제 작품을 좋아하는 게 잘 느껴지네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동 촬영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를 옆으로 이동하며 촬영하는 패닝(panning)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거나 가로로 긴 피사체를 자세히 보여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수직으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틸팅(tilting)은 높은 피사체의 웅장함을 보여 주거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는 경우에 사용하고, 렌즈의 줌 기능을 활용하여 피사체를 크게 당기거나 밀어내는 주밍(zooming)은 시선 집중을 유도할 때 사용합니다. 패닝, 틸팅, 주밍을 할 때에는 화면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 이동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피사체에 맞춰진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은상: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희가 제작하려는 단편 영화의 ㉠ 장면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 감독: 어떤 영화를 찍으려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볼까요.

[22004-0171]

01

〈보기〉는 ㉠의 일부이다. 위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 동아리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면 1	장면 2	장면 3
가로로 긴 형태의 회사 전경	엘리베이터를 탄 주인공이 7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의 숫자가 1에서 7까지 변하는 모습
장면 4	장면 5	
7층에 도착한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사무실의 부산한 풍경	사무실의 많은 사람들 중 주인공을 향해 손을 흔드는 주인공의 선배 모습	

- ① 장면 1에서 가로로 긴 형태의 회사 전경을 자세히 보이게 촬영하려면 패닝 기법을 사용해야겠어.
- ② 장면 2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주인공의 손을 보여 주려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기법을 사용해야겠어.
- ③ 장면 3에서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의 숫자가 1에서 7까지 변하는 것을 촬영하려면 틸팅 기법을 사용해야겠어.
- ④ 장면 4에서 사무실의 분위기를 한눈에 느낄 수 있게 촬영하려면 롱 샷 기법을 사용해야겠어.
- ⑤ 장면 5에서 주인공의 시선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배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여 주려면 주밍 기법을 사용해야겠어.

[22004-0172]

02

다음은 위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진: 오늘 실시한 인터뷰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웠어. 특히 감독님이 아프리카에 계신데 여기 있는 우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감독님이 쏫의 종류를 설명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스케치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 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되었어.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내가 실수로 감독님이 불쾌할 만한 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 앞으로 영화 제작하다 궁금한 게 생기면 감독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은상: 보통 인터뷰였다면 한두 명의 대표 학생이 감독님을 만나러 갔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실시간으로 온라인 인터뷰가 이루어지니까 감독님의 목소리나 표정도 생생해서 마치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더라.

문영: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과 인터뷰라 진짜 행복했어. 게다가 실시간 온라인 인터뷰라 내가 감독님을 좋아하는 게 행동과 목소리에서 티가 많이 났나 봐. 온라인 인터뷰라서 내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야.

- ① ‘세진’은 인터넷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군.
- ② ‘은상’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함으로써 인터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군.
- ③ ‘문영’은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과정에서 전달 내용이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군.
- ④ ‘세진’과 ‘은상’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매체가 상호 결합된 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군.
- ⑤ ‘은상’과 ‘문영’은 대면 소통의 상황과 달리 매체를 활용한 간접적 소통의 상황에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03

[22004-0173]

〈보기〉는 위 인터뷰를 들은 학생이 탐구 학습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탐구할 사항: 이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보조사 ‘요’를 자주 쓰고 있다. 담화의 맥락에서 ‘요’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알아봐야겠다.
- 사전에서 검색하여 정리한 내용
 요 「조사」
 「1」((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 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
 친구가 많이 아프던가요?
 「2」((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여기 볶음밥요.
 어서요 읽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어요.

- ① ㉠에서는 체언 뒤에 붙어, 공적인 담화 상황에서 상대를 존대하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
- ② ㉡에서는 연결 어미 뒤에 붙어, 낮춤말인 ‘저희’와 함께 상대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고 있어.
- ③ ㉢에서는 부사어 뒤에 붙어, ‘삼니다’의 ‘-ㅂ니다’와 함께 상대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고 있어.
- ④ ㉣에서는 보조사 뒤와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상대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고 있어.
- ⑤ ㉤에서는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ㄴ게’ 뒤에 붙어, 이 종결 어미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존대하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

[01~03] (가)는 휴대 전화 메시지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학생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반영해 만든 안내문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화방 (3명) ☰

학생회장

제3회 학생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들 지금 회의할 준비되셨는지요?

총무부장 <네.>

홍보부장 <응. 📷>

학생회장

홍보부장님. 휴대 전화 메시지는 하지만 학생 회의 중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이니만큼,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부장 <앗, 죄송합니다. 메시지가 보니 저도 모르겠.>

학생회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약으로 제안했던 우산 대여 서비스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홍보부장 <㉡ 갑자기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었죠? 학교에 비치된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다음 날 반납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학생회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우산을 비치하는 것이죠. 먼저 우산 구입에 쓸 학교 예산이 있는지 총무부장님께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어떨까요?

총무부장 <네.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 받은 학생회 예산 파일을 공유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일: 202×학년도 학생회 예산.xls 보시면 한 학년에 20개씩 구입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다.>

학생회장

그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우산은 언제 대여해서 언제 반납하게 하면 좋을까요?

홍보부장 <대여는 하교할 때 하고, 반납은 다음 날 등교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총무부장 <하교할 때 대여하면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려서 너무 혼잡할 것 같습니다. ㉣ 학생회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미리 우산을 가져가게 하면 어떨까요?>

학생회장

제 생각에도 점심 식사 시간이 좋을 듯합니다. 우산 대여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총무부장 <누가 빌려 가는지 확인도 해야 하니까 교무실이나 학생회실이 좋겠쥬.>

홍보부장 < 교무실에 비치하면 선생님들의 공간이 번잡스러워집니다. ㊠ 학생회실에 비치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할 듯한데요.

총무부장 < 그렇다면 무인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보내 드리는 링크를 타고 가서 동영상 하나를 봐 주시겠어요? www.bicycle.oo.kr ☆☆ 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를 무인 대여한다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인데요. 우리 학교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듯합니다.

홍보부장 < 링크를 활용하니 바로 내용이 확인이 돼서 좋네요. 만약에 반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납이 잘 안 되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려해야죠. 일단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알린 후, 학생들을 믿고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해 봅시다.

학생회장

홍보부장 <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문 초안을 만들어 볼 테니, 이후에 검토 및 추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사랑 나눔 우산

우리 학교의 ‘사랑 나눔 우산’을 소개합니다.

‘사랑 나눔 우산’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해 비가 오더라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산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산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사용한 후 다음 날 반납하면 됩니다.

○○고 학생들의 양심을 믿고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사랑 나눔 우산’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학생회를 찾아 주세요.

- 기간: 연중
- 대상: ○○고 학생
- 운영시간
- 대여: 점심 식사시간
- 반납: 다음 날 아침
- 운영장소: 본교 2층 학습 카페에서 강당으로가는 길(복도)
- 주최: ○○고 학생회

[22004-0174]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회장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에 회의 안건을 언급하고 있다.
- ② 학생회장은 사용 중인 매체의 특성을 근거로 홍보부장이 예의를 갖추고 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 ③ 총무부장은 파일 공유가 쉬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화방 참여자들과 파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 ④ 총무부장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⑤ 홍보부장은 총무부장이 매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004-0175]

02 <보기>는 검토 및 추가 의견을 듣고 (나)를 수정한 것이다.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사랑 나눔 우산

우리 학교의 '사랑 나눔 우산'을 소개합니다.
 '사랑 나눔 우산'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해 비가 오더라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산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산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사용한 후 다음 날 반납하면 됩니다.
 ○○고 학생들의 양심을 믿고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사랑 나눔 우산'과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학생회 SNS에 올려 주세요.

- 기간: 연중
- 주최: ○○고 학생회
- 대상: ○○고 학생
- 운영시간
- 대여: 일과중
- 반납: 다음 날 아침
- 운영 장소:

○○고 2층 막도		강당
3-1교실		학습 카페
3-2교실		
3-3교실		3-4교실 3-5교실 3-6교실

복도



- ① 안내문에 이미지가 있으면 중심 화제를 즉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니 관련 그림을 삽입하면 좋겠어.
- ② 건의 사항이 있을 때 학생회를 직접 찾아오게 하기보다 SNS를 활용하여 의견을 받는 게 좋겠어.
- ③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산 대여 가능 시간을 확대해 주면 좋겠어.
- ④ 개인 사정으로 아침 시간에 반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체 반납 시간을 명시해 주면 좋겠어.
- ⑤ 운영 장소를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약도로 표현하면 좋겠어.

[22004-0176]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공적 담화 상황임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② ㉡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못 부정문’을 사용했다.
- ③ ㉢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안에 대해 상대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동 표현을 통해 우산을 가져가는 주체와 그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구분되고 있다.
- ⑤ ㉣의 ‘거기’는 이미 언급한 내용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01~03] 다음은 인터넷 생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올림픽 포스터에 숨겨진 상징’을 주제로 △△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 대화 창에 의견을 올려 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문 교수: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포스터는 개최국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개최국은 올림픽 포스터에 자국의 대표적인 조형물이나 국기, 색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주체성을 집약된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 진행자님과 시청자 여러분, 어떤 나라의 올림픽 포스터인지 맞춰 보시겠어요?



〈자료〉

진행자: ㉢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네요. 가운데에 ‘ΑΘΗΝΑ 2004’가 있어서 무척 쉬운데요. 시청자분들도 맞히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청자 대화 창을 확인하고) ㉣ 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자료 화면이 너무 작은가 본데, 그림을 좀 크게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대화 창을 다시 확인하고) 네. 이제 잘 보이시나 봅시다. 시청자분들도 자료를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올려 주고 계십니다.

문 교수: ㉤ 와, 역시 다들 잘 맞춰 주시네요. 이 포스터는 단순명료한 디자인이 핵심인데요, 상단의 파란색 정사각형 안에 그려 넣은 올리브 관과 하단의 ‘ΑΘΗΝΑ 2004’라는 문구, 그리고 오륜기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포스터에서 2가지 상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터 상단의 파란색 네모 안에 그려진 올리브 관입니다.

[A] 진행자: ㉥ 어, 올리브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올리브 관이라고 하셨나요? 월계관이 아니고요? (시청자 대화 창을 확인하고) 시청자 ‘월계관은 나의 것’ 님께서는 “파란 네모 안의 월계관만 봐도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인지 알겠네요.”라고 올려 주셨는데요.

문 교수: ㉦ 헛갈릴 수 있지만 이 포스터에 사용된 식물은 올리브가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4대 경기 제전의 승자에게 상으로 관을 수여했는데, 이때, 관의 소재로 올리브, 무화과, 월계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주신(主神)에 따라 경기 제전에서 각각 다른 소재의 관이 수여된 것인데요, 근대 올림픽이 개최되면서부터 월계관이라는 커다란 상징물로 통합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에 사용된 식물은 월계수가 아닌 올리브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생지인 그리스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중요시하여 포스터에 의도적으로 올리브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는 도시 아테네의 주신(主神)인 아테네 여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참고로 제1회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에서도 올리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㉔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포스터를 다시 보니 나뭇잎 주변에 동그라미 모양의 올리브 열매가 보이네요.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상징은 무엇인가요?

문 교수: 두 번째 상징은 포스터 상단의 사각형을 채운 파란색입니다. ㉕ 예, 아테네는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여신만큼이나 포세이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세이돈의 바다를 표현한 푸른색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때문에 국제 대회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몇몇 국가의 선수들은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시기적 이유 때문에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는 더욱더 푸른색을 강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의 국기 아시죠? 포스터에 사용된 상단의 푸른색과 하단의 하얀색은 그리스의 국기 색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색 상징을 잘 활용한 포스터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㉖ 오늘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에 담긴 다양한 상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시청자 여러분, 다른 올림픽 포스터에 숨겨진 상징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시청자 게시판에서 여러 올림픽 포스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공유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04-0177]

01

〈보기〉를 바탕으로 위 방송의 ㉑~㉖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터넷 방송에서 발화자는 방송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화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송을 보고 있는 불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발화를 하기도 한다. 또한 발화자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감독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나 화면 구성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 ① ㉑: 발화자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로, 방송의 주제를 알리고 있다.
- ② ㉒: 발화자가 방송 참여자와 시청자에게 하는 발화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③ ㉓: 발화자가 카메라 감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화로, 화면 구성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④ ㉔: 발화자가 방송 참여자와 카메라 감독에게 동시에 하는 발화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⑤ ㉕: 발화자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로, 시청자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22004-0178]

02 다음은 [A] 부분이 방송될 때의 시청자 대화 창 상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터넷 생방송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척척박사: 딱 봐도 아테네 올림픽인데, 교수님의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
 ↳ 그리스 사랑: 척척박사 님, 표현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분이 상하는데, 문 교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월계관은 나의 것: 파란 네모 안의 월계관만 봐도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인지 알겠네요.
 아테네 유학생: 저 지금 아테네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방송을 보다가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가 나오니 반가워서 글 남겨요.
 ↳ 그리스 사랑: 아테네 유학생 님,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스의 푸른 바다를 저는 언제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 아테네 유학생: 그리스 사랑 님, 아테네에 오시면 제가 도시를 안내해 드릴게요.

- ① ‘월계관은 나의 것’이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인터넷에 제시된 개인의 의견 중에는 검증이 필요한 것도 있다.
- ② 생방송이 진행되는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시청자들끼리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 공간적 제약을 넘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③ ‘척척박사’가 문 교수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 사랑’이 불쾌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필요한 공간이다.
- ④ ‘아테네 유학생’이 올린 글의 내용을 진행자가 방송 중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방송 중에 진행자가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 ⑤ ‘척척박사’, ‘그리스 사랑’처럼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22004-0179]

03 <보기>를 참고하여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Ⅰ 보기 Ⅰ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발화를 이루며, 화자의 느낌이나 의지 따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감탄사는 흔히 기쁨, 성냄, 슬픔 등을 나타내는 ㉠ ‘감정 감탄사’와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 ‘의지 감탄사’로 구분하는데, ㉢ ‘입버릇 및 더듬거림’을 추가하여 셋으로 나눌 수도 있다.

- ① ㉠: 상대의 요청에 대한 화자의 동의를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② ㉡: 응답 상황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③ ㉢: 상대의 발화에 대한 화자의 당황스러움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 상대의 발화를 들으며 생각난 화자의 뉘우침을 담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 말하는 도중에 뒷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 때 특별한 뜻 없이 내는 소리이므로 ㉣에 해당한다.

[01~03] 다음은 텔레비전 인터뷰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1: 오늘은 교통 봉사로 유명하신 자원봉사자 김현수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1: ㉠ 복장이 상당히 화려하신데 평소 교통정리를 하실 때도 이 복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자: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제복용 모자에 빨간색 셔츠를 입으면 멀리서도 잘 보여요.

(삽입 화면) 차량 주행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동작.

진행자 2: 교통정리를 하실 때 수신호가 아주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요, (팔을 당기는 동작 반복하며) 차가 진행해도 된다는 거고요. (손을 모아 내리며) 이것은 신호가 바뀌니 속도를 줄여 달라는 뜻이고, (왼손은 높이 들고, 오른팔은 가로로 저어 좌회전 유도, 이때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함.) 이것은 사거리에서 직진 차량은 멈추고 좌회전 차량은 깜빡이를 켜고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진행자 1: ㉢ (크게 웃으며) 와아, 정말 경쾌한 동작이군요. 교통 봉사는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자원봉사자: 젊었을 때 저랑 절친했던 친구와 길을 가는데, 그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친구가 크게 다쳐 정말 여러 해 동안 고생했지요. 나만 무사한 것 같은 마음에 친구에게 미안했고, 이후로는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삽입 화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

(효과음) “애야, 좌우 잘 보고 조심히 건너가. 행복해야 돼!”

진행자 1: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통 봉사를 나가십니까?

자원봉사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나가요.

진행자 2: 아아! 힘드신 날도 있겠어요.

자원봉사자: 20년을 하다 보니 황사도 매연도 다 견딜 만한데 여름에는 지열이 올라와 힘들더라고요.

진행자 1: ㉣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시는군요.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강렬한 빨간 셔츠

[장면 1]



도로 위의 자원봉사자

[장면 2]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세요

[장면 3]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지요.

[장면 4]



행복해야 돼!

[장면 5]

자원봉사자: 아침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학교 주변을 돌아봐요.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달래서 들여 보내기도 하죠.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달래려고 빵도 사 주고 우유도 사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몇 달이면 아이와 친해지죠. 그 아이도 학교를 잘 다니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의 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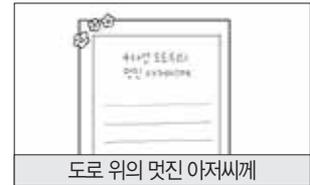
진행자 2: ㉔ 이거 멋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삽입 화면) 학생들에게서 받은 편지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 주는 편지를 받을 때도 보람을 느껴요. ‘4차선 도로 위의 멋진 아저씨께’, ‘인간 신호등, 호루라기 아저씨’, 어린 아이들의 이런 편지를 받으면 감개무량해요.

진행자 1: 자, ㉕ 오늘 도로 위의 인간 신호등, 김현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㉖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예, 감사합니다.



[장면 6]

[22004-0180]

01

〈보기〉를 바탕으로 [장면 1]~[장면 6]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터뷰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정보나 의견 등을 알아내는 대화이며, 면접, 면담이라고도 한다. 텔레비전 인터뷰는 음성 언어를 활용한 질문과 대답 이외에도 인터뷰 장소에서의 화면 구성, 공간 구성, 영상이나 음향의 삽입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인터뷰보다 시청자가 느끼는 정보의 실재감이 높고, 인터뷰 대상자의 구체적 면모를 이해하고 방송 내용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장면 1], [장면 4]: 인터뷰 대상자를 확대 촬영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부각되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② [장면 2]: 인터뷰 대상자가 평소 활동하는 영상을 삽입하여 시청자가 인물의 구체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③ [장면 3]: 인터뷰 대상자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시청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④ [장면 5]: 인터뷰의 내용에 따라 인터뷰 장소를 이동하여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시청자가 느끼는 정보의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장면 6]: 인터뷰 대상자의 발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22004-0181]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 대상자의 외양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인터뷰 대상자의 발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 ② ㉡: 인터뷰 대상자에게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므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 인터뷰 대상자가 보여 준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표현하고 있다.
- ④ ㉣: 인터뷰 대상자가 발화한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언급하여 들은 내용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뷰 대상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대한 인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22004-0182]

03 ㉠,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동사 ‘모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 인명 뒤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의존 명사 ‘님’을 사용하고 있다.
- ③ ㉢: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명사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④ ㉣: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 ‘-비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01~03] 다음은 교지에 실을 기사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청색광의 유해성 논란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㉑ 청색광 자체의 유해성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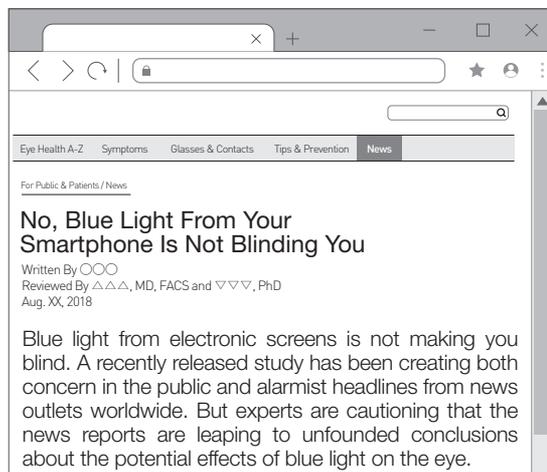
전자 기기 사용자의 습관이 문제

‘청색광’은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 380~500nm(‘nm’는 나노미터로, 1m의 10억분의 1임.)의 짧은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의 한 종류다.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TV 등의 전자 기기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청색광은 다른 색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장시간 청색광에 노출되면 망막과 망막 내 시각 세포가 손상되어 황반 변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에 청색광을 차단하는 보호 필름을 부착하거나 청색광 차단 안경을 끼기도 한다.



〈사진 1〉 청색광의 유해성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그러나 2018년 미국 안과 학회는 청색광이 유해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청색광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빛의 일부이고, 실제 태양빛에서 나오는 청색광의 양이 전자 기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청색광이 유해하다면 하늘을 보고서도 시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색광에 관한 보도들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진 2〉 미국 안과 학회지에 실린 청색광 연구 결과

이로 볼 때 청색광이 우리의 눈에 유해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색광이 나오는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청색광이 나오는 전자 기기는 보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우리들의 집중을 요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를 볼 때에는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든다. 보통 눈은 1분에 15~20회 정도 깜빡이는 것이 정상인데,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는 그 횟수가 약 5회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안구에 기름 및 수분의 공급이 줄어서 만성 안구 건조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우리 동공이 더 커지고, 동공이 커질수록 더 많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므로 어두운 공간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눈 건강에 매우 해롭다. 따라서 늦은 밤까지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전자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는 50분 사용 후 10분 정도 먼 곳을 보면서 눈을 쉬어 주고,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건조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 ○○○ 기자(□□□@△△△.co.kr)

[22004-0183]

01

〈보기〉는 윗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계획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제	기사문의 표제는 이 글의 논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시각 자료	청색광이 유해하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도된 청색광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뉴스 기사들을 나열해서 보여 주는 것이 좋겠어. ㉡
	청색광이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안과 학회의 연구 결과가 실린 학술지의 한 부분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 좋겠어. ㉢
본문	청색광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겠어. ㉣
	예상 독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늦은 밤까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의 위험성과 주의할 점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84]

02

〈보기〉는 위 기사를 실을 교지를, 기존의 인쇄본 대신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다희: 요즘 학생들은 인쇄물보다는 디지털 매체로 읽는 것을 선호하잖아. 그래서 이번 교지부터는 디지털 교지로 발간할까 하는데, 어때?
- 철민: 난 찬성. 이 기사를 디지털 교지로 발간하면 〈사진 2〉에다 링크를 걸어서 직접 학술지 사이트로 접속해서 궁금한 내용을 더 살펴볼 수 있게 할 수 있잖아.
- 윤성: 맞아. 또 기자의 이메일 주소에도 링크를 걸어 두면 기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기자가 쓴 다른 기사들도 읽을 수 있을 테니 우리 글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
- 다희: 그리고 댓글도 달 수 있으니 기사에 대한 반응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겠지?
- 철민: 맞아. 맨날 우리 기사 어땠냐고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잖아. 그리고 수정해야 할 것들이 생기면 즉시 수정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지 않겠어?
- 윤성: 맞아. 또 인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지를 배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
- 다희: 그리고 기사를 몇 사람이나 봤는지도 즉시 확인이 되니까 기사별 선호도도 파악할 수 있겠네. 그럼 디지털 교지로 바꾸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해 볼게.

- ① ‘다희’는 독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군.
- ② ‘철민’은 하이퍼링크가 가진 연결성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군.
- ③ ‘윤성’과 ‘다희’는 독자와의 상호 작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군.
- ④ ‘철민’과 ‘윤성’은 인쇄 비용과 배부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군.
- ⑤ ‘다희’는 기사에 대한 반응 확인을, ‘철민’은 기사에 대한 수정을 즉시 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군.

[22004-0185]

03

㉗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군.
- ②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청색광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군.
- ③ 안은문장을 활용하여 청색광 자체의 유해성을 전자 기기 사용자의 습관과 연결 짓고 있군.
- ④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 부사를 활용하여 청색광 자체가 유해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군.
- ⑤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를 활용하여 전자 기기 사용자의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군.

[01~0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의 일부이고, (나)는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진행자: 속보입니다. 약 두 시간 전 ○○시 서구 남쪽 9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후 현재 여진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미약한 진동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장에서는 테이블이 흔들려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B] 진행자: 박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박 기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현장 대피소 앞입니다. 저기 멀리 10층 높이의 건물이 보이시나요? 보시다시피 건물의 외형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은 여진의 가능성으로 불안한 마음에 건물 밖 대피소에서 실시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 대피소에서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C] 박 기자: 안녕하세요. 지진 발생 당시 어디에 계셨나요?
시민: 저희 집이 아파트 10층인데요, ㉢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이 흔들리고, 창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단 저희 아들을 안고 무조건 계단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박 기자: 3년 전 발생한 지진과 비교하면 피해 정도가 어떤가요?
시민: ㉣ 겉으로 드러난 피해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다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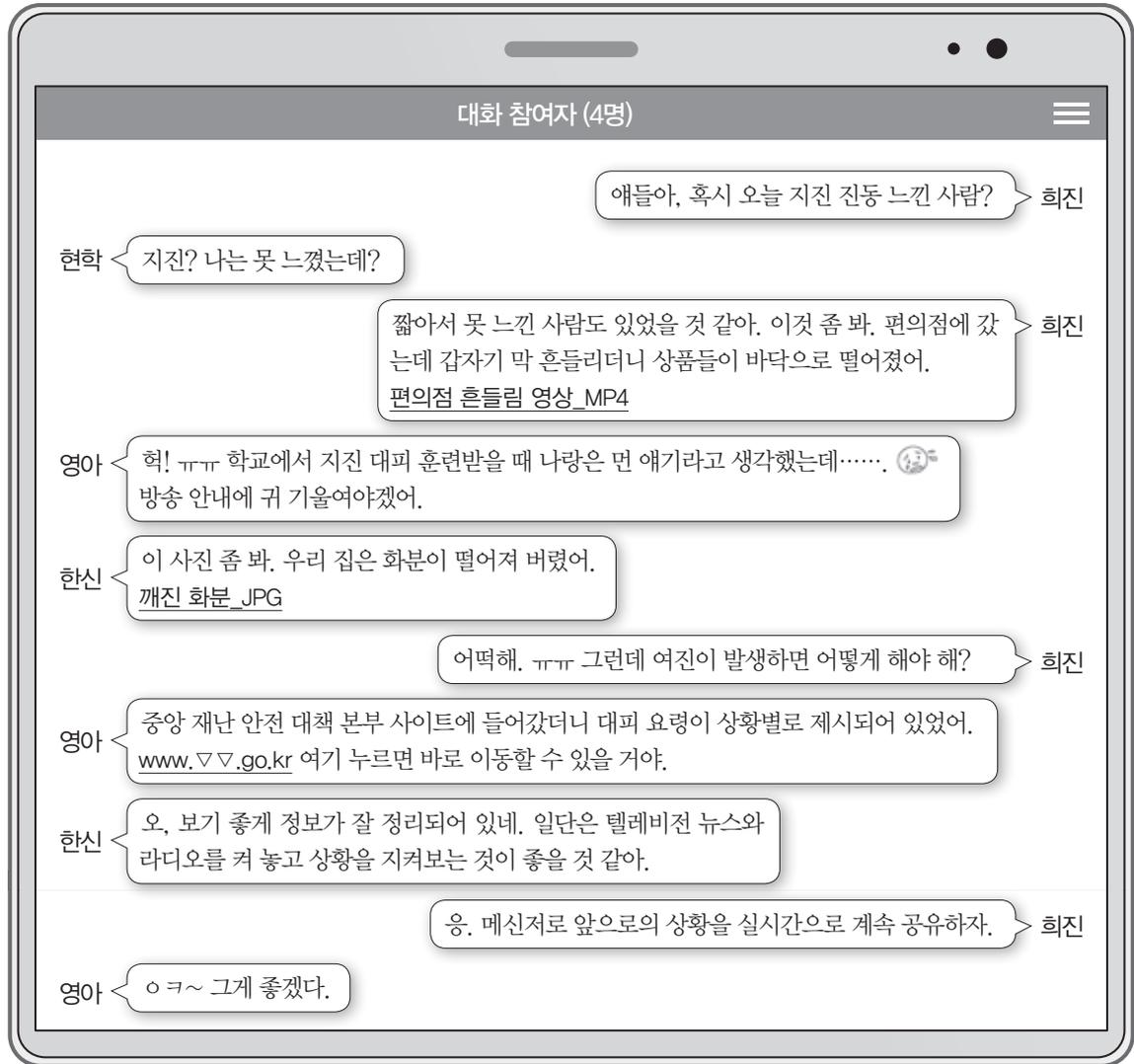


[D] 진행자: 네. 박 기자, 혹시 시민분께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었는지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 기자: 네. (화면이 흔들리다 꺼진다.)
진행자: 지금 갑자기 현장 통신 연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미약하게 흔들리고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 진행자: 이번에는 지질학과 김◇◇ 교수님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김 교수: 진도 3.3 지진이 짧게 관측되었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완전히 지진이 멈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 네. 교수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다시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



[22004-0186]

01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현장 상황에 대하여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③ (가)는 자막을, (나)는 이모티콘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내용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가)는 현장 인터뷰를, (나)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는 공식 맥락에서 규범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나)는 사적 맥락에서 비규범적 언어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22004-0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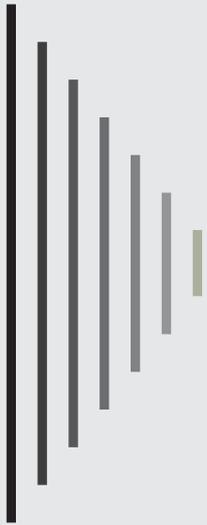
02 (가)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진행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② [B]: 진행자와 박 기자가 사건 현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C]: 박 기자와 시민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 보며 일대일로 소통을 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와 박 기자가 통신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⑤ [E]: 진행자와 김 교수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음성 언어만으로 소통하고 있다.

[22004-0188]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동 표현을 활용하여 지진의 진동 감지에 대한 사실을 알린 주체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당시의 현장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 ③ ㉢: 동작상 중에서 진행상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 부정 표현을 활용하여 두 지진의 피해 정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⑤ ㉤: 부사격 조사와 보조 용언을 활용하여 객체인 ‘시청자 여러분’을 높이고 있다.



3부



교과서
실전
학습

[22004-0189]

01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Ⅰ 보기 Ⅰ

I. 교과서 정리 자료

- 끝소리가 잇몸소리(치조음)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ㄷ, ㅌ’이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인 ‘ㅅ, ㅆ’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口蓋音化)라고 한다.
- 모음 ‘ㅣ’는 고모음이자 전설 모음으로, 센입천장소리와 발음되는 위치가 거의 같다.

II. 어문 규정 정리 자료

㉠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 ㅆ]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달이[미:다지], 발이[바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해설] 구개음화 현상은 치조음인 ‘ㄷ, ㅌ’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가까워져 경구개음 ‘ㅅ, ㅆ’으로 바뀐 것이다.

㉡ [한글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ㅅ, ㅆ’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예 굳이(○)/구지(×), 달히다(○)/다치다(×)

- ① I로 보아 합성어 ‘밭일’에서 ‘일’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 ② II의 ㉠로 보아 ‘벼훑이’는 받침 ‘ㅈ’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벼훑치]로 발음해야 한다.
- ③ II의 ㉡의 [붙임]으로 보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할 때에는 먼저 ‘히’의 ‘ㅎ’이 ‘ㅌ’으로 교체되어 ‘티’를 이룬 다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I과 II의 ㉠로 보아 구개음화에서 치조음이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은 모음 ‘ㅣ’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II의 ㉡, ㉣로 보아 구개음화로 인해 바뀐 소리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적을 때에는 바뀐 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22004-0190]

02 <보기>를 참고하여 파생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파생은 단어 형성 방법의 하나로, 파생어의 형성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이 따른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먹이’는 어근 ‘먹-’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만 결합하고 모음으로 끝날 때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뜻사랑’, ‘뜻고추’는 어근에 접두사 ‘뜻-’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뜻-’과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는 명사이다. 이처럼 ㉡ 파생 접사가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또 명사 파생 접미사 ‘-이’는 어근 ‘길-’과 결합하여 명사 ‘길이’를 파생하지만 *‘짧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사 파생에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어근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 어근의 의미상의 특질에 따라 파생어 형성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이’뿐만 아니라 ‘-기’도 ‘밝기, 크기’에서 보듯이 명사를 파생하는 접사이다. 그런데 *‘길기, *깊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이미 ‘길이, 깊이’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단어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 저지 현상이라고 한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놀이, 해돋이, 길잡이’에서 접사 ‘-이’는 ㉠의 음운론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참깨, 참꽃, 참뚝’에서 접사 ‘참-’은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깊이’가 허용되고 *‘얕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군말, 군잎, 군식구’에서 접사 ‘군-’은 ㉠과 ㉡ 모두에 해당하는 예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높이, 넓이’가 허용되는 것은 ㉢을, *‘높기, *넓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22004-0191]

0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주어가 남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 문장이다. 어떤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의 주체가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다. 사동문은 어떤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쳐 어떤 행위를 일으킴을 나타낸 문장이다. 피동은 크게 피동사에 의한 피동과 ‘-아지다/-어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피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동 역시 사동사에 의한 사동과 ‘-게 하다’가 결합된 통사적 사동으로 나눌 수 있다.

- ㉠ 형은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 ㉡ 그는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다.
- ㉢ 선생님은 동생에게 종을 올리게 하셨다.
- ㉣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 ㉤ 거칠고 좁은 발에 씨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

- ① ㉠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알렸다’의 부사어가 주어가 되고 ‘그 소식을’은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 ② ㉠과 ㉡은 모두 ‘-게 하다’가 결합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③ ㉠과 ㉢에는 사동 접미사 ‘-리-’가, ㉡과 ㉣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있다.
- ④ ㉢에서 ‘올리다’의 주체는 부사어로 실현되어 있으며, ㉤에서 ‘뿌리다’의 주체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과 ㉣은 모두 용언의 어간에 ‘-아지다/-어지다’가 결합한 통사적 피동문이다.

[22004-0192]

04 다음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두 학생이 대화하고 있다.]

가영: 아까 쉬는 시간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유하: ㉠ 매점. 복습할 때 쓰려고 이거 샀지.

가영: 펜 같은데……. ㉡ 그거 형광펜 아냐?

유하: 응. 세 가지 색으로 써지는 형광펜이지.

가영: 신기하네! (달력을 보며) 모레가 주말이구나.

유하: 그렇네. ㉢ 그런데 이번 주말에 뭐 해?

가영: 아무것도 안 해. ㉣ 너는?

유하: 나도 그래. ㉤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가영: 좋아! 영화라면 무조건 좋지.

- ① ㉠과 ㉡의 지시 표현은 동일한 사물을 가리키고 있다.
- ② ㉠에는 ㉣와 같이 담화 맥락상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모두 생략한 문장이 있다.
- ③ ㉡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데 비해, ㉢는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와 ㉤에는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접속 표현이 있다.
- ⑤ ㉣는 상대의 제안을 다시 확인하려는 의도를, ㉤는 상대에게 요청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2004-0193]

05 다음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설명]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주어보다 높다고 화자가 판단할 때 실현되었습니다.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 조건에 따라 '-습-, -줍-, -습-'의 형태가 있었는데, '-습-'은 'ㅎ' 뒤에서는 '-줍-'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객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생략되어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물건이나 일 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에도, 그리고 서술어가 관형사형인 경우에도 실현되었습니다. 다음의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탐구해 보기로 합시다.

[중세 국어 자료]

- 우리 부터 ㉠ 恭敬 습 습 논 전츠로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까닭으로]
- 大瞿曇이 슬허 뿌리어 棺에 ㉡ 녀줍고 [대구담이 슬퍼 (죽은 보살을) 꾸러 관에 넣고]
- 阿難이 곧 座로서 니러 부텃 뵈샤 ㉢ 들줍고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서 보이시어(보이신) 가르치심을 듣고]

- ① ㉠은 용언의 관형사형에 객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다.
- ② ㉡이 높이고 있는 대상은 생략되어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은 높임 대상과 관련된 일을 높임으로써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④ ㉠은 목적어를 높이고 있고 ㉢은 부사어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두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화자가 주어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6~08] 다음은 '정애'가 동아리 홍보를 위해 동아리 카페에 올린 홍보 자료의 초안과 부원들의 댓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고등학교 <상상의 날개> 동아리 지원 안내문

광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광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기원전 5천 년경 이집트 파라오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 담긴 그림을 통상적으로 광고의 기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신문 광고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886년에 한성주보에 실린 독일의 무역 회사 세창 양행의 광고입니다. 광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졌으며, 현대인들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광고제 수상 작품 수
 광고 분야로 진출한 선배의 수

연도	광고제 수상 작품 수	광고 분야로 진출한 선배의 수
2019년	4개	2명
2020년	7개	3명
2021년	10개	5명

[A]

우리 <상상의 날개>는 이런 시대에 좋은 광고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동아리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원을 20명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실습 워크숍, 전문가 특강, 전문가 멘토링, 광고제 출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광고 창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자신이 만든 광고를 동아리에서 평가하는 '월 평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우리 <상상의 날개> 부원들의 각종 광고제 수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광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선배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는 여러분의 자기 계발을 적극적으로 도와 여러분이 광고계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 <상상의 날개>에서는 1차와 2차 선발 과정을 통해 신입 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나 활동 계획 등을 평가하여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2차에서는 1차를 통과한 지원자가 제출한 광고를 평가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이때 제출한 광고의 평가 기준은 옆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 <상상의 날개>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202×년 3월 14일~202×년 3월 18일까지 우리 동아리 카페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 <상상의 날개>는 광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비율
소비자의 요구 반영	40%
설득 전략의 효과성	30%
주제 표현의 선명성	20%
표현 방법의 창의성	10%

[B]

[맛글] 공감 ♥

정애: 학교 누리집의 동아리 홍보란에 올릴 초고를 만들어 봤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할게.

정원: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동아리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 정애: 그러네. 소재목하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눈에 띄게 할게.

덕주: 우리 동아리를 모르는 사람은 카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 효정: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한 후 다시 우리 동아리 카페에 접속해서 접수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

↳ 정애: 그런 면도 있네. 덕주와 효정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볼게.

동욱: 지원서 제출 기간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지원서 제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는데.

↳ 정애: 좀 더 잘 보이게 이미지를 활용해 볼게.

효정: 이것만으로는 우리 동아리를 다 알려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동아리 카페에 가면 동아리에 관한 정보가 많은데.

↳ 정애: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카페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만들어 넣을게.

정원: 각종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서 우리가 학교 누리집에 올린 것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

↳ 정애: 알았어.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볼게.

[22004-0194]

0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광고 분야에 진출하는 데 광고제의 수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평가에서 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활용한 것이겠군.
- ② [A]는 동아리 부원들이 광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광고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평가에서 각 요소의 비율이 변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활용한 것이겠군.
- ③ [A]는 각종 광고제의 수상이 광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요구 반영 평가 요소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겠군.
- ④ [A]는 각종 광고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광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가 용이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지원자가 작품을 출품할 때 해당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활용한 것이겠군.
- ⑤ [A]는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작품과 광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선배들의 증가를 통해 동아리 활동이 자기 계발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평가 요소별 비중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겠군.

07 [22004-0195] 위 동아리 홍보 자료 초안에 달린 ‘댓글’을 반영하여 ㉠을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상상의 날개>에 지원하는 방법 ㉠

1. 다음의 ‘지원서 내려받기’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원서 제출하기’에 제출하면 접수됨. ㉡

지원서 내려받기

지원서 제출하기

2. 지원서 제출 기간 ㉢

202×.0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QR 코드를 이용하면 <상상의 날개>의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음. ㉣



#상상의_날개 #광고_동아리 ㉤

-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196]

08 다음은 동아리 지원을 권유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아리 활동: <상상의 날개> 지원을 권유하는 영상 제작하기
 영상 내용: '○○ 고등학교 <상상의 날개> 동아리 지원 안내문'을 바탕으로 함.

- 첫째 장면(S#1):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라고 알려진 광고를 보여 주고, 이에 관한 내용을 제시
- 둘째 장면(S#2): 기업들이 광고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이와 관련한 현대인의 삶을 제시
- 셋째 장면(S#3): 좋은 광고와 나쁜 광고를 대비하여 보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동아리의 성격을 제시
- 넷째 장면(S#4): 동아리 부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 주고, 각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시
- 다섯째 장면(S#5): 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동아리 출신 선배의 인터뷰를 보여 주고, 동아리 지원을 권유하는 내용을 제시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상
① 	S#1 1886년의 '세창 양행'의 광고를 보여 주고, 이 광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라는 것을 자막으로 제시
② 	S#2 여러 기업들이 하는 광고를 화면 여기저기에 나타나도록 구성하고, 현대인들은 이런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내레이션으로 제시
③ 	S#3 명암을 활용하여 좋은 광고와 나쁜 광고가 대비되게 구성하고, 동아리는 이런 좋은 광고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내용을 내레이션으로 제시
④ 	S#4 동아리에 들어오면 광고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울 각 단계를 원의 형태로 구성하고, 각 단계가 다음 단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내레이션으로 제시
⑤ 	S#5 동아리에서 광고에 대해 많이 배워 현재 광고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동아리 출신 선배의 인터뷰를 보여 주고, 동아리 지원을 권유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

[09~11] (가)는 라디오에서 (나)는 종이 신문에, (다)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보도된 일기 예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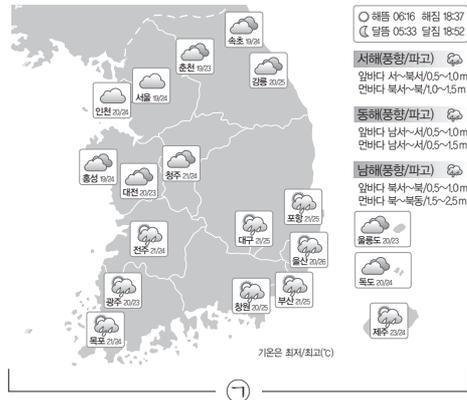
(가) 라디오



밤사이 비가 내렸던 제주와 남부 지방은 오전 10시 17분 12초가 막 지나가는 현재 비가 멈추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낮부터는 점차 꺾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1도를 기록해 선선했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와 포항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남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0.2미터에서 1.2미터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종이 신문

17일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으며, 낮에는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23도, 낮 최고 기온은 23~26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날씨는 예년과 유사하겠다.



(다) 인터넷 웹 사이트

● 음성 지원

a	시간대별	전국 날씨 정보 <table border="1"> <tr> <td>현재</td> <td>오늘 오전</td> <td>오늘 오후</td> <td>내일 오전</td> <td>내일 오후</td> </tr> <tr> <td>06. 18.</td> <td>06. 18.</td> <td>06. 18.</td> <td>06. 19.</td> <td>06. 19.</td> </tr> </table>  <p>날씨 정보 기상 위성 영상 06. 18. 16: 10 현재</p>	현재	오늘 오전	오늘 오후	내일 오전	내일 오후	06. 18.	06. 18.	06. 18.	06. 19.	06. 19.	날씨 뉴스 더 보기 <p>[날씨] 종일 전국 비가 내리고... △△TV 06. 18. 15:20</p> 기상 특보 더 보기 <p>풍랑 주의보 해제 06. 17. 10:00</p> 미세 먼지 예보 더 보기 <p>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됨.</p> ××동 날씨 (관심 지역) 더 보기 <p>구름 많음 / 20.0°C 강수 확률 80%</p>	우리 동네 날씨 ▼ <p>ㄴ, 여기는 ☉☉동인데 아직 비가 내려요. ㄴ, □□도 비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ㄴ, ☆☆동인데, 여기도 날씨가 꺾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p>
	현재		오늘 오전	오늘 오후	내일 오전	내일 오후								
	06. 18.		06. 18.	06. 18.	06. 19.	06. 19.								
	날씨 홈		덧글 ▼ <p>ㄴ, 날씨가 선선히진다고 하니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겠네.^^ ㄴ, 비는 내리지만 미세 먼지가 보통이라니 다행이네.</p>											
	지역별 날씨													
기간별 날씨														
뉴스·기상 특보														
날씨 영상														
b	생활 정보	관심 지역 날씨 설정 ▶ 관심 지역을 설정해 주세요.												
	세계 날씨													
	대기 환경 정보													
c														

[22004-0197]

09 (가)~(다)의 매체 자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는 (가)와 (나)와는 달리 정보 제공자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다)는 (가)와 (나)와는 달리 해당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③ (다)는 (가)와 (나)와는 달리 정보 수용자가 매체 자료를 접하는 시점의 실시간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 ④ (가)와 (다)는 (나)와는 달리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⑤ (나)와 (다)는 (가)와는 달리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2004-0198]

10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② (b)를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③ (c)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d)를 활용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이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⑤ (e)를 활용하여, 정보 수용자가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11

[22004-0199]

〈보기〉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기상 위성 영상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영상으로, 기상 위성 영상에는 다양한 기상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래서 기상 위성 영상을 통해 그날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등의 기상 상태뿐만 아니라, 태풍, 집중 호우 등 기상 이변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구름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대기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지적인 기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넘어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의 기상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상 위성 영상은 해독하는 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여 신문 등에서는 선택된 정보만을 가공된 이미지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수용자에게 정보가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공된 정보가 잘 인식되게 할 수 있다.

- ① ㉠은 ㉡과 달리 가공된 이미지로 선택된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군.
- ② ㉠은 ㉡에 비해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수용자의 훈련을 더 필요로 하고 있군.
- ③ ㉠은 ㉡과 마찬가지로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름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군.
- ④ ㉡은 ㉠에 비해 기상 이변에 관한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군.
- ⑤ ㉡은 ㉠과 달리 국지적인 기상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한반도 전체의 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군.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변동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음운 변동 전후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부엌 → [부억]’, ‘국물 → [궁물]’, ‘국밥 → [국뺨]’은 교체가 일어나는 단어이지만, ‘맨입 → [맨닙]’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교체가 일어나면 음운의 전체 개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첨가가 일어나면 음운의 전체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뭉 → [뭉]’, ‘ㄱ- + -어서 → [꺼서]’는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이고, ‘입학 → [이팍]’은 축약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면 음운의 전체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A] 한편 음운 변동은 입력형, 출력형, 적용 환경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입력형은 변동을 겪기 전의 음운, 출력형은 변동을 겪은 후의 음운, 적용 환경은 입력형이 출력형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음운 변동은 ‘A → B/X—Y’와 같이 형식화하기도 한다. 이는 입력형 ‘A’가 적용 환경이 되는 ‘X’와 ‘Y’ 사이에서 출력형 ‘B’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즉 ‘XAY’가 ‘XBY’로 나타나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X’와 ‘Y’ 사이에 있는 ‘A’만 ‘B’로 교체되어야 할 뿐,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A’는 ‘B’로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입력형이나 출력형 중 하나가 아무 소리도 없음을 가리키는 기호인 ‘∅’로 쓰여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입력형과 출력형이 ‘∅ → A’와 같이 쓰여 있으면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는 것이고, ‘A → ∅’와 같이 쓰여 있으면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적용 환경에서 ‘—’의 앞부분, 뒷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적용 환경에서 앞부분 없이 ‘—X’와 같이 쓰여 있으면 ‘X 앞에서’가 되고, 뒷부분 없이 ‘X—’와 같이 쓰여 있으면 ‘X 뒤에서’가 된다.

[22004-0200]

01 윗글을 근거로 하여 제시된 단어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보 → [국뺨]’에서는 ‘보’이 ‘뺨’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군.
- ② ‘축하 → [추카]’에서는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게 되는군.
- ③ ‘영업용 → [영업농]’에서는 ‘ㄴ’이 첨가된 후 ‘보’이 ‘뺨’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나게 되는군.
- ④ ‘땀받이 → [땀바지]’에서는 ‘ㄷ’이 ‘ㅈ’으로 교체된 후 ‘오’이 탈락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게 되는군.
- ⑤ ‘웃매 → [온매]’에서는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군.

02 [22004-0201] [시]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을 형식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 중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ㄹ’ 뒤에 ‘ㄴ’이 올 때, 그 ‘ㄴ’이 ‘ㄹ’로 바뀌는 것도 있다.

예 ‘달나라 → [달라라], ‘쌀눈 → [쌀룬]

- ① ∅ → ㄹ/ㄴ__ㄹ ② ㄴ → ㄹ/ㄴ__ㄹ ③ ㄴ → ㄹ/ㄹ__
- ④ ㄴ → ㄹ/ __ㄹ ⑤ ㄴ → ∅/ㄹ__

03 [22004-0202] <보기>의 국어사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있다

발음 [인:따]

활용 이어[이어], 이으니[이으니], 잇는[인:는]

품사 동사

①【…을 (…과)], 【…을 …에】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

- 이 다리는 섬을 육지와 이어 준다.
- 이 선을 저 선에 이었다.

②【…을】

「1」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 말을 잇다.

「2」 많은 사람이나 물체가 줄을 이루어 서다.

- 꼬리를 잇고 서 있는 차량들.

③【…에】(주로 ‘이어’나 ‘이어서’ 꼴로 쓰여)

뒤를 잇따르다.

- 개회사에 이어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① ‘있다①’과 ‘있다②’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있다③’은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말과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③ ‘있다’는 ‘있다①’, ‘있다②’, ‘있다③’과 같이 하나의 표제어 안에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점에서, 다의어임을 알 수 있다.
- ④ ‘있다’는 ‘이어’, ‘이으니’와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와 ‘-으니’ 앞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시’가 탈락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 ⑤ ‘있다’는 활용할 때 ‘이어[이어], 이으니[이으니], 잇는[인:는]과 같이 발음된다는 점에서, 용언의 어간에 연결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간을 길게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2004-0203]

0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동사는 용언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다. 그런데 모든 용언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 어간이 ‘이’로 끝나는 동사 중에는 ‘던지다’와 같이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 ‘싸우다’와 같이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요구할 때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
①	자리가 하나 <u>비다</u> .	친구가 선생님이 <u>되다</u> .
②	자리가 하나 <u>비다</u> .	그가 동생과 <u>뺏다</u> .
③	그녀가 회사에 <u>다니다</u> .	친구가 선생님이 <u>되다</u> .
④	그녀가 회사에 <u>다니다</u> .	그가 동생과 <u>뺏다</u> .
⑤	그녀가 회사에 <u>다니다</u> .	자리가 하나 <u>비다</u> .

[22004-0204]

05 다음 ㉠~㉢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단어	틀린 표기	옳은 표기
book	㉠ 북	북
supermarket	㉡ 슈퍼마켓	슈퍼마켓
backup	㉢ 백업	백업

보기

- a.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b.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c.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b, c

[06~08] (가)는 발표를 위한 자료 초안의 일부이고, (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발표 자료 초안

<p style="text-align: center;">슬라이드 1</p> <p style="text-align: center;">■ 발표 주제: 독립운동가를 찾아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모듬</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슬라이드 2</p> <p style="text-align: center;">■ 발표 목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당 이회영 선생 • 독립을 위한 활동 • 우당 이회영에 대한 평가 • 이회영 기념관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슬라이드 3</p> <p>■ 우당 이회영 선생</p> <p>본관은 경주. 호는 우당(友堂). 서울 출신. 아버지는 판서를 지낸 이유승이다.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07년 비밀 결사 신민회를 조직하고 중앙 위원으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활약하였다.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당하자 전 가족이 만주로 건너가 황무지를 개간하며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매진하였다. 1911년 교민 자치 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하고, 1912년 독립군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홍 강습소를 설립하였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분란이 끊이지 않자 상해보다는 북경에 체류하며 활동을 계속하였다. 1931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자 중국에 있던 동지들이 상해로 집결하여 조직한 항일 구국 연맹의 의장에 추대되었다. 1932년 일본 경찰에 잡혀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p> </div> </div> <p><small>출처: 우당 이회영 기념관</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슬라이드 4</p> <p style="text-align: center;">■ 이회영 기념관 안내</p> 

(나) 누리 소통망(SNS) 단체 대화방

SNS
<p>동우: 모두 안녕? [A] 태현이가 없는 거지? ㅏㅏ 좀 더 기다릴까?</p> <p>시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수 있다고,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라고 했어.</p> <p>동우: 그래? 어쩔 수 없지 ㅏㅏ. 내가 아까 메일로 보낸 발표 자료 확인해 봤어? 급하게 초안을 만든 거라 아직 손을 많이 봐야 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용 있으면 알려 줘.</p> <p>현주: 고생 많았어. 🍌 제목을 바꿔 보는 건 어떨까? 주제는 우리 반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 <u>우리 모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을 직접 제시해 주는 게 좋겠어.</u></p> <p>동우: 그게 나올까? 알았어~ 고쳐 볼게.</p> <p>현주: 고치는 김에 단순히 이름만 제시하기보다는 ㉡ <u>그분의 훌륭한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인상적인 문구도 넣어 주자.</u></p> <p>동우: ㅇㅋ~</p>

시은: 슬라이드마다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현주: 한 슬라이드에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달력이 약하니 글자 수를 줄이고, ㉠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는 게 어떨까?
 (태현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태현: 늦어서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
 동우: 어서 와~ ㅎㅎ
 시은: 태현아,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대화방 화면 캡처해서 보낼게. [scrca○○○.jpg](#)
 태현: 고마워. 대화 내용 확인해 볼 테니까 하던 얘기 계속하고 있어.
 동우: 그럼 현주의 의견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
 시은: 얼마 전에 이회영 선생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감동적이었어. ㉡ 인물을 소개할 때 그걸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주소 보내 줄게. <https://www.△△△.co.kr/movie=hty&fbm=1&ie>
 현주: 우와~ 대박! 좋은 자료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영상은 일부분만 제시해야 할 것 같아.
 태현: 내용 확인 끝~ 나도 현주와 시은이 의견에 동감!! 근데, 수업 시간에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배웠는데 출처 표시가 보이지 않네?
 동우: 맨 뒤에 모아서 넣으려 했는데... ㉢ 슬라이드마다 출처 표시를 넣는 게 낫겠다.
 태현: 이회영 기념관을 안내하는 슬라이드에 약도만 있으니까 뭔가 아쉽다.
 동우: 인터넷 누리집 주소와 교통편 관련 정보도 추가할까 해.
 현주: 너 혼란 험드니까 발표 자료를 우리 모뎀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서 함께 다듬으면 어떨까? 수정한 파일 이름에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표시해 줘.
 태현: 찬성!! 애니메이션 효과는 내가 넣을게.

[22004-0205]

06 (나)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우’는 한글 자음자나 모음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주’는 발표 상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정보량을 줄여서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③ ‘현주’는 참여자들의 공동 작업이 가능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함께 작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태현’은 자신이 대화방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추측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⑤ ‘시은’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안한 매체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004-0206]

07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가)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슬라이드 1	슬라이드 3
<p>우당 이회영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p> <p>나,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p>  <p>(*이미지 출처: 국가보훈처)</p> <p>○○○ 모듬</p>	<p>■우당 이회영 선생의 생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7년 서울 출생(이항복의 11세손) • 1905년 을사늑약 반대 운동 주도 • 1907년 최초 독립 운동 비밀 결사인 신민회 발족 • 1910년 경술국치 이후 6형제와 서간도로 망명 • 1912년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 학교) 설립 •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 • 1962년 독립장 서훈 <p>▶ 동영상 보기</p>

- ① ㉠ ② ㉡ ③ ㉢ ④ ㉣ ⑤ ㉤

[22004-0207]

08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들어갈 '동우'의 발화를 유추할 때 적절한 것은?

보기

['동우'의 발화 의도] '대화방에 들어와야 할 친구들 중 일부가 현재 대화방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부정문으로 표현하되,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부정 부사를 사용해야겠어.'

- ① 다는 없네.
 ② 다는 안 들어왔네.
 ③ 다는 들어오지 않았네.
 ④ 다는 들어오지 못했네.
 ⑤ 다는 들어온 게 아니네.

[09~11] (가)는 종이 신문에 실린 책 광고, (나)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가)의 책에 대한 비평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광고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최고의 필독서!

베스트셀러 작가 ○○○이 지금 우리 교육을 속 시원하게 진단하다!!





동영상 보기

2021 전국 서점 판매 (인문) 1위
73.4% 이상의 대학교에서
2021년 추천 도서로 선정



“ 우리나라 교육의 양면을 균형 있는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다. ” ○○대 교육학과 □□□ 교수

(나) 인터넷 블로그

『○○○, 우리 교육에 묻다』에 되묻다

책등이 2022.××.××. 19:42

URL 복사 +이웃 추가



『○○○, 우리 교육에 묻다』는 환경 관련 책으로 유명세를 얻은 ○○○ 작가의 신작이다. 흥미롭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 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출간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나 또한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단번에 끝까지 읽었다. 하지만 작가의 사이다 발언에 공감한 이후 마음 한편으로 답답함이 커 가는 것은 감출 수 없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애정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으나, 문제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해결 방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에 매진했던 작가의 이력을 볼 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바라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전작의 성공에 기대어 시류에

○ 검색

카테고리

- ▶ 분류 전체 보기(7)
- ▶ 하루 한 줄
- ▶ 책 비평
- ▶ 인문/역사
- ▶ 사회/과학
- ▶ 자기 계발

편승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특히 작가가 강조하는 ‘현재를 즐겨라’라는 주제는 이미 영화 ◇◇◇(해당 영화를 소개한 제 글은 [이 링크](#)를 클릭!) 등 교육과 관련한 작품 속에서 항상 다루어 왔던 소재이다. 이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출판 문화가 질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공감 52 구독하기

#○○○_작가 #교육에_문다 #신작 #서평 #현재를_즐거라 #출판문화_질적하락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5]

↳ 바람돌이: ○○○ 작가님은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하셨던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네요! 그때 활동한 내용으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2022.××.××, 19:32 17

↳ 책동이: 네, 해당 내용 반영하여 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2022.××.××, 19:45 11

늘봄: 제가 이 글을 SNS에 공유했는데, 글 내용에 많이들 동의하더라고요. 2022.××.××, 20:02 32

↳ 책동이: 늘봄 님, 제 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5:27 19

↳ 늘봄: 앗, 운영자님의 답글을 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언제나 좋은 글 써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2022.××.××, 21:51 3

[22004-0208]

09 (가)와 (나)의 매체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군.
- ② (가)는 (나)에 비해 지면의 제약이 있어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겠군.
- ③ (가)는 (나)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방식을 통해 내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 양식성을 띠고 있군.

[22004-0209]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상업 광고는 소비자가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전문가의 추천사나 여러 통계 수치 제시가 대표적인 방법이죠. 또한 소비자가 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고를 볼 때 광고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담겨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 ① 광고의 첫 부분을 과장된 문구로 표현하여 객관성이 떨어지는군.
- ② 판매 실적을 강조하는 내용을 부각하여 상업성을 높이려고 하였군.
- ③ 독자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수치화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군.
- ④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지만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는군.
- 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군.

[22004-0210]

11 매체 특성과 관련지어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댓글’에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생산자가 게시글을 처음 작성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
- ② ㉡: 표시된 숫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생산자는 게시글에서 소개한 책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 게시글의 내용과 연관된 다른 글들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시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게시글을 누리 소통망[SNS]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니, 생산자는 수용자가 자신의 글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군.
- ⑤ ㉤: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소통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니, 비교적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군.